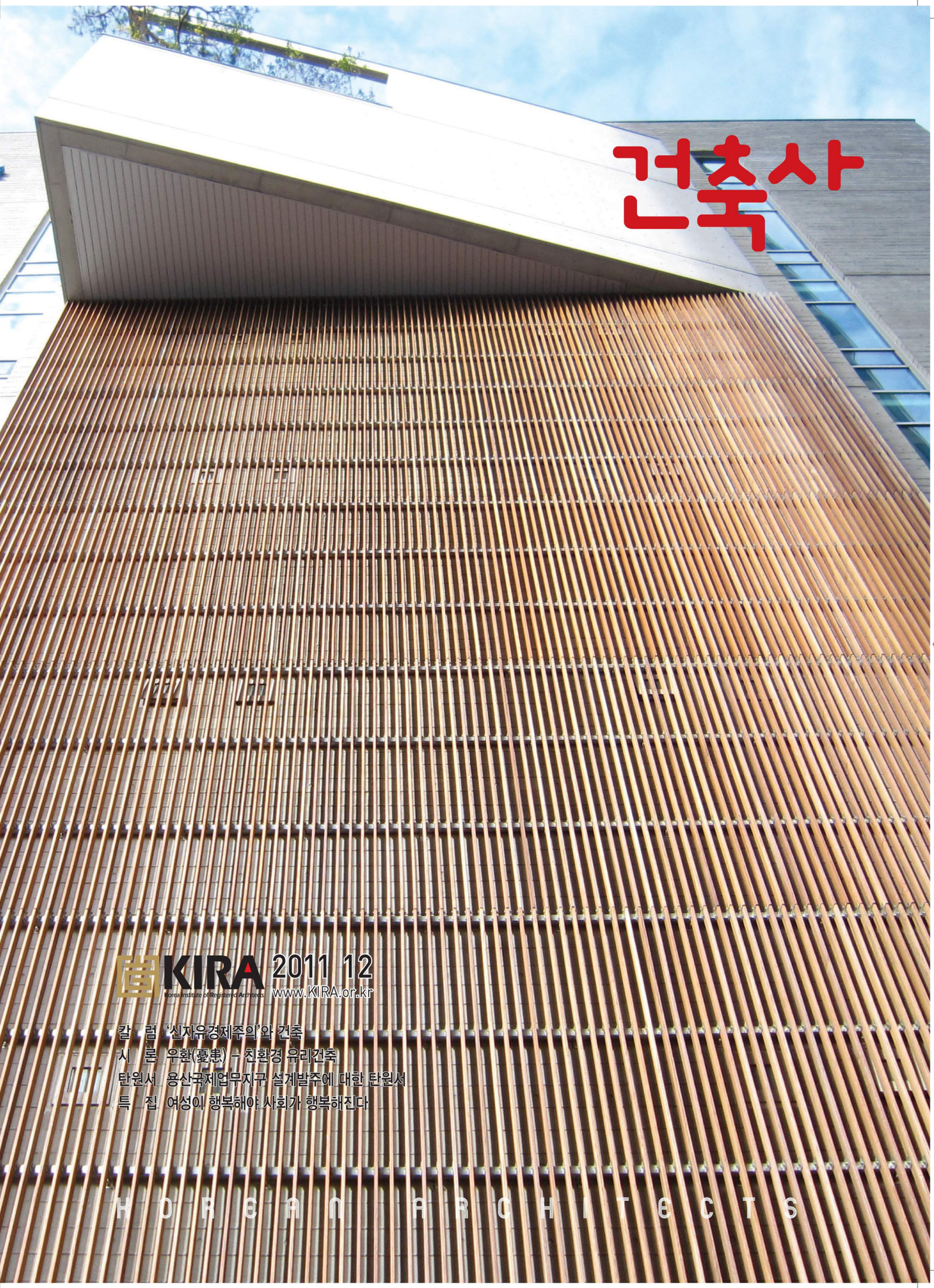


건축사

KIRA 2011 12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칼 럼 '신자유경제주의'와 건축
시 론 우환(憂患) – 친환경 유리건축
탄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설계발주에 대한 탄원서
특 집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진다

KOREAN ARCHITECTS

beyond the best

금호석유화학

지키는 것이 **기술**이다

흑연으로 가장 쾌적한 온도를 지키는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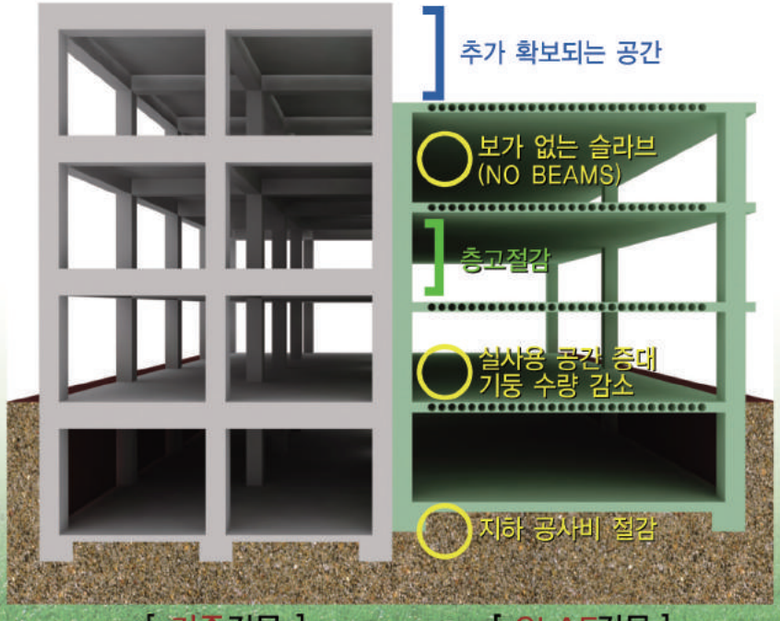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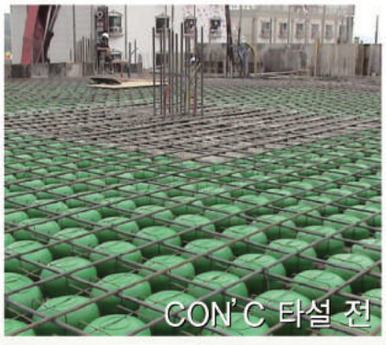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데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78-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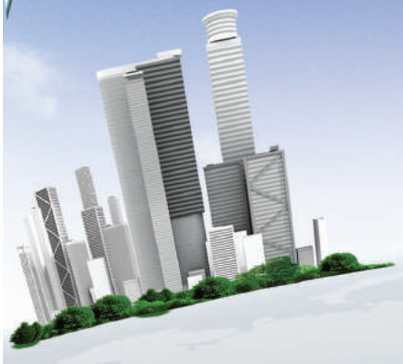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협회의 상징!

휘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간혹 공적 혹은 사적으로 협회의 휘장을 사용할 때
협회의 상징인 '휘장'의 모양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나라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이므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휘장은 협회의 상징(Symbol mark)으로서,
도안에 응용된 「ㄷ, ㄱ, ㅎ」은 대한건축사협회를 뜻하며
전체적인 모양은 건축적 분위기가 짙은
한국의 고유한 완자무늬로부터 착상되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빌딩 솔루션도 **삼성 시스템에어컨**이 앞서갑니다

초고층 빌딩 공조시스템 : 최대 110m 고낙차 설계 DVM Plus Ⅳ

스카이라운지 : 빌딩의 역풍을 고려한 설계 DVM WATER

주거공간 : 인테리어까지 고려한 초슬림 디자인 **인테리어 1-WAY**

오피스 : 구획(Zoning) 에 따른 공조설계 Mini AHU

상업공간 : 최적의 기류설계 DVM AHU
공공구역 : 친환경 대용량 지열시스템 적용 DVM GEO

지하방재실 : 설비통합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설계 Zensys

최적화된 혼합공조로 에너지 절감형 빌딩 솔루션

삼성 시스템에어컨

사용자 편리성
24시간 고장 감지 솔루션RMS(옵션)

경제성
설비기기(공조, 조명, 블라인드 등)間
협조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형 통합관리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COP 4.90(DVM Plus Ⅳ 14HP 기준)의
최고 수준 에너지 효율

설계 가변성
공간 특성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실내/외기 조합 가능

www.samsungb2b.co.kr
삼성전자 B2B(특판) 구매상담 : 1588-3536

삼성전자 SAMSUNG

KOREAN ARCHITECTS

10
칼럼
'신자유경제주의'와 건축
_오동욱

11
시론
우환(憂患) – 친환경 유리건축
_손기찬

13
만평
_김진균

20

14 **탄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설계발주에 대한 탄원서

16 **회원작품**
부산예술회관
_이아희
(주)경인 건축사사무소

22 **회원작품**
부천 작동주택
_이관직
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28 **회원작품**
세전원
_임영석
액츠 건축사사무소(주)

34 **회원작품**
헤이리 백농 스튜디오
_김종대
(주)율 건축사사무소

40 **회원작품**
큰빛 자연 생태 어린이집
_강연심
백두 건축사사무소

46 **회원작품**
TCC 50주년 기념관
_김윤회
(주)필아트 건축사사무소

51 **특집**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진다
_신경선

60 **인터뷰**
건축초대석
_박성택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_박찬정

26

30

66 **100작품**
새만금 홍보전시관 계획
_김석환

설계경기
_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증축
_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78 **연재**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_서혜옥

자연, 감성, 그리고
생태건축 이야기
_정아영

84 **연구**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최적설계
_우지환

89 **기고**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의
서울 유치

건축기행
건축과 도시 그리고 사람,
상생을 도모하다_김성수

105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해외건축 동향 _김은미
통계

발 행 인 강성익
건축사지편찬TF위원장 박찬정
위 원 구만열 · 김희곤 · 송호섭 · 이동우 · 정병협 · 최동호
취 재 · 편 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 시 밀 리 (02)3415–6898~9
홈 페 이 지 http://www.kira.or.kr
편 집 · 인 쇄 (주)랜스케이엠 Tel : (02)2273–8576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Vol. 512 December 201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1년 12월호 통권 512호

Contents

10 COLUMN
Architecture and 'Neoliberal Economic Theory'
_Oh, Dong-uk

11 FOCUS
Anxiety - Sustainable Glass Architecture
_Sohn, Kee-chan

13 CARTOON
_Kim, Jin-kyoon

14 PETITION
A Petition Against Yongsan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 Architecture Project Order

16 WORK
Busan Art Center
_Lee, Ah-hee

22 WORK
Puchon Jakdong House
_Lee, Kwan-jick

28 WORK
Se Jeon Won
_Lim, Young-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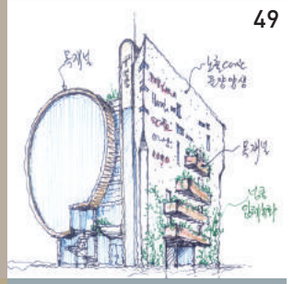
34 WORK
Heyri Baiknong studio
_Kim, Jong-dea

40 WORK
Eco-Friendly Preschool center
_Kang, Yeon-sim

46 WORK
TCC Center
_Kim, Yoon-hoi

51 Special Issue
Society happiness belong with Woman's Bliss
_Shin, Kyeong-sun

60 INTERVIEW
Invitation to Achitecture
_Park, Seong-taek
Seoul Arts Center
Chief of the bureau
interview_Park, Chan-jung



66 SKETCH WORK
Saemangeum Promotional Exhibition Project
_Kim, Suk-hwan

COMPETITI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Annex Building Extension

SEONNONGDAN History & Culture Park Museum

78 SERIAL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_Lee, Ji-eun

The Story of Nature, Sensibility and Ecological Architecture
_Jung. A-young

84 RESEARCH
Sustainable Optimum Design by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Efficiency
_Woo, Jee-hwan

89 FEATURE
Hosting UIA 2017 SEOUL

ARCHITECTURE TRAVEL
Architecture, City, and People - Accomodate Symbiosis
_Kim, Sung-soo

105 ARCHITECTS' PLAZA
Kira News
Archi-Net
Overseas News Review
_Kim, Eunmee
Statistics

Publisher	Kang, Sung Ik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용산국제업무지구 설계발주에 대한 탄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세워질 초고층 건축물은 향후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특히 용산은 일제치하와 해방, 6.25전쟁, 그리고 미군부대 주둔 등 역사의 험난한 파고를 넘어 어렵게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곳으로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사업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19개 주요 건축물의 설계와 총괄기획업무에 대하여 국내 건축사사무소는 배제한 채 외국업체만 참여하도록 부당하게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건축계는 한국건축의 세계화와 국내 건축설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당한 발주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 사항을 탄원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1. 건축은 그 나라의 품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종묘, 석굴암 등을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리고 건축이란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 역량이 집약된 것으로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것인 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국내의 건축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담은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2. 건축은 지식산업이자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건축설계 서비스분야는 모든 산업분야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끼치는 고부가 가치의 지식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육성 ·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

에 국내에서 발주되는 설계용역에 국내 건축업체를 배제한 것은 초고층 설계기술의 발전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국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3. 국내 건축설계시장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금융위기의 여파와 기간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건축설계시장을 더욱 위축시켰고, 이는 장기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이어져 건축설계업계 모두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국내 설계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국내 건축설계인력과 기술의 우수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미 88올림픽, 월드컵대회, 엑스포 등과 같이 세계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그 역량을 충분히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개발로서 국내 건축설계 인력과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이는 한국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며,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5.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외국의 건축사자격/면허 소지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 · 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축설계 발주시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한 것은 현행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향후 국내에서 발주되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에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법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2월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장 강 성 익
(사)대 한 건 축 학 회 회장 이 언 구
(사)한 국 건 축 가 협 회 회장 이 상 림
(사)새 건 축 사 협 의 회 회장 함 인 선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오 경 은

'신자유경제주의'와 건축

Architecture and 'Neoliberal Economic Theory'

오 동 욱 | Oh, Dong-uk, KIRA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약력
- 경희대학교 건축과 졸업
- 청석 건축사사무소 대표
- 국토해양부 민원제도개선분야 자문위원
- 서울지방항공청 설계분야 자문위원
- 소방방재청 중앙안전점검단
- 적법성검토시스템(U-세움터) 구축사업 1, 2차연구 외 다수

2011년도를 마감하는 시절에 대한민국 건축계의 현실은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매년 그러 하였지만….

'신자유경제주의'

작금의 경제 정책기조를 아우러는 대표적인 단어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장 가치 있는 단어인 '정의', '공동체'라는 존재를 무심하게 만든다. 또한 IMF와 2008년 리먼사태이후 우리의 금융시스템(국내은행, 저축은행, 카드업계)은 선진화라는 미목하에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탐욕으로 수수료장사, 중소기업대출외면, 예대마진의 폭리 등으로 서민의 창구가 아니라 가진 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현 금융시스템의 부도덕한 극치를 보고 있다.

국민을 양극화시키고, 다수 위에서 지배하고 온갖 특혜를 가지는 소수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정책들,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국민들에 회복할 수 없는 극한으로 몰고 간다. 그리하여 작금의 상황은 중산층의 붕괴 및 1%와 99%라는 극단적 용어들이 등장하고 1%가 99%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반 월가시위는 이러한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기 곤란한 업무(보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적내용을 수반하는)들 가운데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안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정부부처 산하에 직접적으로 이를 대행하기 위한 전문가제도를 둔다. 이가 곧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다. 이 전문자격자들은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당해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들이다. 건축분야는 타 분야와 달리 5년제 졸업 및 사회적인 실무경험을 쌓은 이후에 시험이라는 제도에 응시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취급함에 있어 그 만큼의 중요한 분야란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축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제발전시기에 건설위주의 정책으로 건축사들은 국가 건축 정책의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내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건축사=건축 인 · 허가 내주는 사람'이라는 인식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에는 대 다수 건축사(국가공인전문자격자)들이 먹고사는 것도 힘든 중간이하의 계층으로 전락하였다.

그럼 정부는 이러한 희생을 한 건축사들에게 어떻게 하였나?

여전한 건설위주의 정책으로 IMF이후 대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놓고 재건축, 재개발 및 택지공급 등 전 국토를 아파트 과다공급으로 인한 폐해로서 대한민국의 주거건축은 아파트로만 회자된다. 또한 분양(공급)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가의 분양가 및 과다공급으로 미분양 속출 등 폐해로 귀결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편의라는 핑계로 과도한 건축사의 배출로 시장질서를 교란하였으며 WTO이후 국제 경쟁력강화의 명목으로 국내건축계를 이분화 하였고 업무량은 증대하였으나 보수는 하향화 되었다. 그 결과 국가의 공적업무를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 평균건축사들의 연 소득은 10년정도 아래인 일반기업의 과 · 차장급의 2/3이하수준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다. 향후 이 나라의 건축계 미래는 암울한 뿐이다.

최근의 신용평가제의 도입 또한 심각하다. 젊은 신진건축사들의 기회의 원천박탈로 헌법에서의 '기회평등의 원칙'에서 정부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 우리는 어떠한가?

'건축이 공공이고 국가의 자산이요, 우리시대의 사상의 집약체'란 의미와 상관없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일조하지 않았던가? 국가 전문자격자로서 아니 건축인으로의 자존감은 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면 폐해 및 패배의식에 젖어 그냥 죽어가는 것인가?

협회는 정부의 정책에 고민을 하는가? 여러 건축단체들 속에서 우리협회의 정책이나 목소리는 무엇인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협회의 정체성은 과연 있는가?

무한경쟁 경제자유시대의 우리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자가 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책임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환(憂患) – 친환경 유리건축

Anxiety - Sustainable Glass Architecture

손기찬 | Sohn, Kee-chan, KIRA
건축사사무소 동이

약력
- 인하대 건축학과, 동 대학원 졸업
- 대한민국건축대전 심사위원
-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
- 인하대 건축학부 겸임교수
-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일전에 행사가 있어 여름방학 중 산뜻한 신관의 서울대학교 농생대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냉방 가동이 안 되어 창문을 열어 놓았다. 서향의 거대한 유리벽에서의 작고 시늉만 낸 창은 제구실을 하기에는 세미나실을 온통 찜통으로 만들어 참석자들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더욱이 발표에 나서, 연단에 서서 내다보이는 활짝 펼친 유리창 밖의 관악산 푸른 경관과 시원한 계곡은 그림의 떡이 되어 필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활짝 열리는 큰 창만 있었더라도 시원한 외부 자연환경이 내부로 유입될 수 있었을 터인데!

여전히 유리질의 투명하고 추상적인 입방체가 최근에는 비대칭 아니면 가분수의 유난스러운 자태로 우리의 도시환경을 불쑥 불쑥 군림하고 나서고 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외모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빠져 있듯이, 우리들의 도시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성형수술 열풍을 앓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외관의 집착에서 오는 폐쇄성은 외부환경과 교감하는 전통적 의미의 창의 기능은 물론 무엇이 밖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이 안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건축잡지에서 보는 그토록 많은 자극적이고 아름다운 도식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흔히 접하는 경험일 것이다.

얼마 전 웰빙건축이 아닌 산업이 바이러스처럼 번지더니, 지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편승하여 새로이 건축하는 건물마다 모두 친환경 표방 일색이다. 탄소제로 하우스, 제로에너지 주택, 생태건축, 에코하우스, 패시브하우스 등 수많은 환경과 에너지관련 신조어의 난무는 이름만 붙인다고 친환경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친환경으로 살리기가 아니라, 친환경자재나 장비를 소비하기에 흠뻑 빠져 있어 보이며, 이제 소박하게 보이기 위해 돈을 펑펑 쓰는 시대가 된 것이다. 막대한 건설 공사비를 쏟아 부은 공공청사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호화청사 논란, 과도한 에너지 사용 논란을 보면, 이게 많은 기획과 회의, 협의 그리고 심의, 감사(監査)의 노력으로 완성되었으리라 믿는 지역의 결과물은 왜 모두 비슷하게 끝이 나고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인의 일상을 소비로 해부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소비의 사회에서 현대인이 물건의 기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세와 권위, 즉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 또 현대사회는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복제의 시대라면서, 유복한 관리직 간부들이 시가지에서 10마일 떨어진 곳에 똑같은 과시적 욕구의 반사작용에서 자신들의 비용으로 별장을 지었다. 그렇지만 넓고 통풍이 잘되며 기후가 건강에 좋고 도처에 자연이 존재하는 이 마을에서는 별장만큼 불필요한 것이 없다! 라고 좋은 예를 들고 있다. 내면의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장되게 표출한 물신적 자긍심은 포장 위주로 흘러,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가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데 만 이용되고 말 것이다. 이는 건축비 투자를 증대시키고, 건축기술의 증진이 건축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설령 첨단-하이테크 건축이라 하더라도 첨단기술은 스타일이 아닌 시스템으로서의 건축이 내재되어야 구축 가능한 것이다.

이는 친환경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전부 기술이고 제대로 써야만 하는 돈이다. 모든 사람들이 전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상품과 새로운 장비를 갖추게 되면, 또다시 기계와 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방식으로도 충족될 수 있을 요구를 에너지 소비를 통해 충족시켜 보려는 부추김이 점점 강해진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체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내면적 환경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건축설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끝없는 풍요를 추구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국 자연친화적인 건물을 지어 사용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환경부하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친환경브랜드로 요란하게 포장된 건물이 오히려 엔트로피를 증가하고, 소모적이 되어 우리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예측을 할 수 없고 불편한 병폐가 되고 있다. 사실, 친환경기술이 취약한 우리에게 생활(건축)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삶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결국은 막대한 기업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환경철학자 오귀스탱 베르크(Augustin Berque)는 에쿠멘(Ecoumen-인간적 거처)은 생태학을 넘어서 윤리적 문제이다(결과적으로 미적, 정치적, 에쿠멘적 등등의 문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에쿠멘, 즉 대지와 인류의 관계는 이처럼 본래부터 윤리적이다 라고 하였다.

산업화이후 우리가 동경하고 꿈꾸며 추구하는 것은 압도적인 물자의 풍부함과 소비방법, 편리함이라는 풍요함속에서 그 여력은 너도나도 생태의 개념을 남용하고 있다. 진정한 환경은 자연환경,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도 각각의 상호작용 관계에 입각하여 기술적, 인문적으로 고찰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campaign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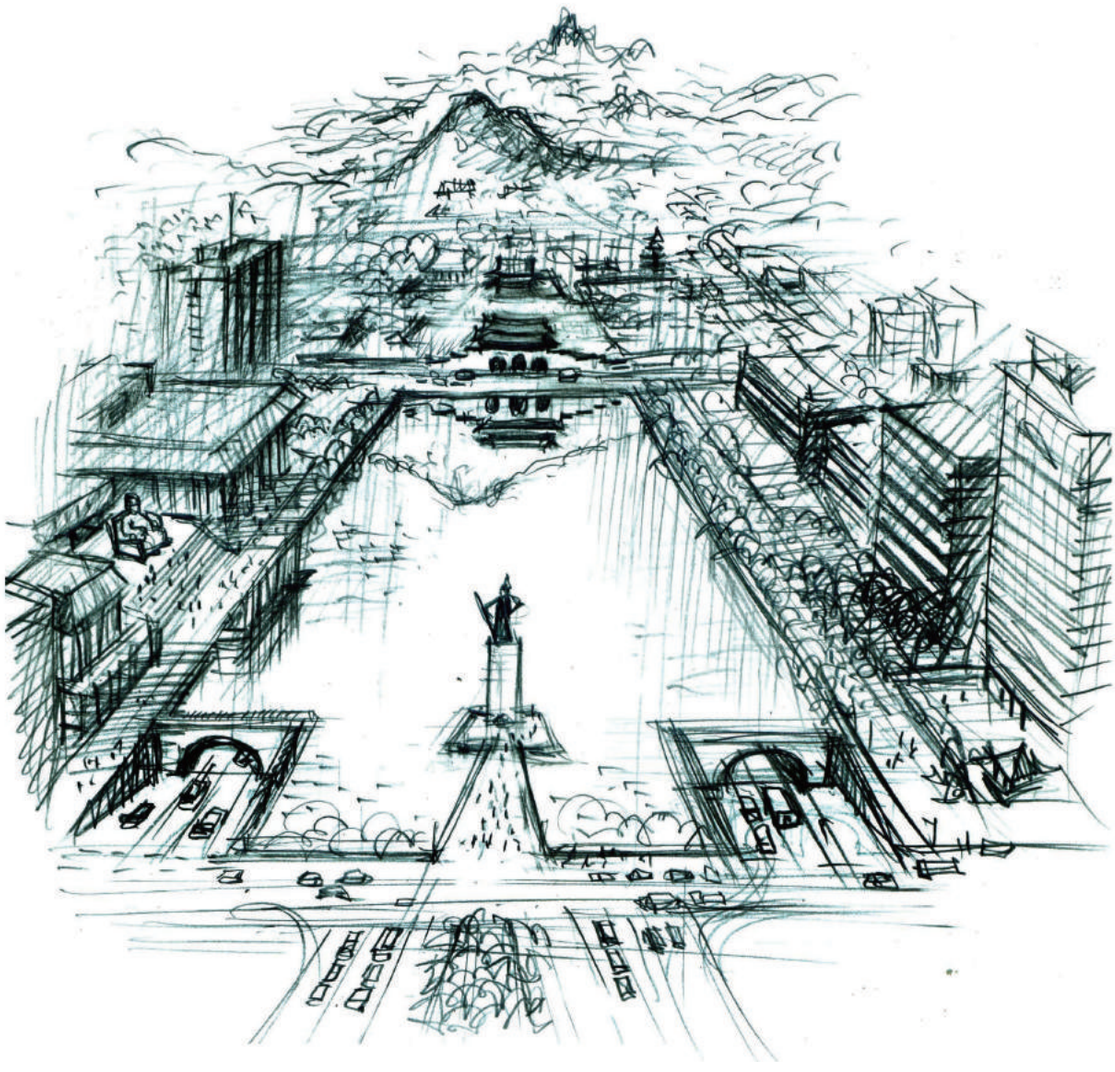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699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재개발 계획 당선안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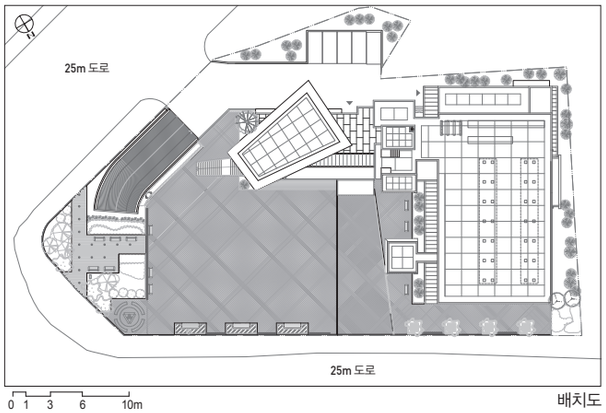
1. 광장의 촛불시위대 접거 불능
2. 세종로 상습 침수 해결
3. 수면반사로 광화문측 경관 업그레이드
4. 시민 여가활공간 제공 : 하계 물장, 동계 빙상장
5. 충무공, 세종대왕 동상 제자리 찾기

김진균 | Kim, Jin-kyoon

약력
- 공학박사, Hon FAIA
- 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원장
- 전 대학건축학회 회장

부산예술회관
Busan Art Center

Project team | Kim, Young-min / Park, Soo-jong / Jang, Jae-young / Oh, Ji-hyo
Client | the Mayor of Busan
Location | Busan Nam-gu Daeyeon-dong 603-7
Site Area | 3,252.00m^2 Building Area | 1,066.86m^2
Gross Floor Area | 4,752.32m^2
Building to Land Ratio | 32.81% Floor Area Ratio | 81.08%
Structure |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Engineer | Semyung structure Engineering
HVAC Engineer | Snagnok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Leejeong Engineering&Consultant
General Contractor | Kangjin Construction
Building Scope | B1-4F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mass concrete, Oxidized copper plate, Titanium zinc plate, Color plate Photographer | Yoon, Joon-whan



배치도

이아희 – 정희원 (주)정인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Lee, Ah-hee ,KIRA

야경

지역 예술인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와 공연장 및 전시장 시설 등을 확충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예술회관은 공연장 240석, 전시장 2개, 연습실 3개, 예술단체들을 위한 사무실 14개와 회의실 및 야외전시장, 젊음의 광장 등을 갖췄다.

부산예술회관은 부정형의 대지 형태, 삼면도로의 일 방향 교통흐름, 대학로로부터 이어지는 보행동선 등 도시구조의 맥락과 지역주민, 대학로 및 인근의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배치계획을 하였다.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된 전시장과 공연장 두 Mass는 Core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필로티를 이용한 야외 전시공간은 옥외 공간의 다양성을 가지고 젊음의 광장과 적극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필로티를 통한 비움, 대지 형태를 반영한 전시실의 배치 등 예술회관으로서의 조형미, 입체감, 개방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젊음의 광장과 대면한 독립계단의 비정형 형태와 재료(녹청산화동판)는 도심 속 수목을 상징화 하였다.

특히 젊음의 광장 조성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열린 문화공간에 바탕을 두고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수 공간, 등이 계획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부산예술회관은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작활동무대 및 사무 공간 확보, 예술인의 복지 향상과 예술전문 인력의 양성을 통해 지역 예술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전경

Busan Art Center, which is designed for the cultural enjoyment of young people and local residents through supporting local artists with dedicated space like exhibition center & performance hall, has 240-seat performance hall, 2 exhibition halls, 3 rehearsal rooms, 14 offices for arts organizations, conference rooms, outdoor exhibition space and the youth square.

Its block planning i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a role of community space which connects the local residents, neighboring cultural infrastructure and the context of urban structure such as irregular form of land, three-side road, stream of people.

Independently separated Exhibition Center & Performance Hall are organically connected with CORE and outdoor exhibition space with pilotis is designed with the diversity of outdoor space to communicate with the youth squ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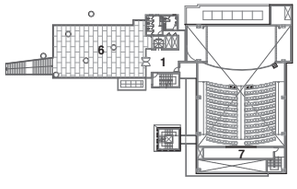
Void with pilotis and placement of exhibition halls considering shape of the land are expressing the beauty, sense of dimension and openness, and its atypical form and materials (Oxidized copper plate) of the independent stairs facing the youth square are symbolizing urban trees.

In particular, the youth square was originally planned to have outdoor stage, floor fountain and water areas, considering as an open cultural space for the local community, however plans could not be realized for various reasons and this remains disappointing. Nevertheless, Busan Art Center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 arts through supporting local artists with offering creative activities arena, securing an office space, improving the welfare of artists and cultivating professional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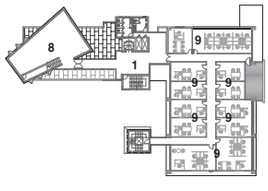
계단실 외부

우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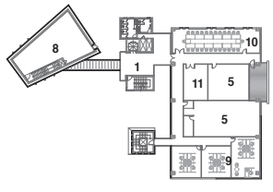
01_ 홀
02_ 주차장
03_ 공연장
04_ 카페테리아
05_ 연습실
06_ 야외전시장
07_ 조정실
08_ 전시실
09_ 사무실
10_ 회의실
11_ 수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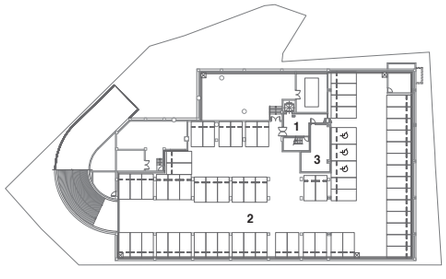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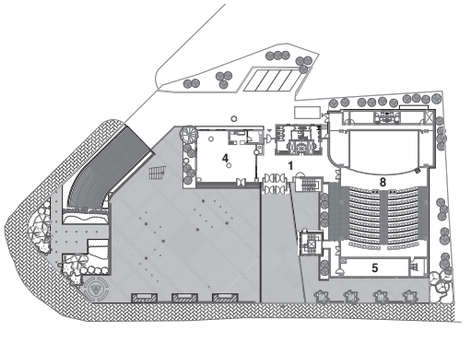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0 1 3 6 10m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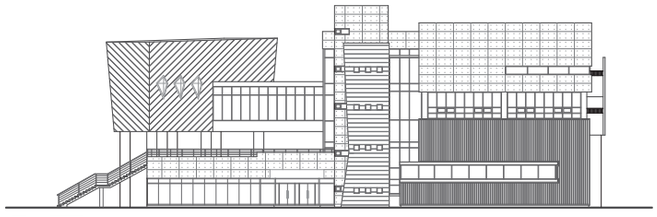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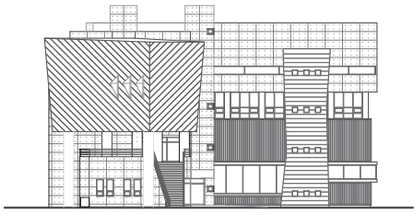
전면 출입공간

오픈갤러리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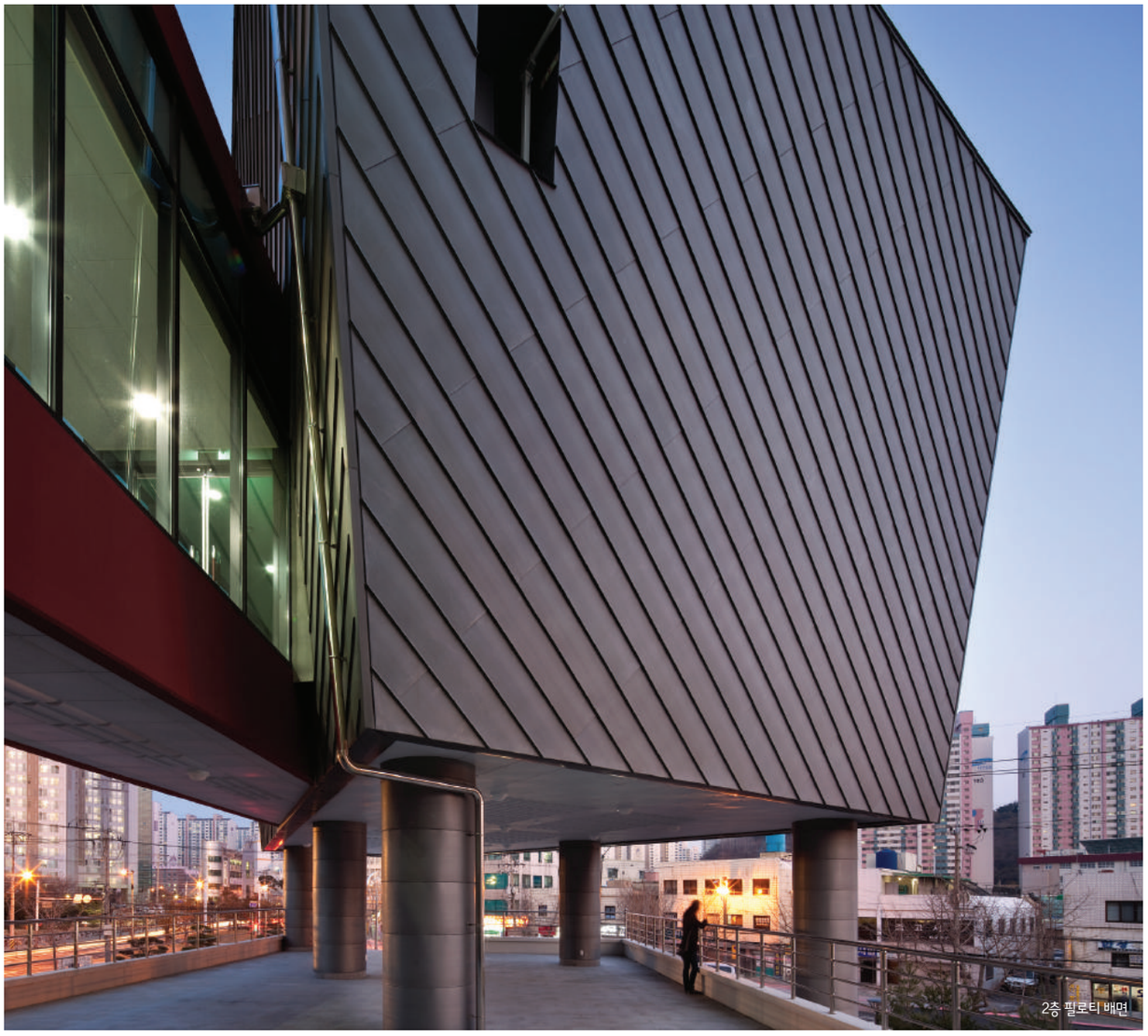
소극장 북도 외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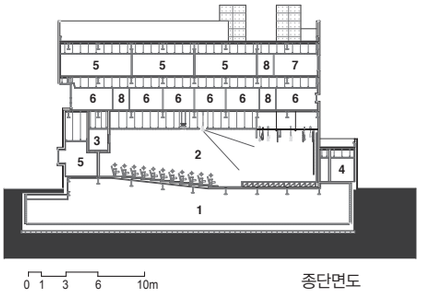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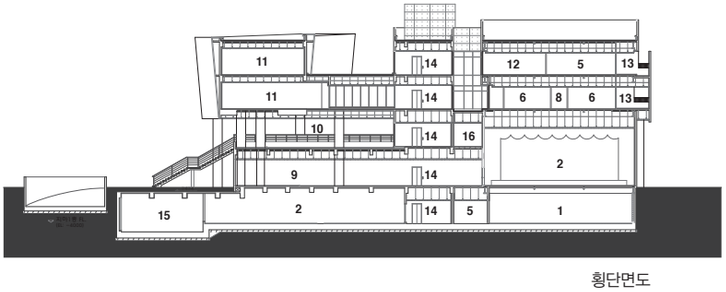


2층 필로티 배면

01_ 주차장
02_ 공연장
03_ 조정실
04_ 분장실
05_ 연습실
06_ 사무실
07_ 회의실
08_ 복도
09_ 카페테리아
10_ 야외전시장
11_ 전시실
12_ 수장고
13_ 발코니
14_ 홀
15_ 전기실
16_ 통신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Core 내부

전면 독립계단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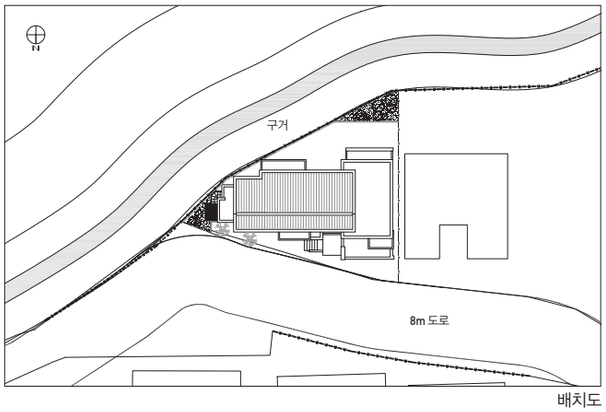
전시실 통로 내부

소극장 내부

부천 작동주택

Puchon Jakdong House

Project team | Kwon, Jae-young
Client | Kim, Tae-hee
Location | Gyeonggi-do Bucheon-si Ojeong-gu Jak-dong
Site Area | 320m^2
Gross Floor Area | 294.93m^2
Building to Land Ratio | 56.50%
Floor Area Ratio | 79.88%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alim Engineering
HVAC Engineer | Samwoo MEC
General Contractor | Ti Space
Building Scope | B1-2F
Finishing Materials | Platered Wall
Photographer | Chae, Soo-ok Cost | 700 M KRW



배치도

이관직 – 정회원 춘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Lee, Kwan-jick, KIRA

사실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거의 주택의 경우에만 건축주가 직접적인 사용자가 된다. 주거 시설인 아파트도, 대로변에 지어지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도, 도서관도 건축주 혹은 발주자와 구체적인 사용자는 다르다. 요사이는 상품화된 주택도 생겨서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무색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택의 경우는 다른 여느 건축물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건축주의 공간적인 요구나 형태적인 요구가 자신의 경험과 기호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자신이 살집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OR(Owner's Requirements)이므로 나의 주택 설계에 있어서 건축주의 의견을 구현하는 것이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물론 설계자인 나에게 직면하는 문제는 그 건축주의 요구와 대지의 조건을 풀어내면서 그 해결책이 이 세상에 한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를 창안하고 싶다는 것이다.

건축물에서의 각기 특수한 조건은 오히려 일반적인 조건이다. 세상의 모든 프로젝트는 모두 개별적이고 특수하므로 역설적이지만 특수한 조건을 가진 일반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조건을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 제안된 것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새로운 이미지일 수 없다. 새로운 개념이기도 한 건축의 새로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던데 새로운 이미지의 창안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변형 해석의 가능성과 상식을 반전하는 조합 혹은 구성의 가능성에 있다.

평평한 것을 꺾고, 수직인 것을 기울이거나 휘는 것 즉 규정된 것의 변형 해석이라면 기능을 단절시키고 낯선 것을 서로 붙여 놓은 것, 옆에 있는 것을 위 아래로 쌓는 것은 반전의 구성이다.
그렇지만 변형해석과 반전구성은 도시적인 맥락과 공간 미학에 대한 근대적인 발견의 틀 안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동쪽이 뽀족한 다리미 모양의 삼각형 대지는 사다리처럼 나누어진 전형적인 필지 분양의 택지 개발 지역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맨 마지막 대지이기 때문에 생긴 모양새이다. 삼각형의 대지에서 도시적 맥락의 직교의 질서를 다시 찾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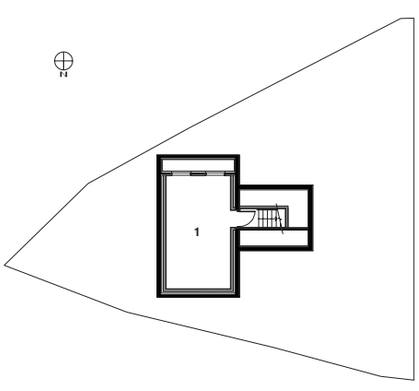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좁은 대지에서 법적인 2대의 주차장과 안방 레벨이 충돌하는 대지 사용의 우선 순위는 스킵 후로어를 통해서 반 층 위의 안방이 주차장위에 올라 앉는다. 2층 이상의 주택에서도 차양 역할을 하는 처마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낙수문제는 또 다른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갈매기 모양의 역구배 지붕을 통해서 태양광 이용을 위한 솔라 패널의 각도와 낙수문제 그리고 차양처마의 갈등을 해결한다.
북측 도로에 면한 좁은 필지의 주택에서 마당 진입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반층을 들어서 만든 1층 레벨은 그래도 공간의 전개를 조금은 변화 있게 만든 해결책이었다고 믿는다.

Usually, the client is not user of the architecture except detached house. The client who order apartments, offices, commercials, libraries and many other buildings is not exactly the user of that buildings. Some traders offer ready made detached house that is lack of taste, but in design of most single-unit house, the architect accepts needs and tastes of user-client. Client of detached house has clear and present wants about the space and form, and these needs come from his own experiences and ideas. The architect have to respect the owner`s requirements, and makes his will come true. And I, the architect, want to create an image that was never existed before, also accept client`s needs and the site contex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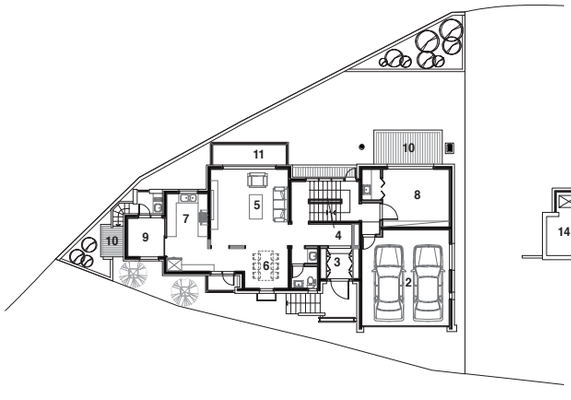
In architectural design, each special conditions are general conditions. All architecture have special and separate conditions, so paradoxically the 'special' becomes 'general'. Finding functional solutions to those conditions is not enough to make beautiful new images we want. The new image of this architecture that is also a new concept is made how? People says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n how is made the new image of architecture. I suggest a deformation of prescribed and combinations of reversed common sense. Twist flat element, bent verticals are deformation of prescribed, and cut off the function, put unfamiliar things together, place vertical that was horizontal, those are reversed common sense. But all these attempts stay inside the urban context and modern esthetics.

Large land was parcelled out into small lots by developer, and the site was at the end that`s the reason the site shape triangle. The site resembles an iron, the tip heads to east. I find right angle with urban contexts for the triangle site. The site has not enough space for two parking lot and building. Put a room over the parking lot and make it skip floor system. Eaves blocks light and cause water drops problem. V-shape roof provide good angle to solar panel, and solve water drop, even make enough eaves. The access from north make it unable to use south garden as approaching space, but I believe the lifted 1st floor make approaching space more attra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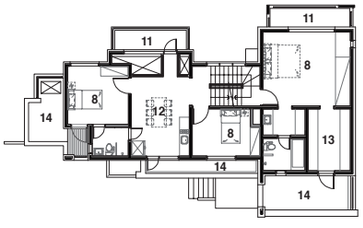
01_ 창고
02_ 차고
03_ 현관
04_ 홀
05_ 거실
06_ 식당
07_ 주방
08_ 방
09_ 다용도실
10_ 데크
11_ 발코니
12_ 가족실
13_ 드레스룸
14_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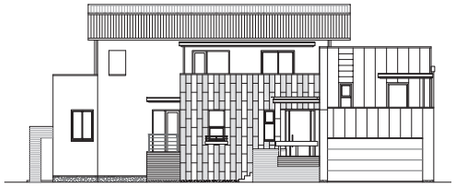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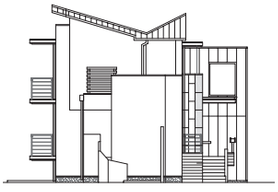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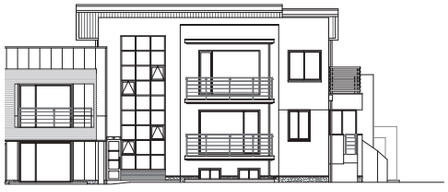


0 1 3 5m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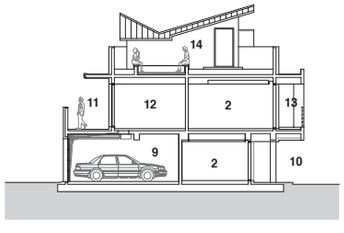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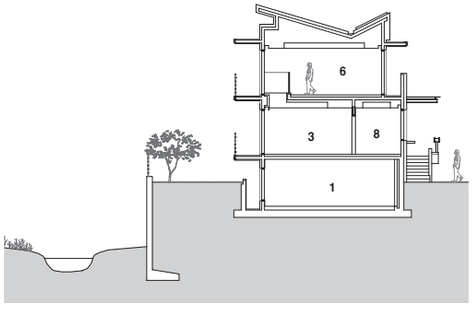
남측면도

01_ 창고
02_ 방
03_ 거실
04_ 주방
05_ 다용도실
06_ 가족시설
07_ 옥상테라스
08_ 식당
09_ 차고
10_ 데크
11_ 테라스
12_ 드레스룸
13_ 발코니
14_ 옥상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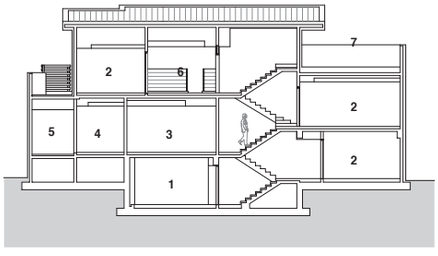


0 1 3 5m

종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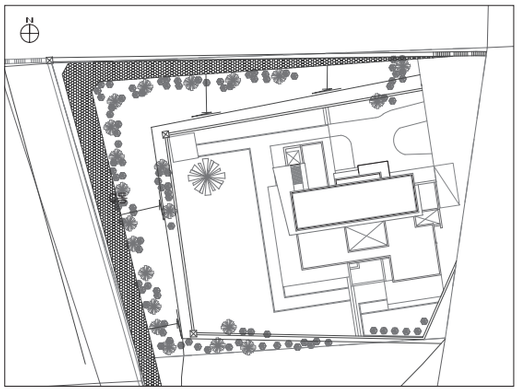
종단면도-1



횡단면도

세전원
Se Jeon Won

Project Team | Kang, Chang-shin / Yoon, Soon-young
Client | Se Ge Fairs
Location | Gyeonggi-do Anseong-si Bogae-myeon Dongpyeong-ri
Site Area | 1,516.00m^2 Building Area | 165.45m^2
Gross Floor Area | 193.14m^2 Building to Land Ratio | 10.91%
Floor Area Ratio | 12.74%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Jeong, Yong-soo HVAC Engineer | Um, Joo-sun
Electrical Engineer | Moon, Hyung-yeok
General Contractor | Jeong, Hong-rae / Park, Jeong-yong
Building Scope | 2F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Photographer | Lee, Jin-hee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임영석 – 정회원 앤지 건축사사무소(주)
Architects – **Lim, Young-seok, KIRA**

동측전경

남측전경

'세상을 향해 마음껏 펼치는 동산'이라는 뜻의 '세전원'은 멀리 고삼저수지가 보이고 바로 뒤에 보개산이 턱 버티고 서 있는,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대지 위에 세워진 전원주택형 연수원이다.

늘상 현장에 올 때도, 서울로 되돌아 갈 때도,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조급증에 시달렸다.
그래서 주변 자연 환경과 느긋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다소 여유로움이 묻어 있는 건축적 어휘가 필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결혼이 자식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라면 건축행위도 자연과 문명의 교통함이 꼭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서로를 나눠주며 공유하기 위해서는 관통과 관입이라는 유기적인 질서가 흐를 때, 비로소 거부감이 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외부공간에서 문명의 건축공간으로의 관입을 통해, 1층의 동적인 공간과 2층의 정적인 공간으로의 관통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내부공간의 분절점인 계단 앞에서, 생명의 근원인 물 공간과 작은 우주인 하늘가를 부여함으로써, 내 · 외부공간의 관입과 관통을 통한 평안함을 누리고자 하였다.

수직성과 수평선의 교차를 통해 드러나는 기하하적 면처리는 상승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선사코자 했으며, 보는 각도와 시점에 따라 다가오는 리듬감 있는 입면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러움으로 완결시켜 주고자 하였다.

건축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이어주는 전이적 매개체이다. 이러한 자연의 일부인 '세전원'에 머무는 이들이 단 하루라도 세상만사 모든 염려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푹 쉴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한다.

Sejeonwon which means a hill spreading out with one's whole heart towards the world is a training institute of a country house style. It is built on the ground of Besanimsu-Against Mountains and Facing Water, regarded as the best housing set- which commands Gosam reservoir in the distance surrounded by a firm Boge mountain in the back.

Having always been driven by unexplainable impetuosity on my way to the building site as well as back to Seoul, I feel afresh the need of architectural elements to connote a little more composure communicating freely with natural environments.

As a marriage is not a simple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but sacred and close relationships with two families including the couple, building a house on the ground must be accompanied by close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between civilization and nature. In other words, people can enjoy an abundance of life more in a housing when the organic order of penetration and intrusion flows between a house of civilization and the ground of nature environments so as to share them.

I made the penetration naturally from the first floor of a dynamic place to the second floor of a still place by the intrusion from an outside place of beautiful nature to a housing place of civilization.

Also I set a water spot as an origin of life and a sky one as small cosmos in front of the stairwell which is a division point of inner space filled with tense atmosphere so that people can enjoy tranquility through the penetration and intrusion of inner and outside spaces.

The geometrical shaping expressed in the way of crossing vertical lines with horizontal lines would lend a sense of both stability and escalation and the rhythmical change of shapes from viewing angles and points of time would complete natural elements.

Architecture is a medium of transference connecting human and nature into one. I wish Sejeonwon, a part of nature would be a small paradise where everyone staying here would rest and relax with one's whole heart forgetting all the worries and concerns in the outside world just for a day.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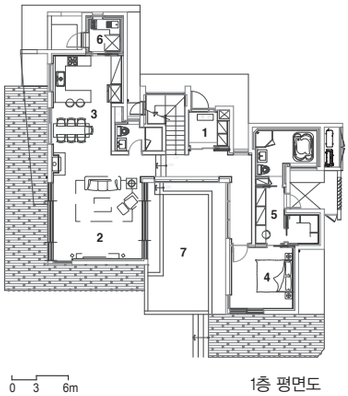
북측전경

연못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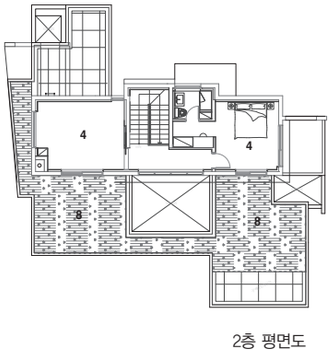
하늘공간

2층 테라스

01_ 현관
02_ 거실
03_ 주방/식당
04_ 침실
05_ 드레스룸/파우더룸
06_ 다용도실
07_ 중정
08_ 옥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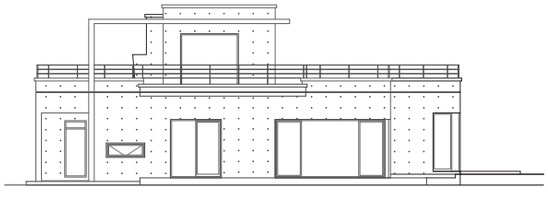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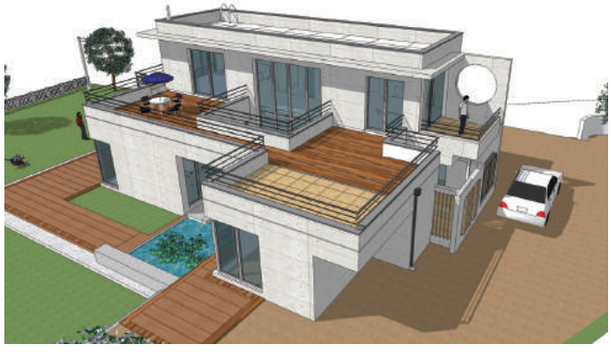
1층 복도



0 3 6m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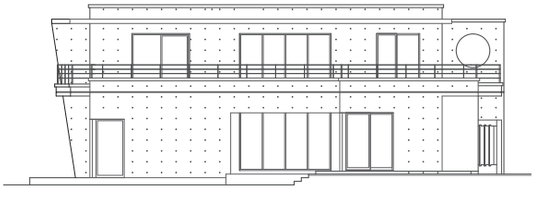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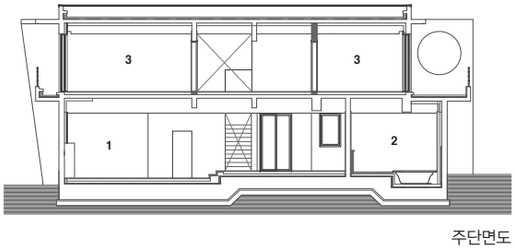
거실공간

2층 복도

01_ 주방/식당 02_ 욕실 03_ 침실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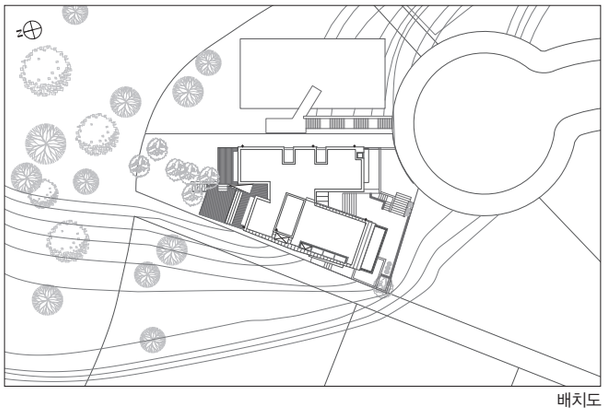


주단면도

헤이리 백농 스튜디오

Heyri Baiknong studio

Project team | Song, Ki-sun / Lee, Jong-min / Han, Jea-sung
Client | Han, Tai-sang
Location | Gyeonggi-do Paju-si Tanhyeon-myeon Beopheung-ri
Site Area | 461.20m^2 Building Area | 166.91m^2
Gross Floor Area | 354.37m^2
Building to Land Ratio | 36.19%
Floor Area Ratio | 63.57%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Kyung Jai structure Engineers
HVAC Engineer | ENG energy design lab
Electrical Engineer | Vision ENG
General Contractor | Dongin Construction
Building Scope | B1-2F
Finishing Materials | copperplate, Exposed Concrete, Wood
Photographer | Byun, Jong-suk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김종대 – 정회원 (주)올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Kim, Jong-dea ,KIRA**

원경

헤이리 백농스튜디오의 건축주는 현대 서예가이다. 그는 한글자모를 해체하고 이를 다시 조합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하는데, 각각의 자모들이 서로 겹쳐지거나 분리되는 과정에서 글자의 조형적인 힘과 이들이 차지하고 남은 여백사이의 긴장감이 전체적으로 매력을 만들고 있다. 그의 이런 작품에 대한 태도는 이 집을 설계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

건축물은 멀리 통일전망대까지 보이는 헤이리에서도 전망이 가장 좋은 경사지에 위치한다. 건축주는 이 전망에 반해 이 땅을 구입했다. 따라서 전망을 최대한 살리고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ㅅ'자 모양의 두 개의 축을 도입하였다. 두개의 축을 따라 필요한 공간을 배치하고 남는 여백의 공간은 전망 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정리하였다.

헤이리의 자연은 도시의 그것과 다르다. 요즘이면 아침저녁으로 기러기가 날고 뒷마당의 밤을 먹기 위해 오소리가 나타난다. 주변의 자연과 공존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낮추고 가능한 건축물이 외부공간과 접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공간의 경우 적절한 높이와 크기의 데크를 이용하여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진입전경

집을 짓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수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초기부터 대지내의 수목 위치를 파악하여 건축물과의 공존을 모색했으며 새로 식재되는 나무들도 기존의 수목과 조화되는 수종으로 선택하였다. 헤이리 백농스튜디오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이 차지하고 남은 여백사이의 조화와 변화에 집중한 작업이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건축공간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의 공존을 얻을 수 있었다.

Client of Heyri Baiknong studio is a modern calligrapher. He separate the alphabet of Hangul, and reassembled it in a way that his work. Each of the alphabet letters in the process of separating and overlapping. It occupied the remaining space as a whole are making attractive. Attitude to his work influenced the design of this house.

Architecture's view is the best location in Heyri. He was really in love with prospects that's why he bought this land. Therefore, the most expected features of raise to revive construction introduced 'ㅅ'-shaped. two axes. Because of view was considered when designing the space of the house, each room was able to be built using minimal necessary dimensions along the two ax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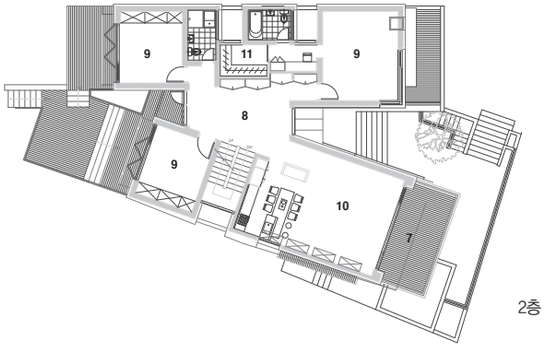
Heyri's nature differs from the city. Nowadays geese and badgers appears in the city. Natural surroundings to reduce the height of the building to blend the building was flush with the outer space. However the private space contains of proper size of deck, using that appropriate visual and physical safeguards.

The trees to build homes was minimal damage, from the initial design space to identify trees were in harmony with the buildings. And newly planted trees that are in harmony with the existing tree species were selected. Baiknong studio has focu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blanlc space. The results varied around the construction area and were able to coexist with natural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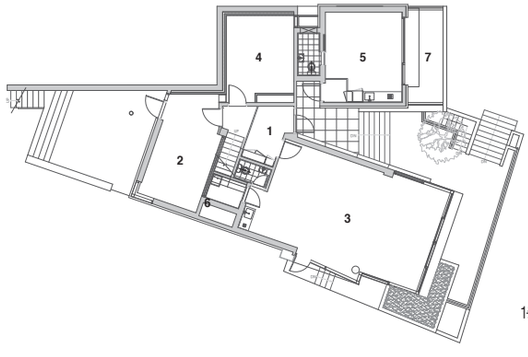
앞마당 연못

남측전경

서측전경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01_ 현관
02_ 회의실
03_ 작업실
04_ 창고
05_ 게스트룸
06_ 보일러실
07_ 발코니
08_ 홀
09_ 방
10_ 거실
11_ 드레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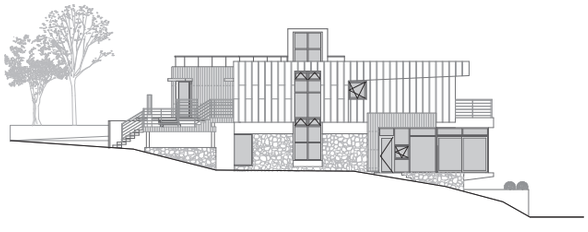
현관 진입부

게스트에서 바라본 마당

자연과 교감하는 뒷마당

개방감이 있는 작업실

천창이 있는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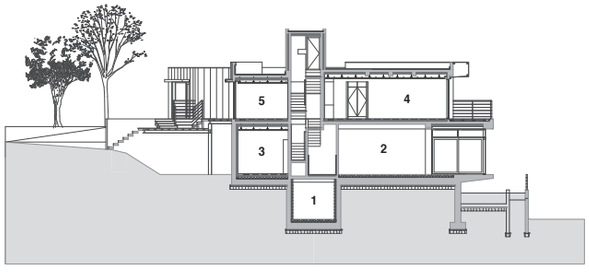
서측면도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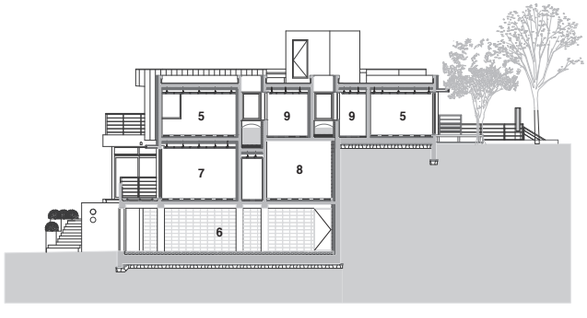
개방된 현관

계단 디테일

01_ PIT
02_ 작업실
03_ 회의실
04_ 거실 및 주방
05_ 방
06_ 주차장
07_ 게스트룸
08_ 창고
09_ 화장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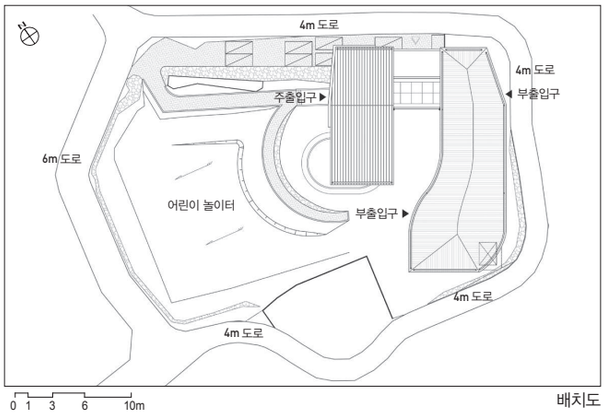
욕실

큰빛 자연 생태 어린이집

Eco-Friendly Preschool center

장연심 – 정회현 백두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Kang, Yeon-sim ,KIRA

Project team | Park, Kyu-sang / Park, Hyun-gu /
Kim, Dae-young / Yoon, Bo-hyun
Client | Choi, Sung-ho
Location | Gwangjusi Gwangsan-gu Bakho-dong 537
Site Area | 3,621.00m^2 Building Area | 900.91m^2
Gross Floor Area | 1,897.73m^2
Building to Land Ratio | 24.88%
Floor Area Ratio | 42.80%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Eungoojo Co. LTD
HVAC Engineer | Gwangdo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Han Vit Engineering Co. LTD
Building Scope | B1-2F
Finishing Materials | ZINC, Clay Brick, Eco-Friendly Synthetic, Wood
Photographer | Park, Kyu-sang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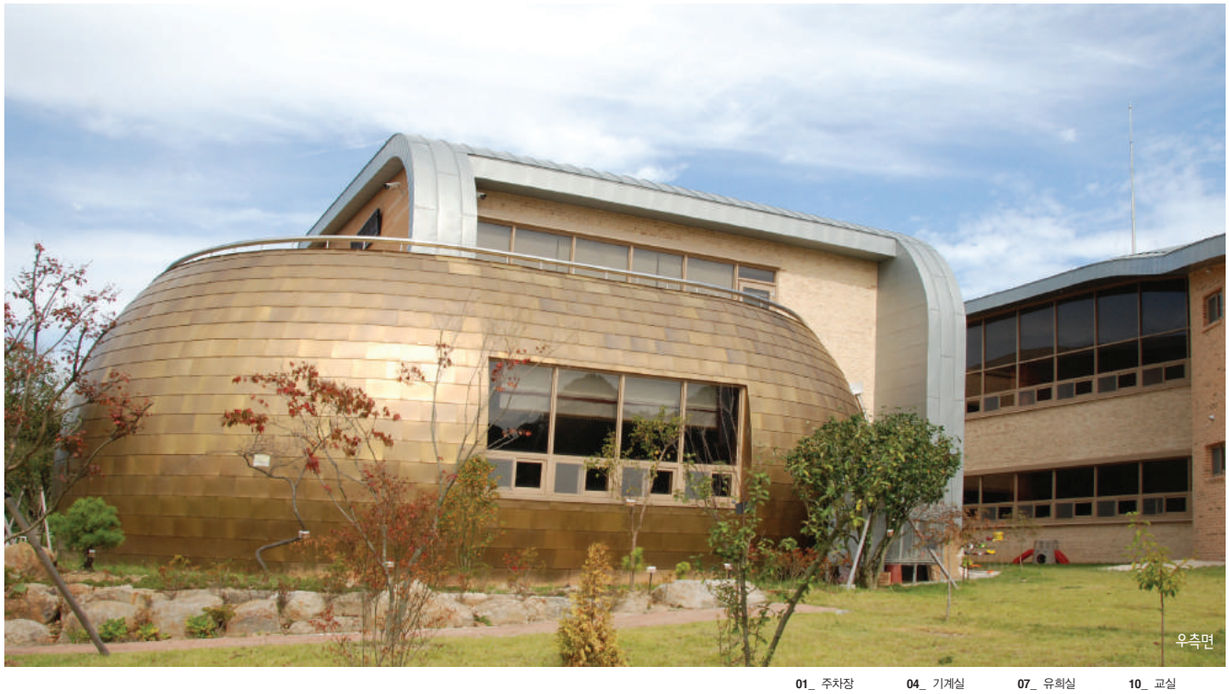
대지의 위치는 광주의 외곽으로 황룡강을 끼고 있는 송산유원지가 지척이며, 꽤 웅장한 산들을 등지고 남향과 서향으로 훤히 열려있는 조망을 확보하는 장소이다. 대지는 4m와 6m의 계획도로에 둘러 싸였으며(현황도로는 3m) 레벨차이가 심하다.
시 ·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박호동 산 131-1 양씨 삼강문)부지인 이유로 심의충족을 위한 지상 2층의 규모제한 및 경사지붕과 자연스러운 토목레벨계획이 요구되었다.

자연속의 어린이집은 어떠해야할까? 이것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질문이다. 씨앗하나를 심어 기다림과 호기심으로 밤을 설쳤던 어린 시절의 동심과 기억으로 운영자와 관리자 입장측 벽과 타협해야했다.
건축주에게 감히(?) 내놓을만한 생각들을 풀기 시작했다. 맘 놓고, 놀고 싶고, 내달리고, 가고 싶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안팎으로 순환되며 어울린다. 실내의 연속된 개방감은 자연스레 분절된 매스와 함께하는 옥외공간들과 연계된다. 이러한 자연과 아이들의 소통을 위한 설정 속에서 아이들은 둥글면서 사선지고 가둬지는 형상과 공간감을 체험한다.
구석구석이 아이들에겐 놀이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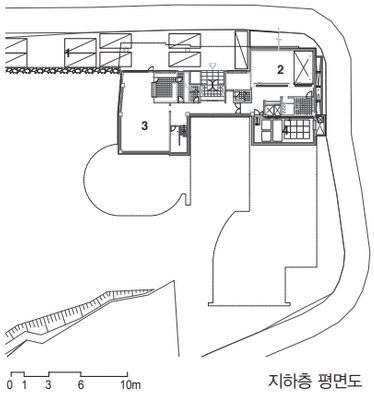
전경

Located on the outskirts of Gwang-ju City and close to Songsan Amusement Park parallel to Hwangryong River, the site commands a fine view that faces south and west with quite magnificent mountains at its back. It is surrounded by city planning roads with 4M and 6M (existing road is 3M),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in level. It was needed for civil engineering level plan that is harmonious with a height limit of two stories above ground and shed roof, since it(Park Ho Dong Mt. 131-1 Yang Family's Samgangmoon) is subject to condition changes for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city and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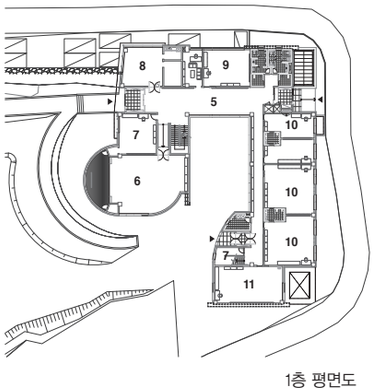
What should the nursery in nature be like? This is the question of long standing that should be kept now and forever. Returning to the innocence of childhood with happy memories that lost any sleep over wait and curiosity after planting a seed, Our company had to comprise with operators and managers. We started to talk about feasible ideas to the client. The spaces should mix well within and outside as places where kids want to play, run, go with an easy conscience. The sustained indoor openness has come to be connected to outdoor spaces naturally with segmented mass. Under the circumstances of communication between kids and nature, they are allowed to experience diagonal and confined shapes and space perception. Every corner of the building could be playground for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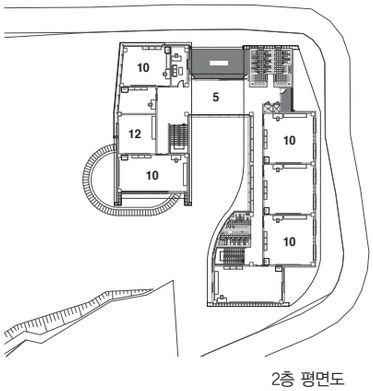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수영장
03_ 식당
04_ 기계실
05_ 홀
06_ 다목적강당
07_ 유희실
08_ 교무/상담실
09_ 공작실
10_ 교실
11_ 어학실
12_ 자료실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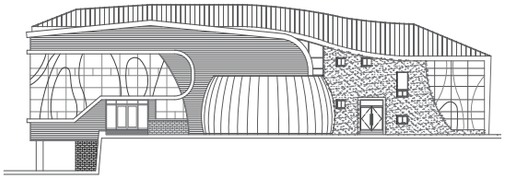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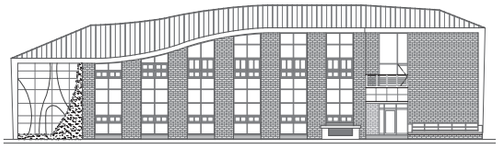
진입로에서의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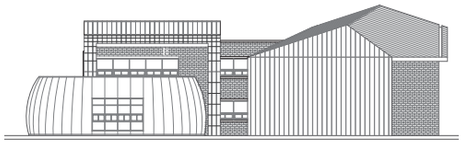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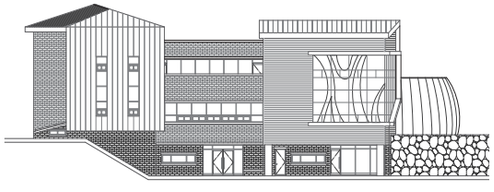
1층 홀

2층 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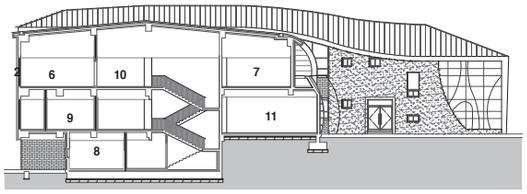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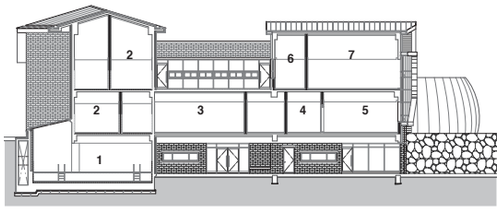
0 1 3 6 10m

01_ 수영장
02_ 화장실
03_ 공작실
04_ 자료실
05_ 교무상담실
06_ 사무실
07_ 교실
08_ 조리실
09_ 자료실
10_ 홀
11_ 다목적 강당



0 1 3 6 10m

종단면도



횡단면도

다례실

미술 생태실

블럭실

사파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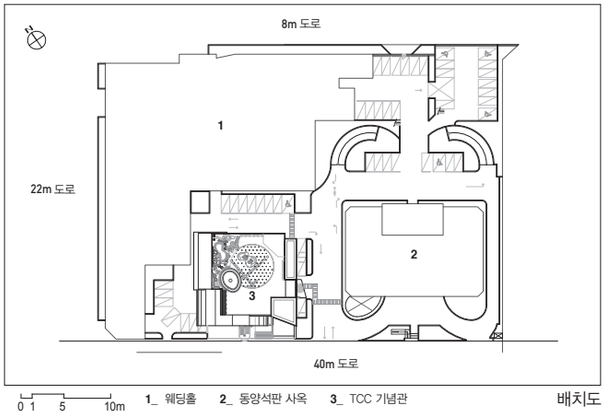
어학실

식당

TCC Center

TCC 50주년 기념관

Project team | PHIL ART ARCHITECTS & ENGINEERS
Client | Tcc Steel
Location | Seoul Yeongdeungpo-gu Dangsan-dong4-ga 93-1
Site Area | 8,689.80m^2 Building Area | 636.71m^2
Gross Floor Area | 4,570.65m^2
Building to Land Ratio | 7.33%
Floor Area Ratio | 34.71 %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G-One E&G Co.
HVAC Engineer | Seoin Mec Co.
General Contractor | Shindong construction
Building Scope | B2-6F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mass concrete , VM zinc, Drivit, IPE
Photographer |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김윤회 | 정회원 (주)필아트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Kim, Yoon-hoi, KIRA

대로에서 바라본 TCC Center 야경

이 기념관은 건축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실현할 복합문화 공간이다.

건축물의 조형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두 개의 mass로 입체적 원형과 수직적 사각형의 외부형태를 잡았다. 첫 번째 mass는 원의 형상이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형태는 캔을, 외장재인 zinc는 철강재 코일을 연상케 하며, TCC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원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화합과 소통 등 다양하게 내제된 의미를 담고 있다. 두 번째 mass는 수직적 사각형의 형상이다. 수직으로 된 사각형은 도약을 의미하며 강직한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이들 mass간의 연결 core를 배치시킴으로서 소통의 의미를 함께 부여했다.

기념관을 계획하기 전, 기존 건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배면을 외부에선 창을 자제하여 시선을 차단하고, 내부에선 발코니를 두어 자연스럽게 외부공간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옥상에 하늘정원을 두어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의 자연을 만끽할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서 여유로움을 갖도록 하였다.

This Memorial-hall, that is owner's long-cherished ambitions, is builded to prepare the communication connected the past, the present, the future and cultural complex-space that is realized social enterprice's contribution as a utilization of a cultural complex-community space.

For bringing bulidig's modeling into relief. Two mass, cubic circle and vertical square, is formed outer shape.
1st-mass is circle form, this is visually can, the exterior zinc in reminded of a steel-coil, meaning of Tcc's symbol. the circle means hamony and communication across the ages and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2nd-mass is vertical square's form, this means the growth and a strong will-power and communication to connect each core mass.

Before planning the memorial-hall, for establishing building's privacy is protected. Rear elevation is not window to avoid eyes.
Naturally inner balcony is matched mutual outer space. The roof-garden is given the visitors to composure, as a rest-place of nature.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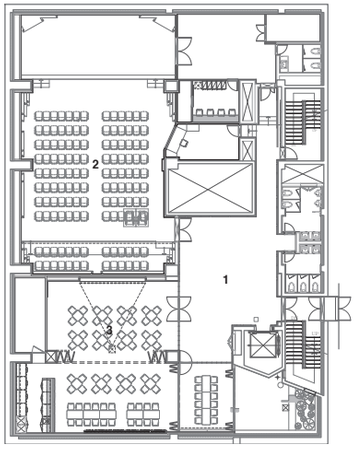
정면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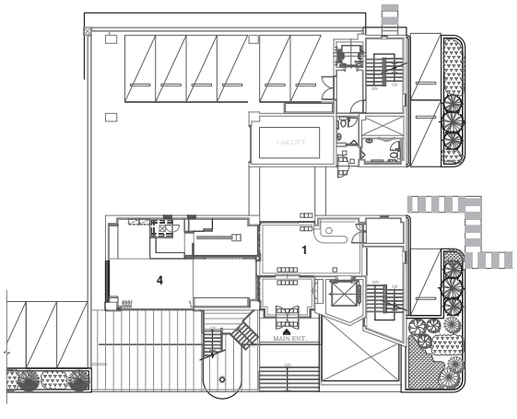
외부계단

하늘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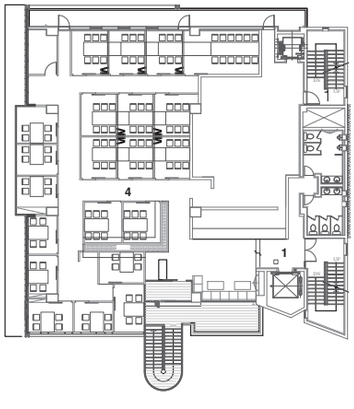
01_ 홀
02_ 공연장
03_ 전시/강의실
04_ 근린생활시설
05_ 발코니
06_ 하늘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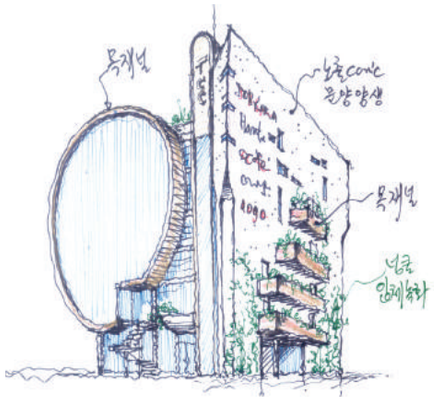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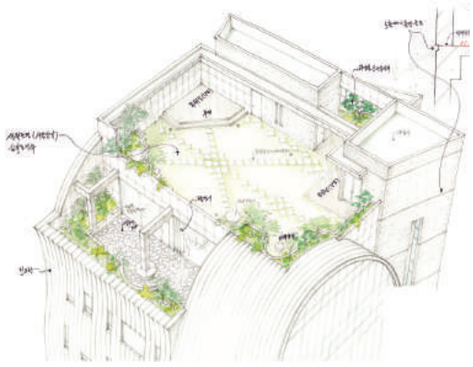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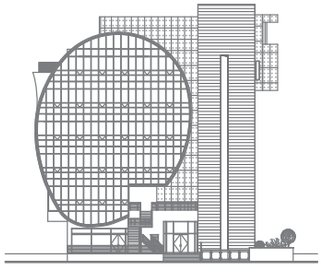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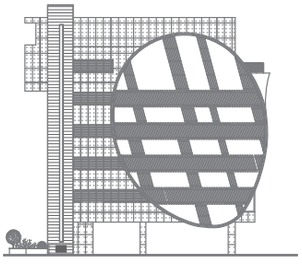


선큰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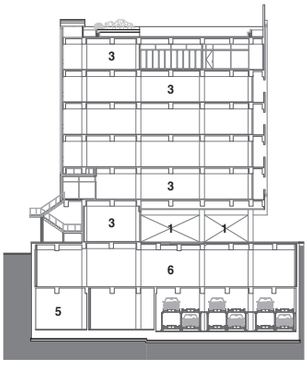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전기실
03_ 근린생활시설
04_ 홀
05_ 정화조
06_ 문화 및 집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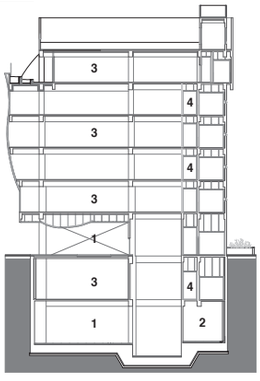
0 1 5m 정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할인판매”

「KOREAN ARCHITECTURE 2009–2010」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회원 및 건축 실무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도서를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월간「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현재의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한
「KOREAN ARCHITECTURE 2010」등의 도서 잔여분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KOREAN ARCHITECTURE 2010」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10」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 가격: 40,000원 ⇒ **30,000원**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가격: 30,000원 ⇒ **20,000원**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가격: 35,000원 ⇒ **20,000원**
올컬러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2~4)

여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진다

When women are happy, the society is happy.

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독신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여성의 삶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도시여성의 다양한 정체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양성평등 수준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61위/109개국('09), 성 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104위/134개국('10)으로 경제규모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서울시에서 시민의 도시시설 이용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인터넷 여론조사(2007년), 주차장, 화장실 안전성 및 편리성 실태조사(2008년)를 실시한 결과, 도시시설의 불편해소와 이용편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시정 모니터링단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시설물 전반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였고 2007년도에 도로, 교통, 건축, 환경 등으로 여성정책 영역을 확대하는 행정의 신개념을 도입한 여성정책인 '여성행복 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여성행복 프로젝트란 도시생활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편, 불안, 불쾌한 요인을 해소하고, 여성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행복한 도시를 직접 만들어가는 여성친화적인 도시정책이다. 실생활 속에서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고 정책의 기획, 설계단계부터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고 시민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평등을 넘어 행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추진 전략

본격적인 사업확산은 2008년도로 전 자치구를 포함하는 서울시의 종합 추진체계인 〈여성행복 프로젝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 정책관을 Control tower로 각 실, 국이 신규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자치구에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현장조사 및 정책제언시스템인 '여행 프로슈머',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인 '여행동반자', 일반 여성 정책참여 시스템인 '여행 포럼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운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체감도 높은 9대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10년까지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면 2011년도부터는 양성평등, 가족친화분야 시책을 강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6대분야, 46개 사업이 제시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도시공간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늦은 밤 여성들을 위한 안심택시를 운영하여 '안심귀가서비스', 실시간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에서의 'Safe Zone', 지하철 보안관 운영 및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여성보호활동을 강화하였다. 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성 인지 예산제

신경선 | Shin, Kyeong-sun, KIRA
건축사사무소 에스앤디아이 대표

단국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 수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고위 건축개발 전문가과정(교학처)에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감정인이며, 2007년도에 에스앤디아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의 평가위원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여행포럼 강사로 활동 중이다.

도 도입, 5급 이상 양성평등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확충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수혜대상을 30~40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품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육아걱정 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여성행복 아이돌봄센터'를 소극장이 밀집한 대학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여성들에게 넉넉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시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는 도시공간에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다. 기존 여성정책을 한차원 높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2010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 6월에는 '가출위기 십대여성 자립프로그램'으로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 세계대도시 협의회인 메트로폴리스 총회에서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하여 세계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여성행복 프로젝트는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으로 정착하였으며 시민의견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정에 여성행복관점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끊임없는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

다양한 여성행복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도시편의시설에 여성행복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도시조성개념을 반영하여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여행인증 매뉴얼 개발, 시설물 평가, 인증심의까지 여성건축사, 관련 전문가, 시민 프로슈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왔다.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은 도시생활에서 여성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실제로 도시환경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민이 체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매뉴얼 개발, 인증절차

2009년 3월 화장실, 주차장, 길에 대한 1차 인증매뉴얼 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 6월에 공원, 아파트, 기업의 2차 매뉴얼이 완성됐다. 매뉴얼 개발에는 서울시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개발 되었고 여성의 편의, 배려, 안전, 쾌적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항목과 Universal 기준(무장애 시설)에 맞는 선택/권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항목을 100%로 만족하면서 선택/권고항목에서 70점 이상이 확보되어야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 절차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보수한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및 민간부분 우수시설을 자치구,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추천받아서 각 시설분야별 인증매뉴얼 평가지를 기준으로 현장실사하고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2단계를 거치게 된다.

대상시설 추천	▶	현장 실사단 평가	▶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	인증 및 관리
자치구 등 시설관리기관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인증심사위원회		서울시

여행인증 평가단

2009년도에 평가단이 조직되어 여행프로슈머(여성건축사), 자치구 여행 포럼단, 시민프로슈머가 2인1조로 구성되었으며 총 134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였다. 평가단은 실사에 앞서 사전교육을 받았고 여성행복시설 인증매뉴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실사에 착수했다. 각 조별로 지정된 지역으로 흩어져 대상시설물들이 인증기준에 맞게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실사를 진행해왔다.

인증사업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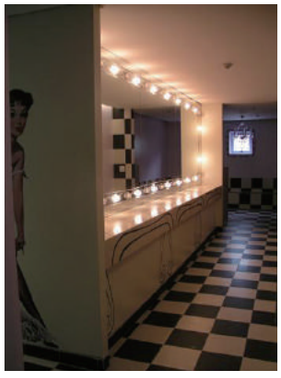
여성행복시설 인증분야는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 아파트, 기업의 6개 분야로 현재까지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의 인증평가사업이 6차에 거쳐 시행되었으며 아파트, 기업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행화장실

평가항목

여행화장실의 필수항목은 여성 변기 수 확보(남녀비율 1:1 이상), 유아편의시설(어린이용 대소변기, 기저귀교환대), 여성편의시설(손건조기, 세면기 주변의 걸이 등), 주야간 적정조도(150~200Lux), 단위부스 출입문 적정틈새(8~12cm)이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남녀의 출입동선 분리, 다목적 화장실 설치, 단위부스 기준, 방범 및 경보시스템(비상벨, CCTV), 안전한 바닥재, 쾌적한 환경조성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례1 – 여행인증기준의 차별성



금천구에 위치한 마리오아울렛 화장실은 마치 미술관에 온 듯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아름답지만 인증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례로 여성과 노약자,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유아편의시설,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아서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여행인증기준이 아름다운 화장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2 – 청결유지와 설비관리

중구 중부시장 공용화장실은 복잡하고 정신 없는 재래시장 한가운데 위치하여 오아시스와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출입구에 들어설 때까지의 불쾌감은 화장실 내부의 빠짐없는 설비와 화사한 인테리어, 쾌적감으로 반전되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중부시장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청결유지와 설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싶다.

사례3 – 친환경 관련항목

금천구 공항동 공중화장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로 들 수 있다. 동작감지센서에 의한 LED등, 자동온도조절장치, 절수변기, 천창을 이용한 자연채광을 들 수 있으며 여행 화장실의 조건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었던 사례였다. 자치구의 예산부족 때문인지 친환경 관련항목을 설치하는 예가 드물어서 2011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사례4– 유아편의시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유아전용 화장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여 아동이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사례가 많았는데 디자인도 유려하고 아동이 옷을 갈아입기 편한 발판 등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다. 서초구청 내 1층 화장실은 유아편의시설과 수유실이 별도로 나눠져 있고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최근에 신설되고 있는 공공화장실은 여성화장실뿐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유아편의시설을 동일 규모,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육아부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반, 걸이

필수항목에 선반, 걸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데, 현재는 선반의 종류, 크기, 설치높이, 폭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설치는 되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선반은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부규정을 추가하여 용도에 맞게 설치해야 실효성이 있다. 사실 여성들이 지갑만 달랑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올려놓을 수 없는 선반은 장식에 불과하다. 사진은 동경 UIA대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걸이에 대한 희망이 적절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사례이다.

단위부스 틈새

단위부스 틈새기준이 6cm이던 것을 2011년부터 8~12cm로 변경하였다. 단위부스 기성품사이즈가 인증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워서인데, 이로 인해 인증평가단 사이에서 부스 적정틈새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여성화장실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사사례가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에서는 "단위부스 틈새가 넓으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면서 기존의 6cm기준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좀 더 개선된 환경을 위해서는 여행 매뉴얼에 맞춰 기성품 크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도구함

단위부스 내에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별도 공간에 설치해서 화장실 내에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청소도구함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사진과 같은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되는 데 청소 용역원을 힐책하

기보다는 설계 시에 미리 반영해서 다목적 화장실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기, 자연채광

대림도기의 CF에서는 화장실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인지시켜준다. 사람들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는 곳, 아이가 생긴 것을 처음 알게 되는 곳,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곳, 울고 싶은 때 달려가는 곳, 이런 이유들로 화장실은 가장 아름다운 방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는 사람에게 가장 편안하고 쾌적한 방법이다. 기존의 화장실들이 어둡고 사방이 막혀있었다면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여행 화장실들은 밝고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다목적화장실

가족을 동반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사용빈도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기존 장애인 화장실에서 다목적 화장실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공화장실의 경우, 관리인이 퇴근하고 난 이후의 관리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면적이 커지다 보니 야간이나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 대에 청소년들이 단체로 들어가 점유하고 비행을 저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행주차장

평가항목

여행주차장의 가장 중요한 필수항목은 여성우선 주차면을 20%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분홍색 주차면은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의미한다. 필수항목은 여성 주차면과 출입구와의 거리, 주야간 적정조도(130Lux), 주차장 시야확보, 사각지대 제거 등 안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보행자통로 확보, 주차장 내 여행화장실 설치, 출입램프의 적정성, CCTV, 비상벨, 엘리베이터 투명창 설치,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한 차량유도표지, 자연채광, 환기, 쓰레기 미적치, 경계 허물기, 그늘 식재 등이다.

사례1 – 공영주차장의 개발입지

최근 자치구에서 신설되는 주차장은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동작구 도화 공용주차장은 경사지를 이용하여 상부는 소공원으로, 하부는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했는데 공간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사례이다. 동작구의 갯마을 공영주차장은 차로의 폭이 점차 좁아지는데 같은 조건이라면 운전에 미숙한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위치에 여성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2– 시설물 개선 시에 사전조사 필요

중구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의 바닥마감재가 펀칭메탈로 보행자통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제계단의 하부가 노출되어 하이힐을 신거나 스커트를 입은 경우에 몹시 당황스럽다. 조각조각 이어진 램프는 진입 시에 차량을 진동시키고 불안감이 느껴졌는데 이런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었다. 오래 전에 지어져 허름했고 주차장 내의 화장실 위치도 너무 무서워서 방문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다. 최근 자치구에서 여행시설인증을 위해 보완으로도 가능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시설물을 개선할 때, 사전조사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시설과 보완시설을 구분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사례3 – 보행자통로 폭의 연속성

협소한 대지조건에서는 보행자 통로 폭(1.2m)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행을 방해하며 출입구를 당당히 막아선 주차면의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행자통로 확보는 인증기준을 앞서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이며 통로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다.

엘리베이트 투명창의 필요성

가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게 되면 미지의 층에 내리는 무서운 상상을 해보곤 한다. 낯선 장소, 늦은 시간대의 엘리베이터에서는 시나리오가 좀더 구체화된다. 요사이 늦은 시간대에 노약자, 여성, 만취한 남성들을 노리는 퍽치기가 기승이라는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불안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다. 폐쇄적인 엘리베이터에 투명창을 설치하는 것은 내 아내, 내 아이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공영주차장의 야간조도

주택가에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 옥상에 가로등을 설치하고도 점등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 에너지 절약, 주택가의 숙면에는 필요하겠지만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빛의 방향을 하향 조종하는 조명기구, 바닥 유도등, LED를 이용해서 조도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여 얼마든지 배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상벨의 실효성

비상벨의 형태가 참 다양해졌다. 설치위치와 형태를 일치시키면 좀더 아름답지 않을까? 2011년에 강화된 기준 중 하나가 비상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규모가 작은 공원에서는 효용성이 있었지만, 대공원(10만m2),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는 공용화장실의 경우는 그저 요식적인 부착에 불과했다. 현장관리자들은 비상벨이 시끄럽게 울리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답변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움구경, 불구경엔 관심이 많아도 누군가 비상벨을 누루며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관리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안산 도시자연공원을 평가 중에 서대문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안내표시된 CCTV하단의 비상벨을 눌러보았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누가, 언제, 어느 구역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법이 모색되지 않는 다면 비상벨, CCTV의 설치는 값비싼 장식품에 불과하다.

주차장 내 여행 화장실

여성의 경우, 아이를 동반하거나 짐을 양손에 짊어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주차장까지 겨우 내려왔는데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칭얼대면 "다시 짐을 들고 올라가야 하나" 하는 난감함을 누구나 한번쯤은 느껴 보았을 것이다. 백화점과 같은 시설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는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사용감이 쾌적하도록 관리되고 있는 곳을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접이식 도어, 걸쇠 잠금장치로 사용이 불편하고 대부분 관리인의 편의상 잠가놓고 창고로 이용하고 있어서 관리주체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쓰레기 배출공간

충무 아트홀 지하주차장에 쓰레기를 노골적으로 늘어놓고 부끄럼 없이 악취를 풍기는 사례이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인근 거주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 배출공간을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길

평가항목

여행길은 과거의 통과보도에서 머물고 싶은 보도로서 그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바닥이 매끄럽고 평탄하게 정비되었고 곳곳에 수목, 벤치 등의 쉼터가 조성되고 있다. 필수항목은 여성친화보행로 확보(유효 폭 1.5m), 보행로 주변의 쉼터, 벤치, 시각차폐가 없는 개방적인 공간감, 보행로와 교차로의 적정조도(30Lux 이상),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적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보행로와 주요시설과의 연결, 도로의 단차, 대중교통과의 연계에서 무장애 진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탄성볼라드, 점검구의 통합설치 등으로 보행안전 고려, 친환경적인 가로조성과 거리의 지역성, 문화적 정서를 보유한 보행가로특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사례1 – 보행가로특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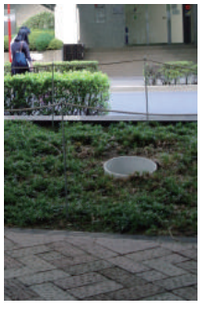
한강 나들길은 조롱박터널을 테마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한강변으로 운동하러 가는 인근 주민들에게 걷고 싶은 길을 제공했다.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는 대학가의 특성이 잘 살아있는 대표적인 테마거리로 정기적인 축제, 공연 개최로 외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거리이다. 그러나 광장, 거리의 볼라드가 통일감이 없고 특고압 전력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쉬웠다.

사례2 – 여행친화보행로

동작구 현충로는 시끄러운 대로변에 숨어있는 샘물 같은 꽃길로 자가용을 마다하고 절로 걷고 싶어진다. 가로는 무표정한 램프를 걷어내고 있으며 볼라드는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자전거는 진입시키면서 동시에 디자인 의도를 반영했다. 볼라드와 충돌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을 배려하는 것은 여성만 행복한 것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뢰처럼 불쑥 솟아오른 맨홀을 제거하여 미관, 편의를 고려했고 통합 맨홀을 설치하고 있다. 보행로의 바닥마감재를 통일하여 땅 따먹기, 내 땅 지키기가 아닌 통합디자인으로 시야를 넓히고 전선지중화를 통해서 깔끔한 하늘을 볼 수 있게 개선하고 있다.

조경을 이용한 배수설계

여행길 보도는 조경을 이용한 배수설계로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행길의 구배를 가로수 식재 방향으로 하여 우수가 화단으로 흐르도록 계획하고 화단턱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차도로 흐르지 않도록 계획하며 가로수의 바닥마감을 개방형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수성 바닥재는 블록 자체의 물 흡수량이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더 근본적인 배수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화단의 경계이면서 동시에 휴식공간으로서 벤치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행공원

평가항목

여행공원은 여성이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필수항목인 여성친화산책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불러온다. 일찍 퇴근해서 부부가 집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수항목은 꽃 길, 가로등, 음악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는 여성친화거리, 간격 200m이내의 휴게의자, 안전한 시야확보(조경물, 휴게공간, 사각제대 제거), 범죄예방설계(CPTED)를 적용한 CCTV, 비상벨의 작동여부, 관리직원 상시 순찰 체계, 외부조도 유지 등으로 어린자녀, 딸을 둔 부모들의 걱정을 줄여주고 있다. 선택권고항목으로는 보행의 연속성 확보,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여성편의시설(어린이시설 연계성, 미아보호시설, 유모차 대여, 정보이용시설), 학습장, 놀이공간, 생태 체험장, 운동시설, 음수대, 공중전화 등의 주민 편의시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고방지 및 방재안전을 위한 관리시스템, 환경의 쾌적성을 위한 창의적 디자인, 쓰레기관리 동선, 친환경 자재도입 등을 평가하고 있다.

사례1– 고단한 도심 속의 휴식처

도화소공원은 고단한 도심 속에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했다. 전문적인 조경계획이 돋보였는데 좀 더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창전어린이 공원은 놀이시설 재료를 친환경 도료, 목재로 통일하였고 요소요소의 디자인을 섬세하게 배려했지만 인증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되어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행시설 인증기준이 아름다운이 아닌 편의, 배려, 안전, 쾌적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례2– 조성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공원

홍대 어린이공원은 조성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이다. 공원에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각각의 조성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공원은 홍익대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축제, 예술시장, 프리마켓 개설 등 마치 대학생을 위한 테마공원처럼 이용되고 있다. 주변 주택가에 소음을 발생시키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당연하다는 듯이 점유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사례3– 사각지대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외주어린이공원은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한적한 위치에 있으며 인근 주택가의 쓰레기가 노출상태로 적치되어 있었다. 인접한 다세대주택은 시야를 가리는 필로티 주차형식이었고 공원은 인접한 공사현장에 가려 어두울 뿐만 아니라 50m 인근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청소년 우범지대로서 두루 적절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관할 자치구에 시급한 환경 개선을 건의한다.

친절하지 않은 공원 종합안내도

대부분의 공원 종합안내도가 현재위치는 표기했지만 비상벨, 인터폰, CCTV의 위치를 표기한 안내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실제로는 친절하지 않은 공원 종합안내도인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어 위급할 때 비상벨을 찾으려면 숨바꼭질 놀이부터 한바탕 해야 한다. 비상시에 도움을 자동으로 요청할 수 있는 위치표시용 어플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듯 하다. 어지러운 안내표지판도 통합해야 하고 자치구 예산 따라 제각각인 쓰레기통의 표준 디자인도 필요하다.

폐타이어 활용 바닥마감재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폐타이어 재활용 바닥재는 VOC, 포름알데히드를 배출하기 때문에 최근 많은 자치구들이 잔디블럭, 투수성 블록으로 공원 보행로 바닥재를 교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투수성 블럭은 시간이 흐르면 공극이 막히고 강도가 떨어진다. 단가도 아직은 비싸서 잔디블록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역시 유지관리와 보행의 어려움을 동반한다. 서대문구 궁동 근린공원에서는 짚을 이용한 친환경바닥재를 사용했고 동경 오모데산도 거리는 투수성을 가진 친환경 목재를 바닥재로 이용했으나 투수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친환경 바닥재는 실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만큼 좀더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어 설계자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시설분야별 인증규모와 미인증 요인

시설분야별 인증 규모

2009년에 총 258/824개 시설이, 2010년에는 총 201/575개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여행시설로 인증 받았다. 2011년 상반기에는 총 197/388개 시설이 서울시로부터 여행시설로 인증 받았다. 전체 여행시설로 인증 받은 시설 수는 656개소로 전체 평가대상물의 36.7%가 인증되었다. 시설분야별 인증률을 살펴보면 화장실 48%, 주차장 32.1%, 길 25.2%, 공원 17.7%로 화장실 분야가 가장 많다. 특히 2011년도에 높은 치수를 보이는 것은 올해 민간시설물이 상당수 인증을 신청했고 1개 건물에 여러 층의 화장실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형평성을 위해 대상시설물의 신청기준을 다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주로 관에서 주도하던 사업이 민간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표1 연도별 인증규모를 보면 여행화장실, 여행주차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건물 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가 많고 필수항목이 소규모 보수로도 인증기준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고 시설투자비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행길과 여행공원은 범위 자체가 넓고 시설투자비, 공사기간이 필요한데다 신규시설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기존 시설의 경우, 이

미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인증기준에 맞춰 개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증시설의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공원의 경우, 시설마다 지역적 특성, 대지의 특성이 다르고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항목들이 다소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연도별 인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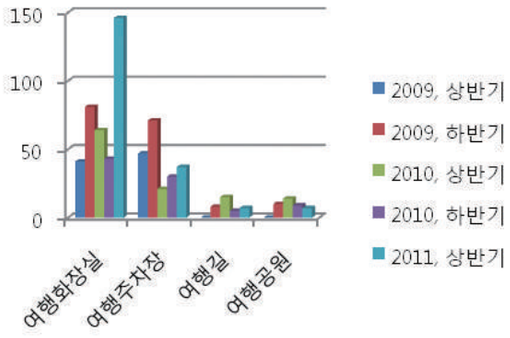


표2. 시설분야별 인증규모

시설 분야	인증 규모	인증률
여행 화장실	375 / 781	48.0%
여행 주차장	206 / 641	32.1%
여행 길	35 / 139	25.2%
여행 공원	40 / 226	17.7%

2011년 여행시설분야별 선택, 권고항목 점수분포현황

2011년도에 현장 평가한 시설분야별 점수분포도를 보면 화장실 중에서 8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곳이 136/227개소로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차장은 70점 미만이 67/109개소로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하고 65점 미만이 48개소나 되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길은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거리특성화의 과제를 안고 있고 공원 역시 안전분야에서 앞으로도 개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표3. 시설분야별 점수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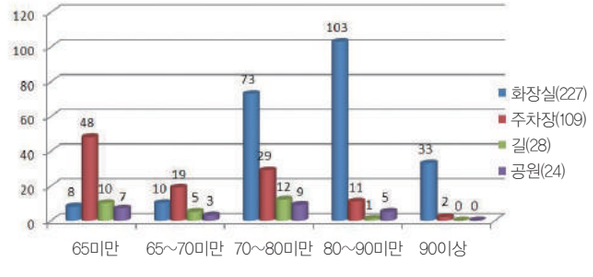


표4. 시설분야별 점수분포

	계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이상
계	388	73	37	123	120	35
화장실	227	8	10	73	103	33
주차장	109	48	19	29	11	2
길	28	10	5	12	1	0
공원	24	7	3	9	5	0

시설분야별 미인증 요인

필수 항목

가장 많은 인증불가 요인을 시설별 필수항목으로 살펴보면 표5와 같다. 인증불가항목은 CCTV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 시설경비에 따른 부담으로 자치구별로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위치는 주로 대중교통과 연계된 장소로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표5. 시설별 필수항목 인증불가 요인

시설 분야	미인증 요인	개선 건의
여행 화장실	-여성 변기수 확보 (남녀비율 1:1이상) -부스 출입문 적정틈새 (바닥에서 8~12cm) -세면기 주변의 선반, 또는 걸이	-기존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수를 맞추기 위해 남자 변기를 줄여 기준에 맞추는 폐단을 개선할 필요성 -부스의 기성품사이즈 고려 -선반의 폭, 재료 규정
여행 주차장	-여성우선 주차면 확보 (주차면 20%이상, 폭2.3m ×5.0m이상) -여성우선주차구역 적정조도 (130Lux 이상) 일반주차구역 적정조도 (100Lux 이상)	-서울시 건축 지침 반영 -에너지절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은 조도 -동작인식 센서 조명 설치 -야간의 눈부심 현상 개선
여행길	-보행로 주변 쉼터 제공 (벤치 등) -범죄예방 CCTV설치(택시 승차장, 버스정류장 연계)	-전시효과가 아닌 휴식 제공 -거리비례로 개소 기준필요 -CCTV의 관리주체의 혼선 -적정위치 기준이 애매함
여행공원	-CCTV 설치 및 작동여부 (여성친화 산책로 및 주요 시설물) -인터폰 or 비상벨 설치 및 관리인 상시 순찰제	-인터폰, 비상벨의 작동여부와 시스템의 효용성 파악 -비상벨의 위치를 인지하기 어려움 -야간의 관리주체 부재 -적정 개소, 설치위치 등 설치와 관리시스템 연계 -심리적 범죄예방 효과 -시민의식 개선 교육

선택 권고 항목

선택권고항목은 다목적 화장실, 보행자 통로폭, 주야간 경비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횡단보도용 보행자 가로등은 2011년도부터 새로 규정되어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표6. 시설별 선택권고항목 인증불가요인

시설 분야	미인증 요인	개선 건의
여행 화장실	-다목적 화장실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한 이용객) -화장실내부의 비상벨	-다목적 화장실의 규모, 위생기구의 설치규정 추가 -개소 규정 없음
여행 주차장	-보행자 통로 폭 확보 (1.2m 이상) -주차장의 야간조명 확보	-보행자 통로 폭 (1.0m) -옥상 층의 야간조명 방식개선
여행길	-횡단보도용 보행자가로등 -바닥마감재 통일	-사고방지용 횡단보도 조명 설치위치, 개소 지정 (적정위치, 교차로 등) -시 보도와 건축후퇴선의 바닥마감, 포장패턴 통일 -항목 추가 : 우수의 지하수 유입 -여행길 코스 안내 부재 : 코스 표식마크
여행공원	-공원의 안내표지판 -쓰레기처리 및 관리동선 마련 -친환경 자재의 사용 -주야간 경비시스템	-안내표지판의 통합필요 -쓰레기통 규격화 -구체적인 용도, 위치 지정 -관련 서류제출 필요

여행길, 여행공원의 시민 체감도가 떨어져 사업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의 취지가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을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인 만큼 꾸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성행복시설 인증사업이 가지는 의미

여행 프로슈머에 의해 인증된 시설들은 여행 포럼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평가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여행 프로슈머로서 평가현장에 동참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꾸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다.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시각과 인식이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변화하는 것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또한 서울이 전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어서 가슴이 뿌듯했다

간혹 "왜 여자만 행복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부사업내용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노약자, 여성,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도시를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취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시설 인증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지침화되고 관공서의 전국 주요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건축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며 여성건축사들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관공서 사업이다. 앞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다양한 도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축사들의 시각과 경험이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되도록 해서 각 시도의 도시환경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도시도 행복해져야 하지 않을까?

〈편집자주〉 이 글은 건축산업대전 전시기간인 2011. 10. 27에 서울건축사회와 서울시 여성가족 재단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만들기〉에서 신경선 건축사가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박 성 택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경북대 문과대학(철학)/영남대 경영학과/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한진, 한라그룹 기획실/예술의 전당– 미술, 관재, 감사, 총무, 고객관리, 기획부장/경영지원팀장/전시사업팀장/기획운영국장/사장직무대행/상임이사
사무처장/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 자문위원/경품용상품권인증심의위원/(재)서울예술단 이사/공공문화예술기관경영협의회 간사위원회 위원장/부산 오페라하우스건립 추진위원/성신여대 겸임교수/한국예술경영학회 부회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 · 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 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수없이 찾아 가고 불려(?) 다니던 행태가 머지않아 진정한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건축문화의 큰 가치를 위해 우리를 찾아 올 기대도 해 본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문화의 시대에서 건축과 예술을 빼고 얘기 할 순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과 떨어질 수 없음을 당연시 하고 사회 일각(?)에서도 그리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 문화예술인과 건축사들과의 실질적 교류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술 문화 소통과 총괄의 場!
예술의전당!
오랫동안 그 문화예술의 각 장르를 아우르고 운영해 오신 분과 우선 자리를 함께 해 보기로 하였다. 작은 계기일지 모르나 건축과 예술의 깊은 맛을 우리 모두가 서로 체득하고 더욱 활발히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불씨가 더욱 커져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생명의 불꽃으로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겠는가.
올 해 내로는 그런대로 건축초대석이 예상 경로를 가리라는 바람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결국 당초 약속 면담인 사정으로 불가피한 변경이 초래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급한 약속과 그의 고마운 배려로 그래도 홈베이스를 밟는 기분이다.

비록 추운 한 겨울의 날씨지만, 오래 눈에 익은 장소이고 가깝고 미더운 사이라는 신뢰 하에 편안한 기분으로 약속 장소로 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의 전당답게 규모도 크고, 언제나 여유롭고 멋진 도심 공간이다. 그의 사무 공간 또한 정갈하고 차분하다.

예술과 문화, 건축을 서로 얘기한다는 것만으로도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만의 선입관일까?
사무실 등에서 인터뷰해 오던 것과는 달리 음악홀로도 자리를 옮겨도 본다. 그런 분위기 하에서는 그의 날카로운(?) 충고조차 친근한 덕담처럼 다가온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와 건축이 잘 되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을 알기에!
德人과 知人을 만나면 그 德과 智慧의 자연스런 베품을 받듯이 함께 한 필자의 부족함도 조금은 메워지는 듯하다.
서둘러 마무리함이 아쉬우나 그래도 여타 경우와 견주어 모자람이 없으니 돌아오는 길 매운 찬바람도 괜찮다!

박찬정 :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흔쾌히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박성택 : 환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나마 건축전문가와 건축문화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해 보고 싶었던 터라 저도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박 : 그리 말씀해 주시니 좀 더 편안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전당의 역사도 20여년이 된 것 같으니 간단하게나마 우선 역사적 과정과 성장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박 : 네.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1980년을 지나 새로운 정치질서가 자리잡아가고 있었고 경제도 성장기에 들어설 즈음에 서울이 올림픽(1988) 개최지로 결정되었지요. 그런데 올림픽을 개최할 인구 1천만의 국제도시로서 당시 서울의 문화공간은 말할 수 없이 빈약하였죠. 다목적극장인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 외에 음악전용 연주장 하나 없었습니다. 삶의 수준으로 봐서도 문화적 상징이 될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1982년에 문화공보부가 예술의전당 건립을 결정하여 건립본부를 발족시켰으며 지금의 서초동 부지에 1984년 11월부터 건립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88년 2월에 음악당과 서예관이 1단계로 개관되었고, 1990년 8월에 미술관과 자료관이 개관되었습니다. 1993년 2월에 마지막으로 오페라극장이 개관됨으로써 전체 건립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비 1,455억 원은 전액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현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술의전당은 하드웨어의 규모만으로도 세계수준의 아트센터로 등장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예술의전당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예술 사업을 펼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재정자립도 85%라는 경이적인 운영모델을 창출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아트센터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 : 그렇군요. 당시 건축계에서도 위치적 타당성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훌륭하게 자리 잡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이 반갑네요. 실업무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본 전당의 도시건축적인 면의 평가를 하신다면?

박 : 정치적 업적이라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건립 당시의 상황에서는 건축규모가 너무 크다는 느낌이었고 그 규모 때문에 위치도 서울 최남단의 우면산에 자리 잡아 도시기능과는 다소 겉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성장 속도와 워낙 빨라서 지금은 오히려 예술의전당 하드웨어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치로 인한 어프로치의 문제는 여전히 약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술의전당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건축 상징물로는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박 : 홍보 자료를 보니, 새로운 시작, 신선한 감동(Refresh! Seoul Arts Center)라는 슬로건을 내 거셨는데, 그럴 계기와 근거가 있다면?

박 : 1988년 개관한 이래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청년기에 들어 선거죠.
예술문화 사업에도 최근에는 마케팅의 개념이 도입되어 예술상품의 개발과 보급이 종전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으므로 운영패턴과 마인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그동안 많이 노후 되어 리노베이션이 불가피하구요.

박 : 그렇다면 건축적인 면에서 전자의 내용과 연계하여 보다 개선할 부분이나 보완하였으면 하는 것이 있으시면?

박 : 20여 년 전의 예술시장이나 환경은 지금과 아주 달랐죠.
공급자, 즉 음악이나 공연예술단체 위주로 예술상품이 만들어졌고 공연장 같은 시설들은 대부분이 국공립이다 보니 소비자–관객– 측면에서의 배려는 거의 없었어요. 공연 건축물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출연자나 시설운영자의 입장만 반영되고 정작 이용자인 관객들의 의견은 배제되었죠. 결국 관객 공간–객석, 로비, 퍼블릭 공간, 휴게 및 식음료 공간 등–에 대한 배려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예술의전당도 처음 개관할 때 음악당 건물 내에 커피숍 하나 없었어요. 설계에 아예 빠졌었어요.

2개 홀에 하루 관객이 대략 2천명이나 되는데 식음료시설이 없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다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로비 한쪽에 코너숍 개념의 커피점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리노베이션 하면서 간이카페와 CD점 같은 고객편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별거 아닌 곳 같지만 중요한 예로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연장시설의 사용상 특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같이 남녀 화장실의 규모를 동일하게 배치하였죠. 그런데 공연장의 화장실은 하루 종일 사용되지 않다가 공연 중간의 인터미션 시간에만 일시에 몰려듭니다. 특히 여성들은 사용시간이 남성들보다 훨씬 길지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인터미션 시간 대부분을 화장실 앞에서 줄서는데 다 허비하곤 했지요. 최근에 저희 예술의전당은 화장실을 전부 재시공하여 남녀 화장실 변기수의 비율을 1:1에서 1:2로 바꾸었습니다. 요즘의 아트센터는 무대, 음향, 조명 같은 공연기술부문의 시설 못지않게 관객편의시설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박 : 그런 측면에선 문화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건축이 시대적 상황과 그 의식의 반영이란 면에서 적나라한 예의 하나네요. 저희들도 늘 기획 프로그램의 충실도를 얘기 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합아트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방법 중 하나로 주변과의 소통– 관객, 국내외 예술계, 지식인 그룹 등 –을 들고 계신데, 그 실천적 내용과 나름의 성과를 얘기하신다면?

박 : 관객의 원하는 바를 알고 사회 각 부문의 트렌드를 읽기 위하여 고객자문단, 비전위원회 같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소통기구를 운영하고 있죠.
또한 국외 예술계와의 소통을 위하여 각국의 대표적 아트센터들과 교류협정을 맺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1993년 호주의 시드니오페라하우스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올해는 북경대극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동경의 산토리홀과 회원제 교류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 건축사 직능 단체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깊고 널리 사회 각 분야와 소통하려 하는데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 : 건축도 대표적인 종합 분야인 만큼 소통이나 조정 능력이 어디보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단 부족한 듯도 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웃음). 제가 어떤 경우에 건축 관련 분야에 계신 분을 통해 건축만이 고고하게 있다는 다소 냉소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전공분야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단체들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데 건축 조직으로서 통합적인 소식들은 잘 접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지식과 자료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보았으나, 장차는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누가 뭘 하는지를 알아 그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건축과정에서 건축사가 중심되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단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개인이건 단체건 기회도 스스로 만들어 가고, 또 다른 단체에 대한 관심도 표하며 다양하게 접면을 넓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자리도 좋고요.

박 : 따가운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도 무슨 특별한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술의 전당 업무를 보신 지가 오래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성장 과정과 함께 입사의 계기나 당시의 생각은 어떠셨는지요?

박 : 대학에서는 철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1981년 한진그룹에 입사하여 건설 쪽에서 약 4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 진학하여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1987년에 전 직장 선배님의 권유로 예술의전당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예술의전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과 미술에 소질과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그냥 마음이 끌렸습니다. 1단계 개관을 8개월 앞둔 막바지공사 시기였는데 개관일 까지 휴일 없이 매일 일했어요. 기획부 과장으로 시작해서 기획부장, 총무부장, 전시사업부장, 시설부장, 고객관리부장, 기획국장을 거쳐 현재는 사무처장(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연부서만 빼고 거의 전 부서를 다 거쳐 본 것 같습니다.

박 :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배우의 직업적 장점이 다양한 입장, 경험을 해보는 것이라는데 탤런트적 소질이 있으십니다.
그 동안 근무 과정에서의 보람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박 : 보람 있는 일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많죠.
운영방식이나 프로그램의 수적 규모 면에서 국내에서는 참고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모든 게 전당이 처음이었고 전당이 하면 표준이 될 정도로 개척자처럼 일해 온 것들이 모두 보람이죠.

어려웠던 점은 2007년 12월에 오페라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가 전소되었던 때인데 그 후 꼬박 1년은 화재복구공사에 매달렸었죠. 무대복구공사로 극장이 폐쇄된 김에 객석 리노베이션공사까지 같이 하였는데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년 밖에 안 되었어요.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는데 거기다 국내 무대기계업체가 도중에 재정사고를 내는 바람에 업체를 변경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는데 그 때는 애써 공사 다 했는데 또 불이 나는 꿈도 무척 많이 꾸었어요.

박 : 저도 그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만큼의 자력이 생기는 것이니 그것도 큰 자산이죠. 다른 취미 활동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속하시는지요?

박 : 클래식음악 듣기를 좋아하는데 공연장에 근무하다 보니 아무래도 음악당이나 오페라극장을 남들보다는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지만 어려서부터 LP음반을 많이 들어 왔던 터라 요즘도 오디오를 통한 음악 감상을 자주 하죠.

스포츠는 종목을 안 가리고 다 좋아합니다.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 모두 다요.
골프도 무척 좋아하는데 저희 전당은 주말에 관객이 가장 많이 오는 관계로 주말은 정상 근무할 때가 많고 정식 주휴일은 월요일이어서 같이 라운딩할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필드는 자주 못갑니다.

박 : 취미도 현 직장과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젊고 단단한 이미지를 풍기십니다.
저희 건축사들은 건축을 '예술을 포함한 당시 문화의 총체'로 보고 있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박 : 저도 이런 자리 함께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것이죠.
예술을 통해 진리적 모습을 알아가고 구현하며, 시대적 삶이 곧 문화라는 측면에서 건축의 본질이 그러함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러니 건축의 주역이신 건축사들의 역할과 책임은 정말 크다고 봅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 지위 그런 것과는 별개로….

박 : 그런 개념에서 지금까지의 본 당과 관련한 조직 구성에서 건축 관련 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차 그 참여 가능성은?

박 : 아닙니다. 건축관련 직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 뿐 아니라 건축물의 개보수 및 리노베이션 등이 늘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이지만 건축 관련 인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 시설도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자꾸 진화해야 하는데 그런 진화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고급 건축인력이 좀 더 확보되어야겠지요.

박 : 제가 자세한 조직 구성을 모른 탓이네요. 예술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 도시나 건축을 든다면?

문 : 많은 도시들이 제 나름대로의 독특한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어느 곳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확연히 다른 이미지의 신, 구 도시로 이루어진 파리가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박 : 그럼 국내, 혹은 국외의 최고 수준의 복합예술센터를 든다면?

박 : 서로 다른 예술 장르들이 상호 간섭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복합적으로 소비되는 진정한 의미의 복합아트센터는 국내외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여러 형태의 공연시설물들을 한 사이트에 모아서 센터를 조성한 이른바 아트콤플렉스를 복합아트센터라고 하는데 미국의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영국의 바비칸센터,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싱가폴의 에스프라나데, 예술의전당 같은 곳들이 그

예입니다.

건립배경들을 보면 30, 40년 전 당시의 사회 상황들 때문에 도시재정비사업의 일환이나 랜드마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지어진 곳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런 유형의 거대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아 좀 주춤하고 오히려 코펜하겐 오페라하우스, 오슬로 오페라극장 등과 같이 단일 목적의 시설물을 독립적으로 짓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트컴플렉스의 시설규모와 구성, 예술 활동의 수준 등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링컨센터가 가장 수준이 높은 것 같고요 활동의 다양성이나 복합아트센터로서의 예술적 활기 면에서는 시드니오페라하우스가 최고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의전당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2008년 오페라극장 화재복구공사 현장보고 당시 유인촌 장관과 박성택 사무처장

박 : 언제 또 다시 기회를 만들어 좀 더 자세한 얘길 나누고 싶군요.
직접 건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경험은?

박 : 건축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술과 디자인을 전공해서 공간의 활용과 배치, 건축물의 내부구조와 인테리어 같은 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예술의전당 각 공간들의 리노베이션 때 공간의 기본 콘셉트와 배치에 대한 최초 안은 주로 제가 해 왔습니다. 실례로 전당 전면에 메인 엔트런스 역할을 하는 "비타민 스테이션"의 기본 구상과 공간계획은 제가 해봤고요 음악당 리허설룸을 챔버홀로 개조한 건축계획, 이 밖에도 전당 각처에 버려져 있던 스페이스들을 개조하여 공간을 활성화 시킨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어떤 면에서 좀 우아하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구석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유도되었으면 하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너무 기능과 시설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좀 아쉬웠어요. 공연, 전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교도 하고, 가족, 친구 모임도 하고… 말이죠.

박 : 동감입니다. 역시 큰 건축인 만큼 할 일이 많네요.
본 당에서의 경우나 기타 건축 관련 전시회, 혹은 건축 관련 영화, 행사 등을 보신 적은 있으신지, 있으셨다면 그 감상이 있으시면?

박 :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그동안 건축전시회가 꽤 많이 열렸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건축대전도 열렸었고요. 꽤 오래 전입니다만 로버트 벤츄리전과 2003년 아키그램의 실험적 건축전이 전시된 적도 있습니다. 로버트 벤츄리가 "현대건축물은 거대하고 영웅주의적인 근대건축물과 달라야하고 대중들과 친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내부의 집기, 심지어 간판도 건축디자인의 한 요소라고 한 것이 생각납니다.

박 :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시니 건축적인 용어나 인물에 대해 전혀 어색하지 않게 파악하고 구사하십니다.
우리의 건축이나 건축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박 : 앞에서 언급된 것에서 생각이 난 것입니다만, 보다 시급히 국민, 대중과의 소통, 접촉을 늘려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나름대로는 건축설계에 대해 일반인들보단 좀 더 이해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이해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축사 내부로도 많은 이해의 차이가 있겠지요.

최근에는 아주 많이 달라졌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천편일률적인 박스 형태였던 적이 있잖아요? 심지어 아파트조차 긴 상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듯 전국이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졌고요. 건축의 기술적인 부분 이외의 부분 즉, 미술, 디자인, 환경 등 각 분야의 관심과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에서 문화를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란 그 국민의 수준이라 보더라도 결국 건축사, 혹은 그 단체의 노력이 먼저 전제되어야겠지요.

그리고 이젠 건축설계가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나아가 산업적 생산력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움츠려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비단 건축설계 분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을 벗어난 시각도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이 되어야 할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박 : 비 건축인의 눈에도 그리 비춰지고 있다니 부끄럽군요.
타 문화예술 활동과 건축 창작 행위와 비교해 보신다면?

박 : 음~~ 자유로움 속에서 창작의지에 따라 생겨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아무래도 건축부분이 조금 더 부자유하고, 보다 더 사회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예술 분야의 절제된 규율이 없진 않지만, 건축 현실의 그것보단 훨씬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 같고, 온갖 사회적, 자연적 환경이나 기술, 인간관계 등 종합적이고 너른 분야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 : 왕왕 우리나라 누구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 건축이 뒤떨어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에 대한 처장님의 생각과 개선 대안이 있다면?

박 :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하더군요.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 근현대건축의 역사가 턱없이 짧잖아요? 저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과 잠재력을 볼 때 이젠 그런 스스로의 부족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다소 부족할지는 몰라도 장차 유사하거나 보다 나은 여건이 주어지면 거의 일등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언젠가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한 건축계 안팎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 투자 되어야겠지요. 현재 너무 과도한 경쟁 사회이다 보니 분열적인 문화 행태나 각박하고 거친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 함께 산다는 생각과 결과중심의 경쟁체계를 과정중심적인 체계로 전환 할 수만 있다면 국가 사회의 건강성을 지켜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 : 근자 세계적인 문화 한류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박 : 기본적으로 우리민족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우수하다고 전제하고 싶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표출시킬 사회적, 경제적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계속 잠복상태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문화와 역사, 자질, 세계화의 흐름, 정보통신의 발달 등 여러 여건이 잘 부합된 결과이고 더 커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박 : 그럼 그 근본적 배경은 무엇이고, 그를 지속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 장차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박 :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입니다. 인적 인프라와 그것을 소비하는 시장인프라가 커져야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옛날에는 예술과 예능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인재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문화예술이 대중소비시대를 맞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전념하고 산업화가 용이해졌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예술로는 못 먹고 산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젠 관심분야가 크게 달라지고, 또한 어느 국가나 문화의 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민간섹터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좋은 바탕을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유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 : 건축도 그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만, 우리로서는 정부나 우리 사회의 여건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만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어느 지방이나 제일 먼저 문화 관련 건축물을 짓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박 : 문화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그 시설을 잘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음은 개선해야 할 거리가 적지 않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트센터 건축물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지자체장들의 가시적인 업적으로 남기기 위하여 우선 그럴 듯한 시설부터 짓고 보자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도시규모에 걸맞지 않게 웅장하게만 짓다보니 세금낭비라는 비난도 많고….
그렇지만 기왕에 지어진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과 지원, 그리고 사회 각 층의 진정한 관심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작동한다면 분명 도시의 활력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박 : 정말 이젠 외형적인 것을 벗어나 질적 성장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의 대 사회화, 혹은 대중화를 위해 시작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3회를 지났습니다. 차후 본 전당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효과가 배가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그 가능성은?

박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이미 우수영화시사회를 몇 차례 한 적 있습니다. 예술의 수용범위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영화제도 그런 취지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시간 배정과 조정을 해 본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박 :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좀 더 좋은 작품 선정과 제작 노력을 기울려 장소와 걸 맞는 영화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좋은 건축을 위한 우리 사회적, 혹은 정책적 기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박 : 이제 우리나라도 창의문화에 대한 투자 의지나 여건이 크게 나쁜 상태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를 이끌어 낼 능력이나 인재가 있는가가 관건이겠죠.
과거에는 국가, 혹은 공공조직이 이끌어 간 시대라면 장차는 그 힘이 사용자,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들고 싶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 과제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지키고 자기들의 유익함을

창출하기 위한 법,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내려 할 것인데 그를 방관하는 정부나 사회는 그리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 지원이나 정책적 기반이야 저가 아니라도 많은 제안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좋은 건축이 어떤 가치 생산이 가능한지를 건축사 여러분이 꾸준히 사회에 보여주시고 이해시켜주신다면 좋은 건축, 좋은 환경에의 요구 증대와 함께 존중심과 대가도 따라오고 좋은 인재들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박 : 늘 바쁜 업무이시지만, 현 업무 외 장차 더 하시고 싶으신 것은?

박 : 지금의 업무를 떠나면 청소년기 때 가졌던 꿈을 늦게나마 실현해 보고 싶어서 그림을 그릴까 합니다.

박 :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진흥행사나 사업' 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하는데, 혹시 참여 의사는?

박 : 거의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소통하려는 시대 흐름인 만큼, 건축분야도 더욱 활발해 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친구 건축사가 몇 명 있고 가끔씩이나마 그 내면의 얘기를 듣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회 홍보가 부족한 듯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건설적인 측면보다 건축 내적인 지식이나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자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어휘나 내용도 알기 쉽게 재해석하거나 정리할 필요도 있구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타 분야 지도층의 참여도 중요하나 일반인들이 자연스레 다가올 수 있도록 더 준비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거대 담론도 중요하나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박 : 염두에 두겠습니다.
건축과 도시 환경, 설계 업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건축사계에 대해 충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박 : 아이구~ 주제넘은 얘기고 잘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박 : 거리낌 없이 해 주시는 게 결국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따가운 말씀이 더욱 좋습니다.

박 : 그럼 그냥 제 느낌 조금 말씀 드리지요.
건축과 도시 나아가 환경까지 그 영역을 넓혀 보면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정말 그 근본에 맞게, 그를 잊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현실적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집니다만, 지금처럼 자본이나 물질의 위력, 현실 생활에 얽매여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지요. 한편 이해도 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건축사가 갖추고 지켜왔던 독립적 지위나 명예로움이 오히려 낮아진 것 같고, 너무 쉽게 현실 상황에 굴복한다 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축과 도시가 커질수록 그 근본 가치를 지켜야 할 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욱 많아져야 할 텐데… 유사한 예로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에는 유능한 지망생이 줄어들고, 소위 돈 되는(?) 성형, 피부, 모발 등에 몰리는 현상과 같은 거죠.

일부 의식 있는 의사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지식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발전한 것이겠지만, 그를 구현할 의지나 정신은 오히려 후퇴한 현실 아닙니까? 알고도 안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건축과 도시,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니 만치 그 존재 가치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만, 그래도 그리 기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저도 도울 기회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장 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박 :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충고 기꺼이 받겠습니다.
바쁜 업무 계획과 쉽지 않은 주제(?)에 대해 성심껏 의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 :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잘 모르던 것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 보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새만금 홍보전시관 계획

Saemangeum Promotional Exhibition Project

김석환 | 정회원 터 · 울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Kim, Suk-hwan,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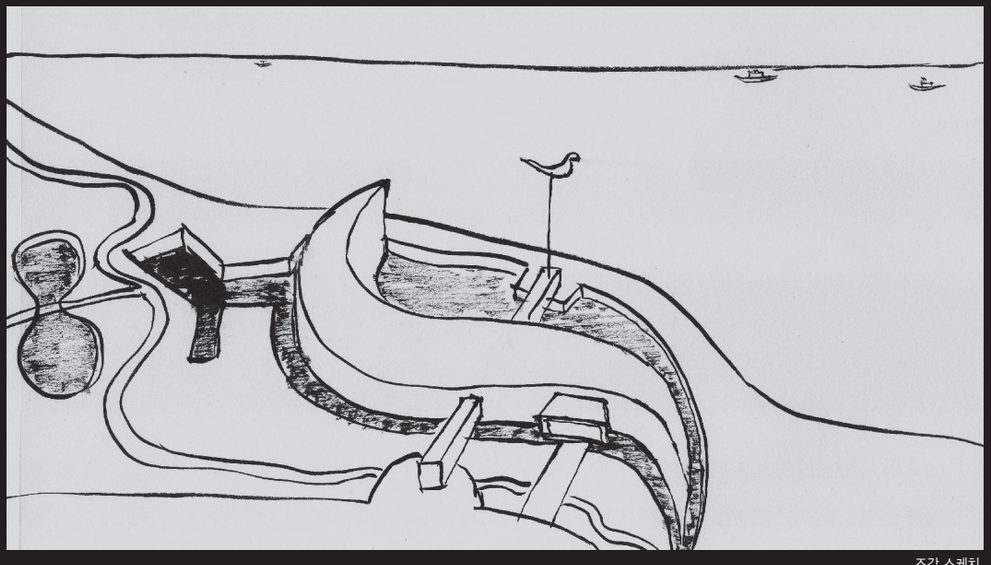
이 계획은 2010년 1월 농어촌공사에서 대역사를 이루어놓은 새만금에 그 사업의 홍보를 위한 홍보전시관을 지으면서 현상공모를 했을 때 그 응모안으로 만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오랜 논란의 진통 끝에 매듭이 지어졌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은 천연갯벌의 소멸 같은 자연환경의 파괴 문제였다. 인류는 문명생활을 해 오면서 자연지형의 변경, 나무 석재 등 건축 재료의 채취, 에너지 자원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자연을 파괴해왔다. 그리고 급기야 그것이 기후변화 등 재앙의 위험으로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20세기 후반부터 세계는 자연의 훼손에 따른 지구 환경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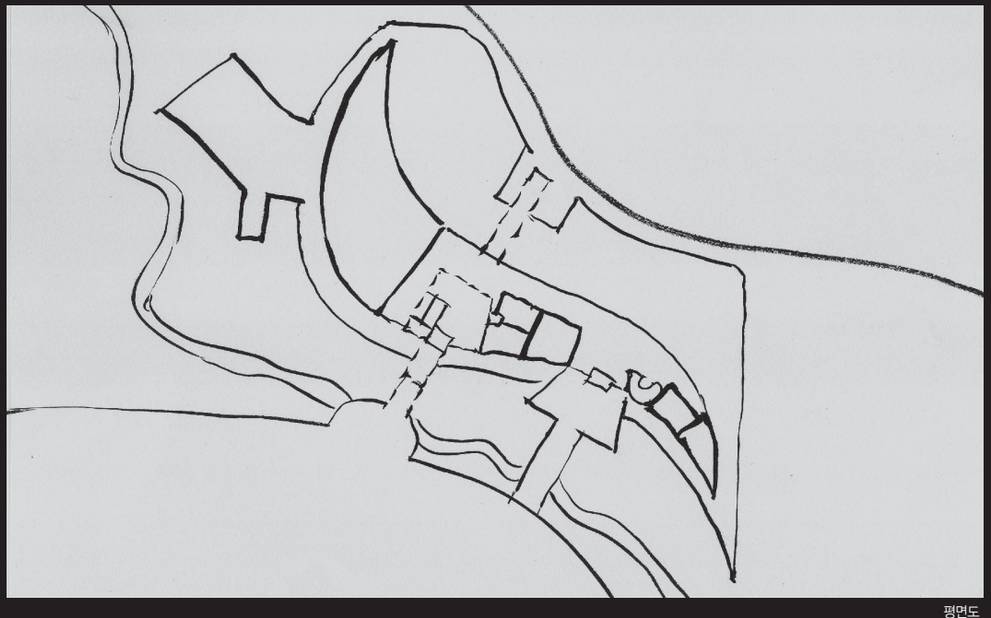
이 계획안은 새만금 사업으로 사라진 자연의 체취와 해안가에서 자연 자원을 무대로 소박하게 살아가던 정서를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우선 건물의 이미지는 해안선의 평온하고 고요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그리고 건물을 바닷물을 채운 호수 위에 놓아서 그 호수에 어족을 키우고 볼 수 있게 하였다.

외부 곡면벽을 관통하여 길게 뻗친 공중가로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상징한다. 입구 지반 높이에서 경사로를 따라 2층 높이로 점차 오르면서 긴 발코니 구조물을 통해 허공으로 나아가듯 바다를 행해 다가가면서 바다의 느낌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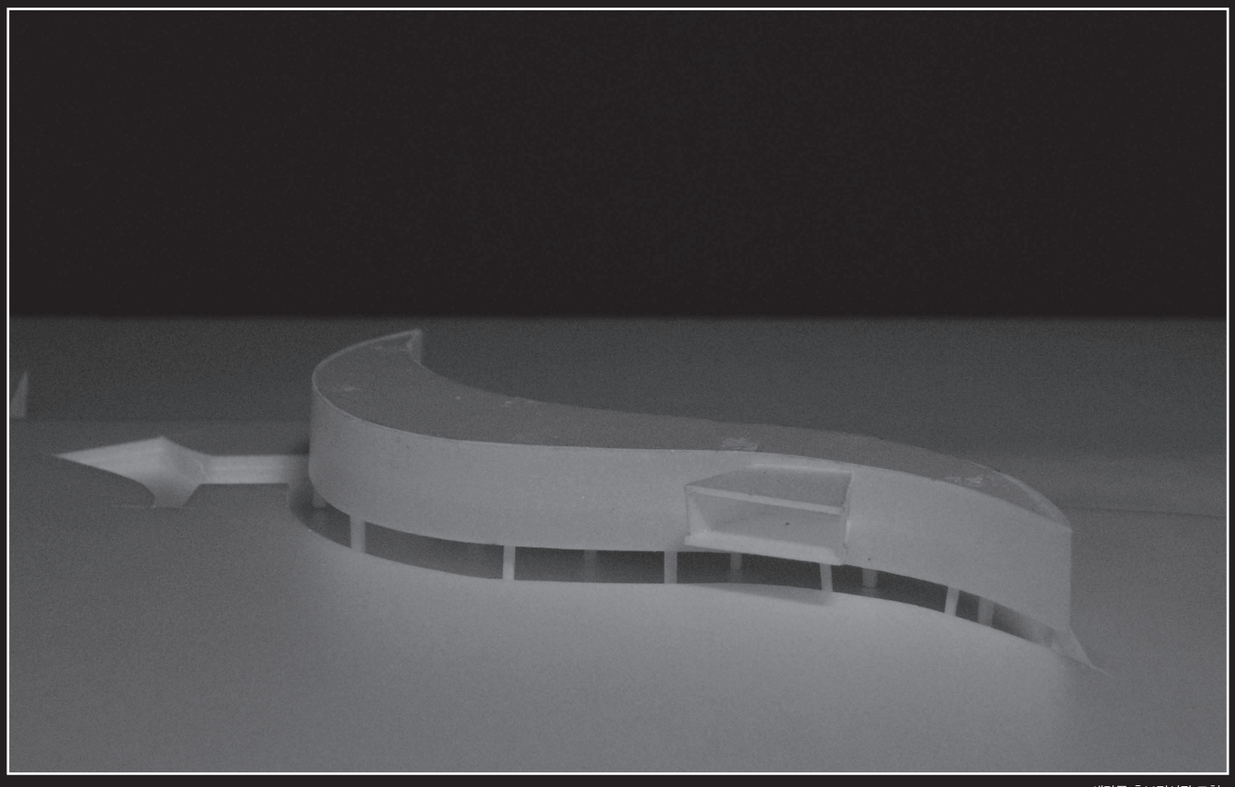
그리고 건물 주변의 외부 공간에는 농악 등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마당을 두고 솟대, 어구 등을 진열하여 어촌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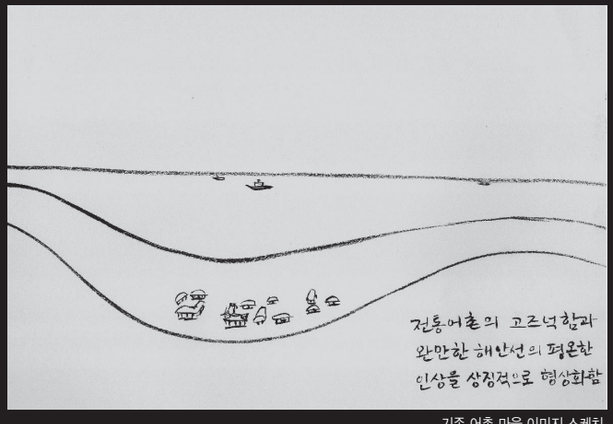
조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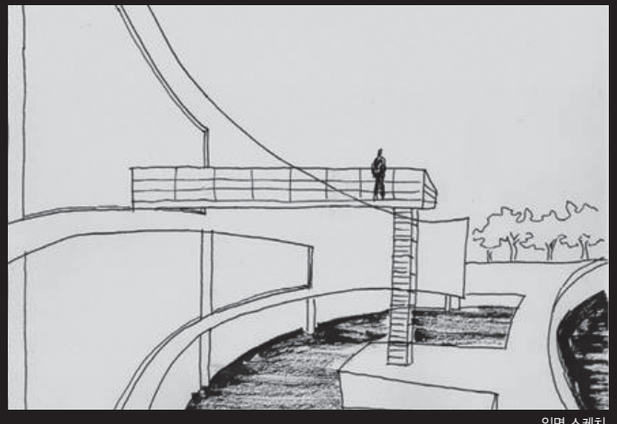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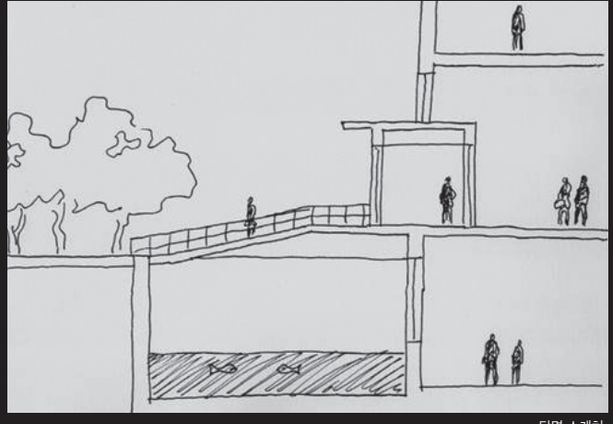
새만금 홍보전시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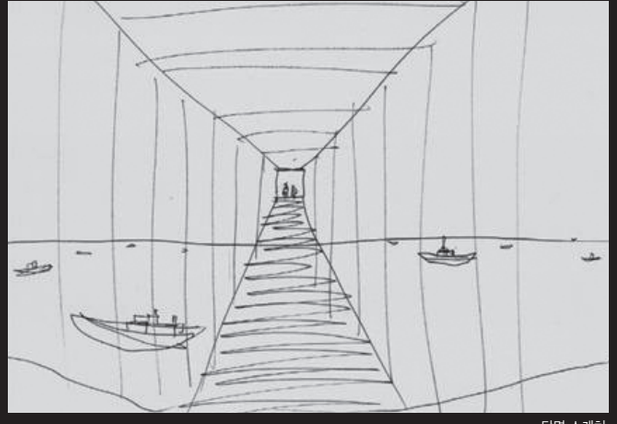
기존 어촌 마을 이미지 스케치



입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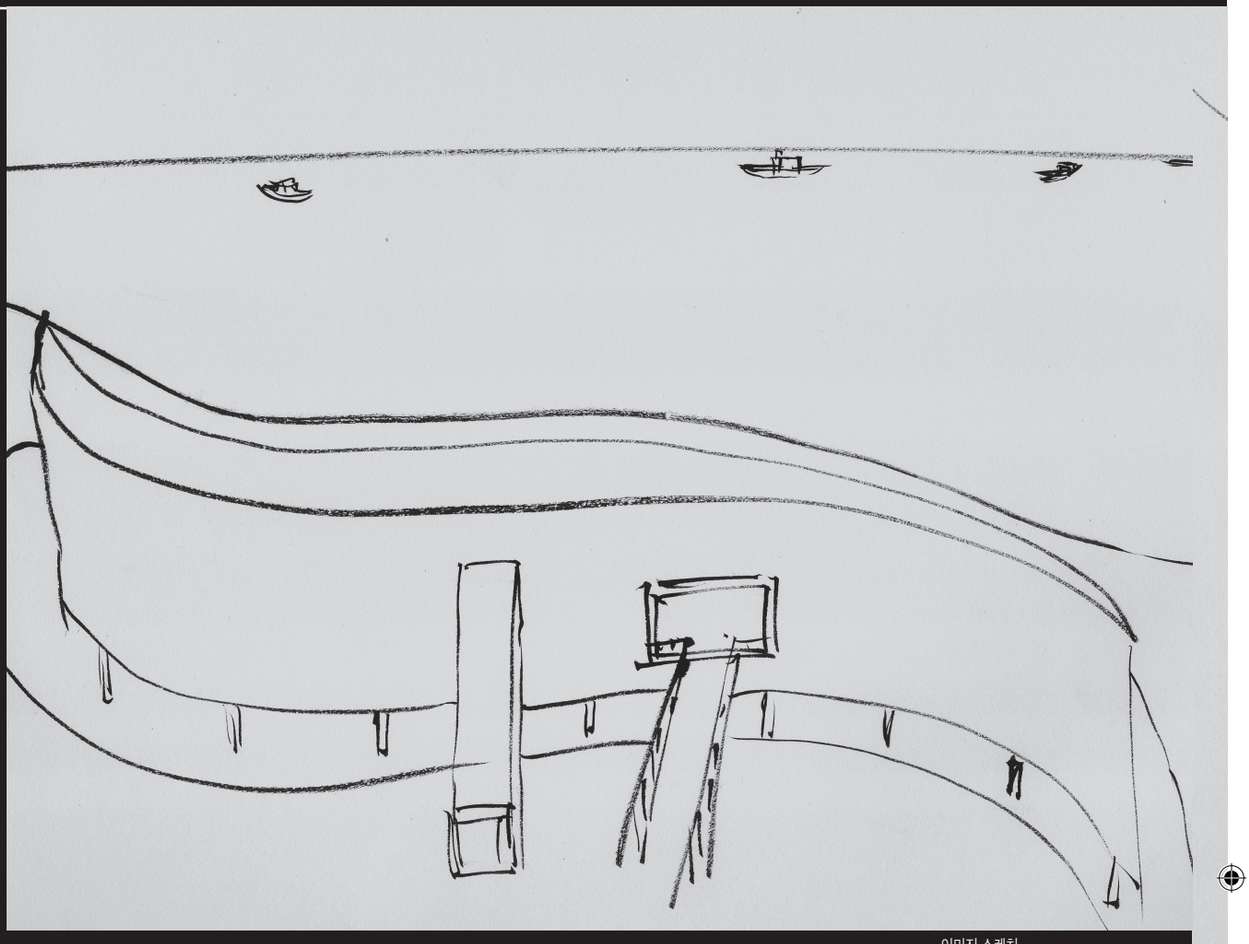
단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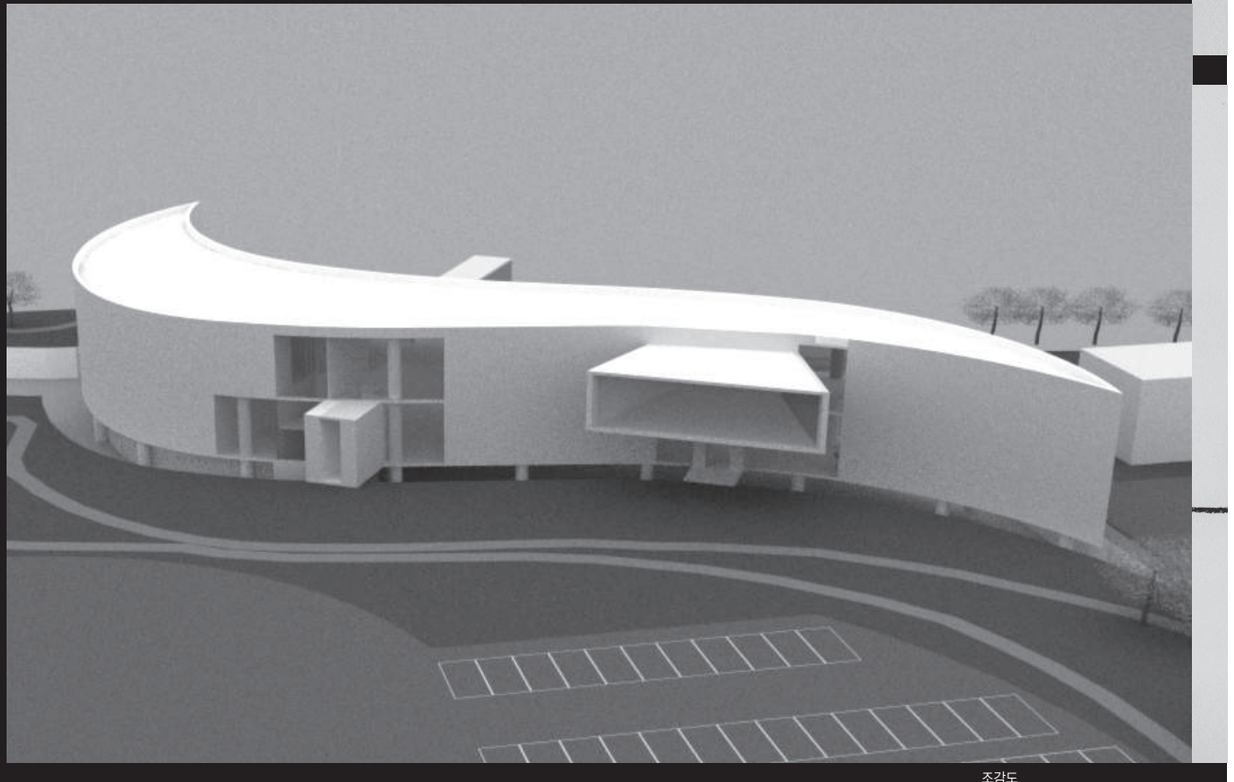
단면 스케치

새만금 홍보전시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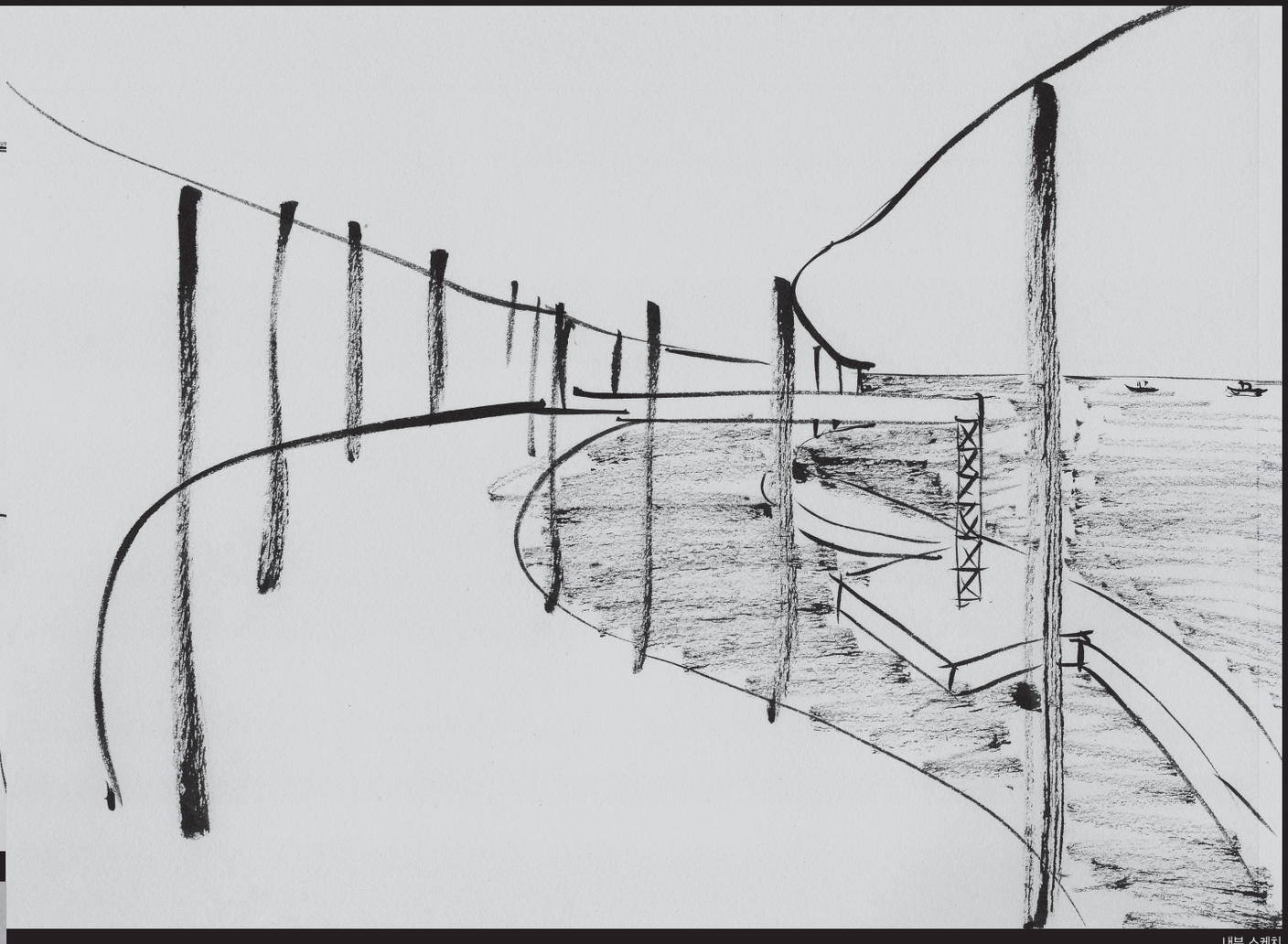
Saemangeum Promotional Exhibitio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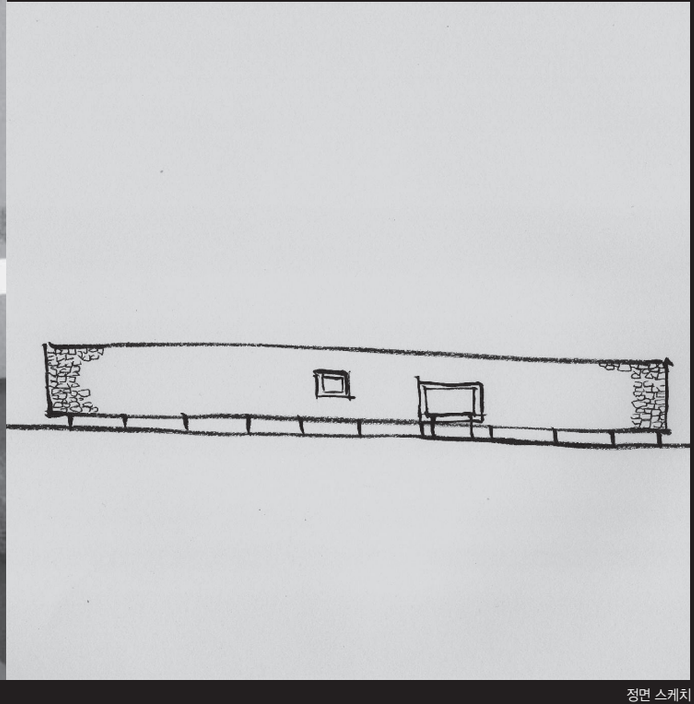
이미지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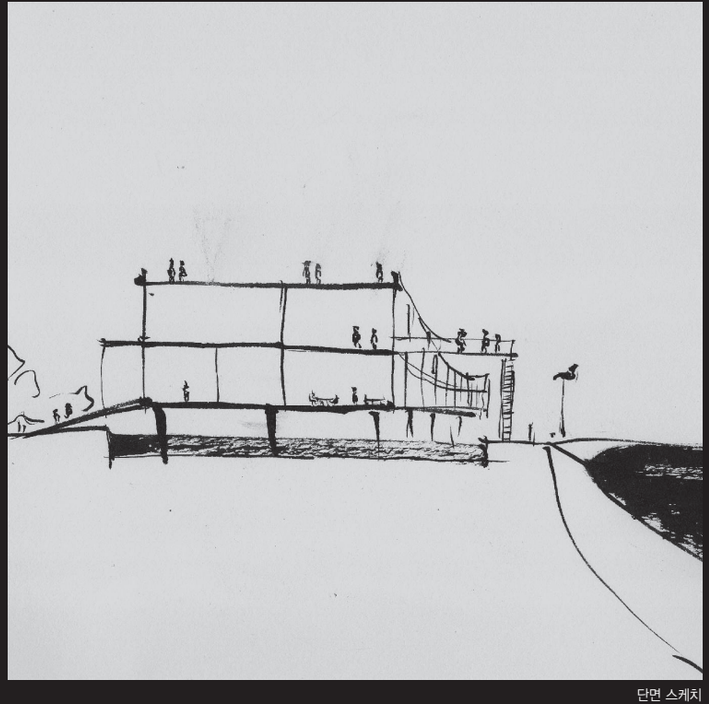
조감도



내부 스케치



정면 스케치



단면 스케치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증축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Annex Building Extension

당선작 _ 유선구 · 현군출 정회원
(주)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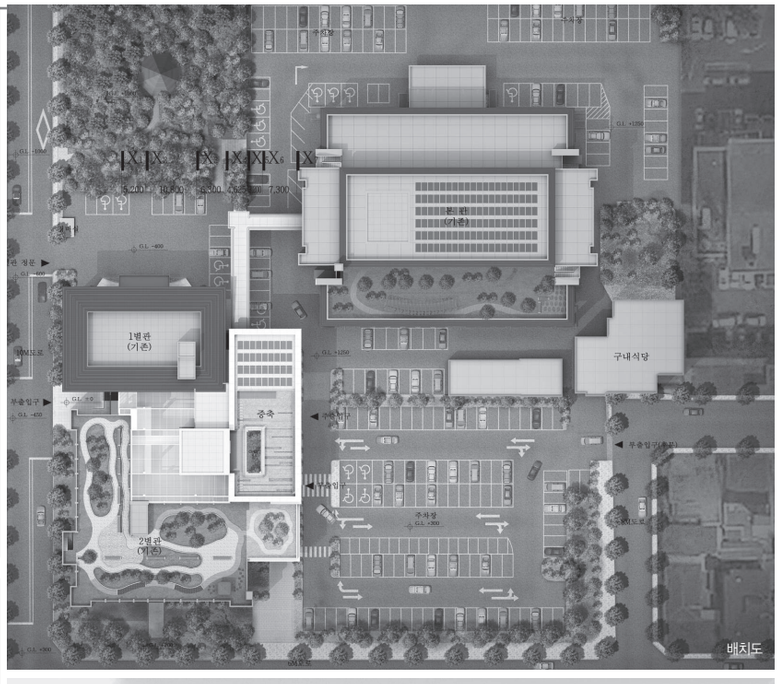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312-1) 일원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고도(45m)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20,211㎡
건축면적 기존 4,222.77㎡/증축 1,252.29㎡/ 합계 5,475.06㎡
연 면 적 기존 15,876.95㎡/증축 2,609.82/ 합계 18,485.77㎡
건 폐 율 27.08㎡
용 적 률 91.42%
규 모 지상 4층
발 주 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설계담당 김광천, 이현지, 고경찬, 김용철, 문영하, 강경희, 김유리, 박종범, 강은비, 한지희 (설계사업본부 제주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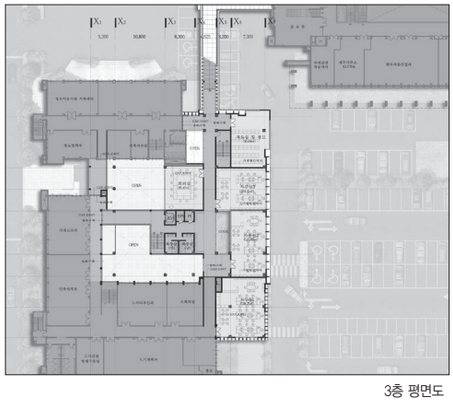
제주에 내실의 힘을 불어넣고,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할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계획으로 친근한 위치에서 도민과 호흡하며 새로이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였다.

배치계획
별관과 본관을 연계시키고 주변 동선을 유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마당을 공간으로 승화시키는 제주 전통 민가 배치원리를 투영시켜 기존 별관동과 증축동을 하나로 묶는 매스의 완결을 꾀하였다. 필로티를 도입하여 입구성과 개방성을 극대화 하였고 보행동선을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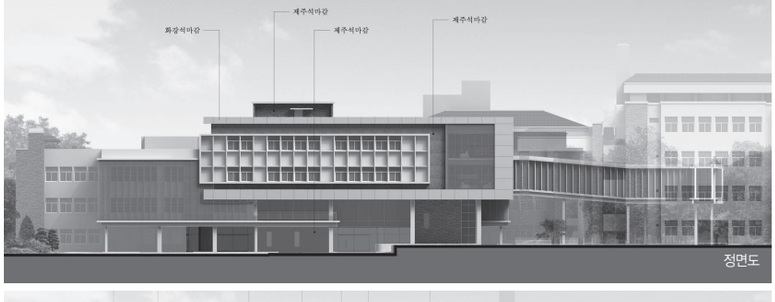
평면계획
기존 별관 2개동의 업무환경을 최대한 보호 하면서도 각동을 원활하게 연계시켜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에 아트리움과 순환동선을 계획하였다. 아트리움은 친환경적 완충공간으로 천정에 설치된 환기창 · 차양루버 · 반사판으로 빛 · 공기 · 바람을 자유롭게 조절한다. 개방형 아트리움 코어는 옥상정원까지의 수직 접근성을 높여줘 도민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청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1층 민원실은 향후 다양한 요구변화에 다변적 대응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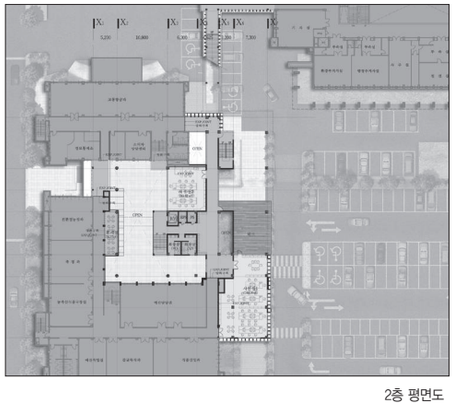
입면계획
전통 및 기존동의 입면 요소를 반영하여 지역 위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짜임새 있는 행정과 청렴함을 상징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패시브한 이중외피 계획하여 단열성능을 강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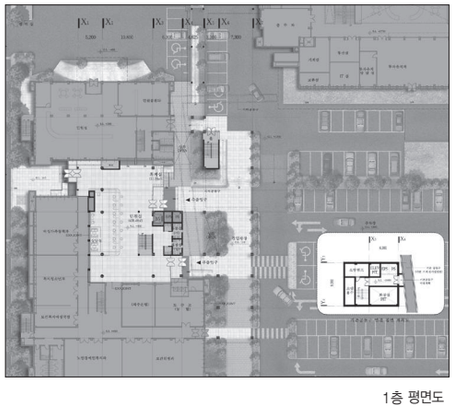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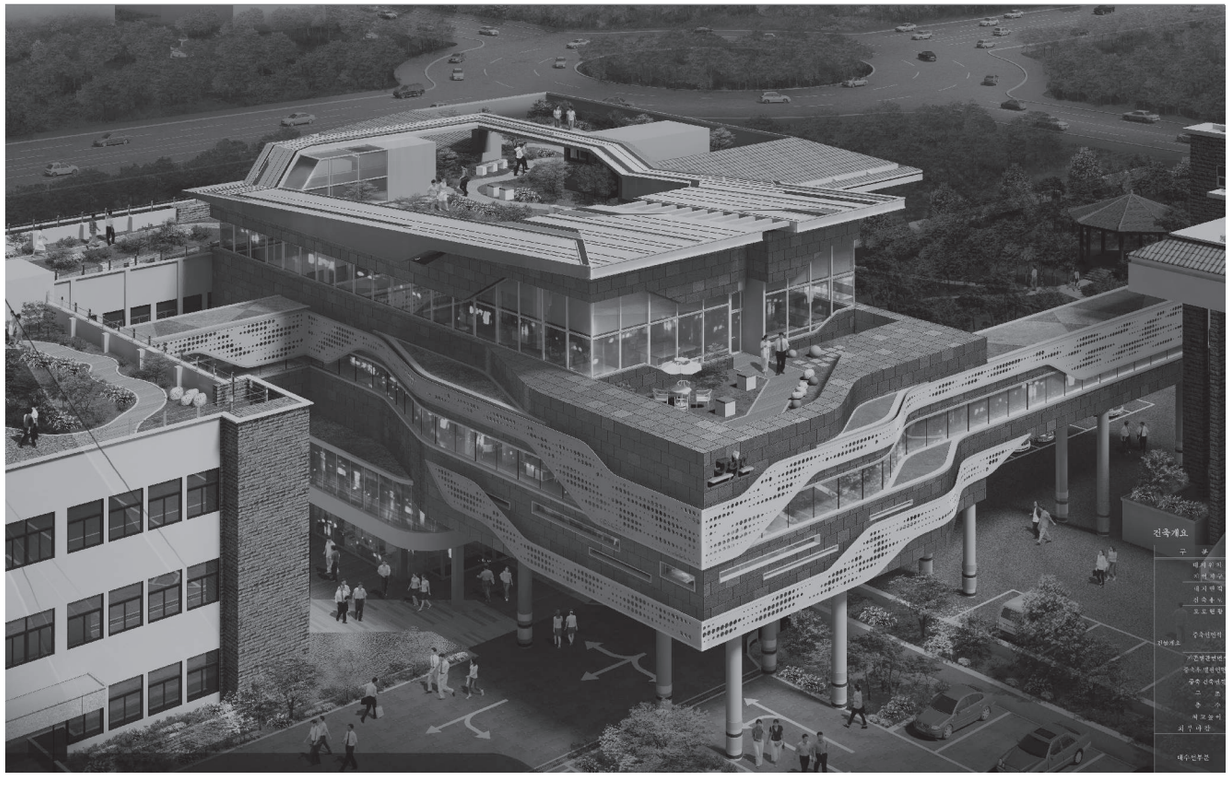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증축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 Annex Building Ext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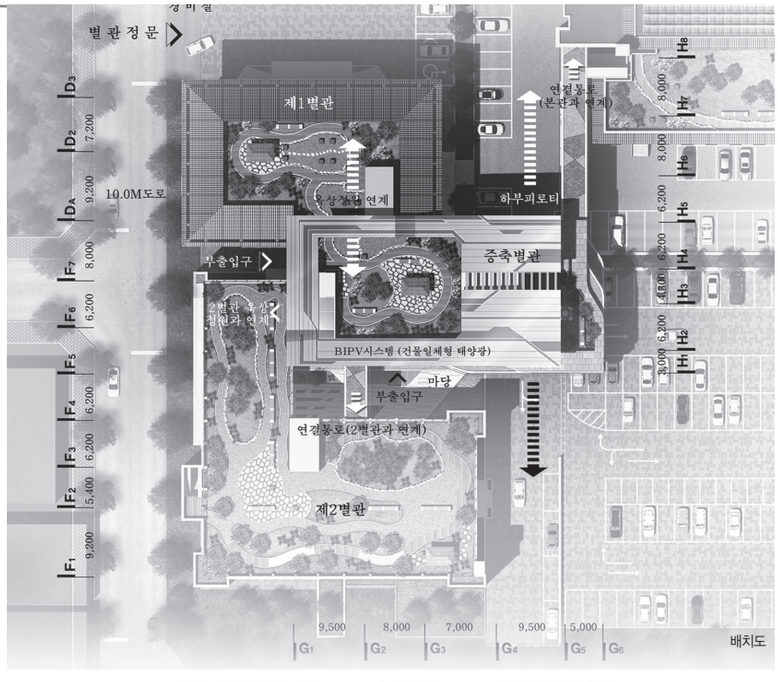
우수작 _ 김시범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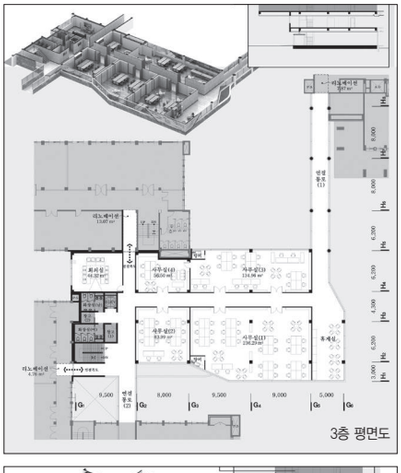
대지위치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312-1) 일원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고도(45m)지구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20,211㎡
연 면 적 기존 6,450.01㎡/증축 2,482.17㎡/ 합계 8,932.18㎡
용 적 률 31.91%
규 모 지상 4층
설계담당 박남용, 김태훈, 김수연, 강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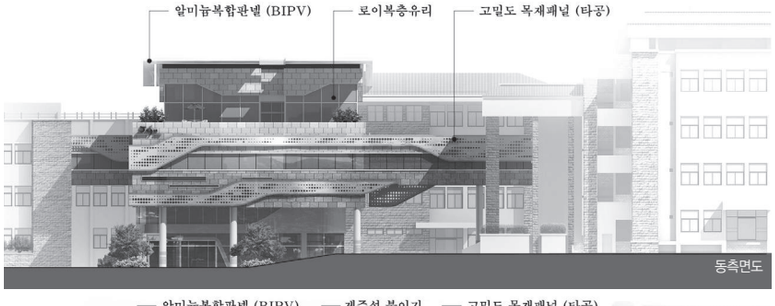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혜의 세계적 관광도시인 제주의 변화 중심에 제주도청은 새로운 물결에 대한 구심점으로 자리잡는다.
본 계획안은 국제화시대의 제주 상징성을 각각의 '결'이란 단어로 해석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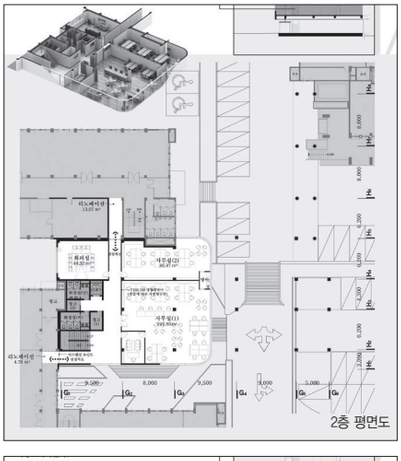
대지현황분석
본 대지는 제주시 문연로6(연동 312-1) 일원에 위치하며 도청내 1별관과 2별관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다. 대지의 서측면은 10m 도로이며 동측은 8m, 남측은 6m도로 서측면에서 주진입이 이루어진다. 약 18m의 정사각형 형태의 공간은 기능에 비해 협소한 대지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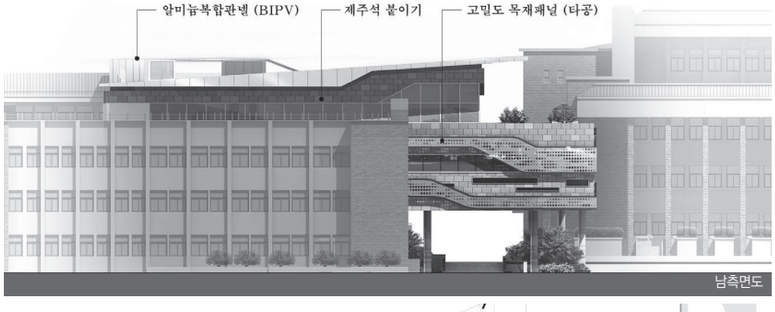
배치대안분석
-채택안은 조형적으로 강한 상징성을 지니면서도 평면 및 동선체계와 외부공간계획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주관광 이슈의 축으로 상징성과 더불어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선정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뛰어난 경관을 전세계에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의 총괄적 운영을 위한 중심시설로 기능을 발휘
-1별관 증축 건물은 내부, 외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결'들로서 그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각각의 매스와 동선체계는 각각의 매스로 구분하여 유동적이며 명확한 영역성을 지닌다.
-매스를 감싸는 입면들의 켜들은 진입브에서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본관과의 연계로 소통 및 기능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한다.
-건물지붕의 녹화와 조경은 자연을 건물과 대지 안으로 유입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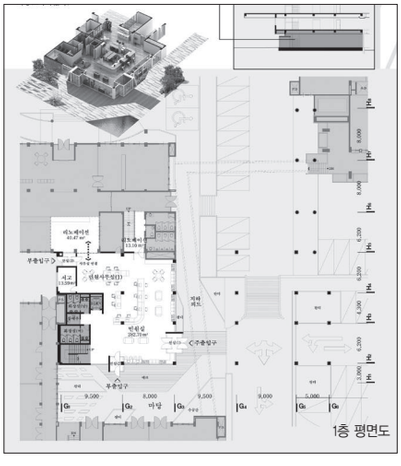

별관 정문
제1별관
연결통로 (본관과 연계)
10.0M도로
옥상정원 연계
하부피로티
무출입구
증축별관
2별관 옥상정원과 연계
BIPV시스템 (건물일체형 태양광)
마당
부출입구
연결통로(2별관과 연계)
제2별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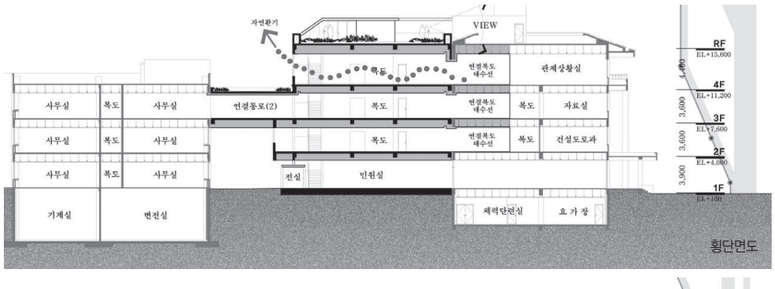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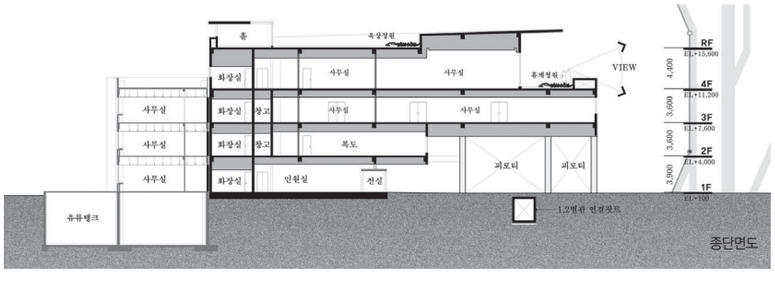

알미늄복합판넬 (BIPV)
로이복층유리
고밀도 목재패널 (타공)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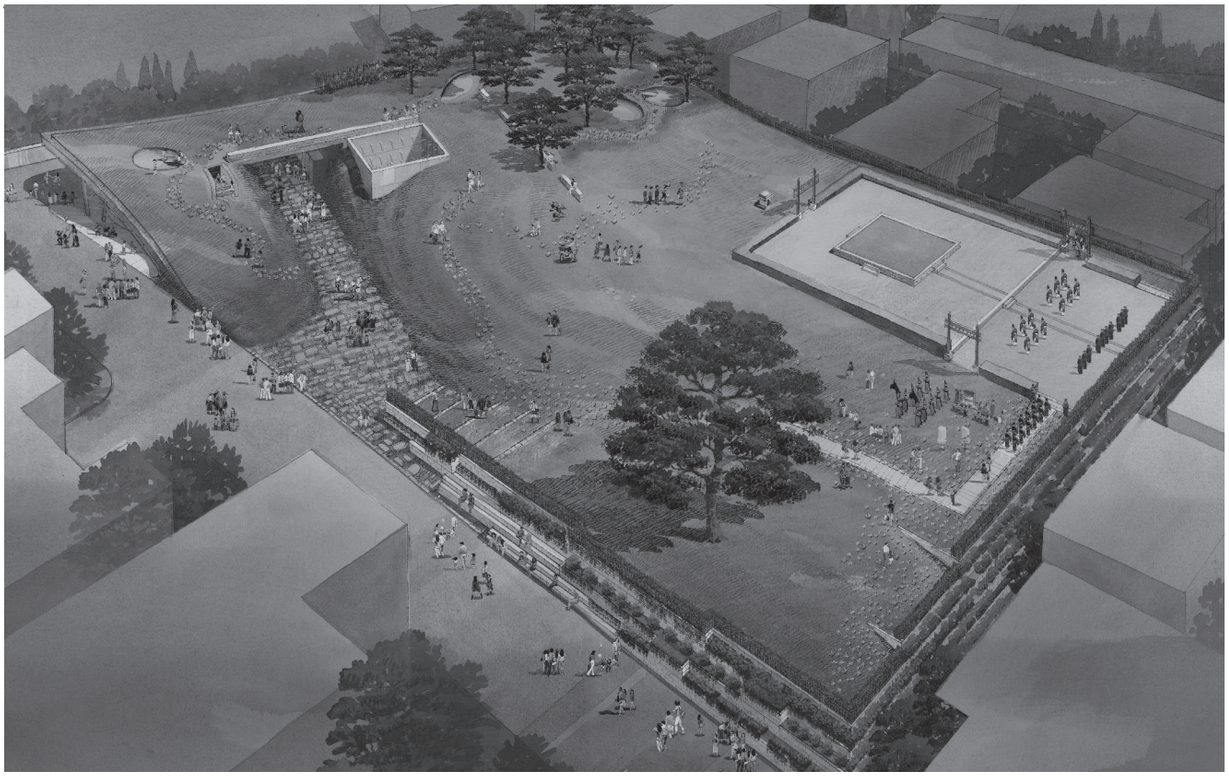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알미늄복합판넬 (BIPV)
제주석 붙이기
고밀도 목재패널 (타공)
남측면도


1층 평면도


VIEW
사무실
복도
연결통로(2)
전실
민원실
기계실
변전실
체력단련실
요 가 장
RF EL+15,600
4F EL+11,200
3F EL+7,600
2F EL+4,000
1F EL+100
횡단면도


VIEW
사무실
화장실
창고
복도
민원실
전실
피로티
유류탱크
RF EL+15,600
4F EL+11,200
3F EL+7,600
2F EL+4,000
1F EL+100
종단면도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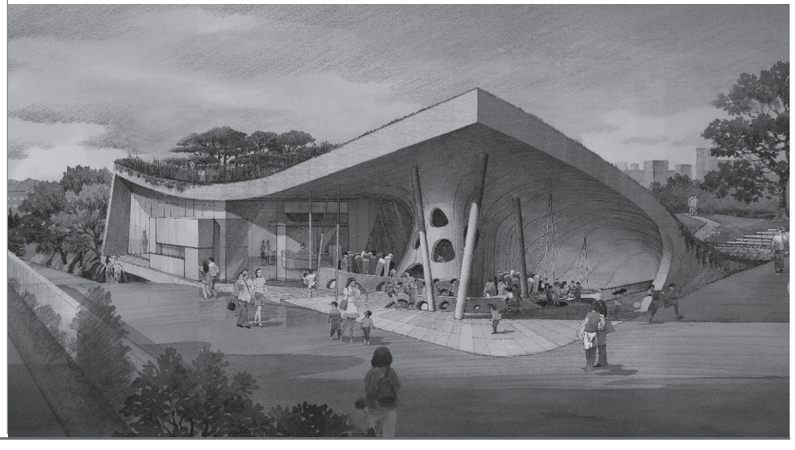
SEONNONGDAN History & Culture Par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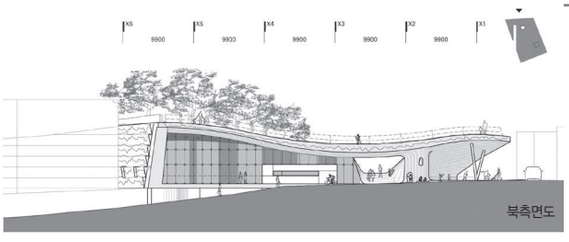
당선작 _ 노윤경 정회원 **· 한상범**
(주)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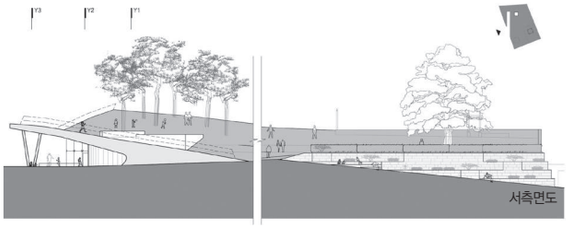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주요용도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3,933㎡
건축면적	0㎡ (지상층 없음)
연 면 적	1,662.26㎡
건 폐 율	0% (지상층 없음)
용 적 률	0% (지상층 없음)
규 모	지하 3층
발 주 처	동대문구청
설계담당	최제용, 김영진, 원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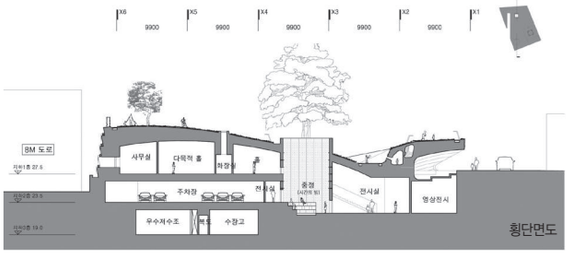
선농단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신농과 후직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이 담긴 신성한 장소이었다. 또한 왕이 직접 행차하여 제사를 지내고, 친경례를 함으로써 백성들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다.
현재 이곳은 일제 강점기와 60~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왜곡되어 도시의 한쪽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왔다.

제례공간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지상은 최대한 흙으로 덮어 원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함으로서 사적(史跡)지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선농단의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흙으로 덮여진 지하에는 농사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 건축적 공간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관람동선의 중앙에 위치한 '시간의 방'이라 이름 지어진 중정은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자연광을 끌어들이고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숨통'으로 작동되도록 하였으며, 중정 벽면에 설치된 아크릴봉은 24절기와 사계절과 동서남북의 방위를 상징하도록 하였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어지는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내부에서 느끼게 함으로서 농사짓는 행위가 시간을 다스리는 행위임을 암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놀이터는 들어 올려진 전시관 진입부 전면마당에 놓인 '상상의 계단'을 중심으로 곡물 바구니아지트, 수수숲 술래잡기, 숨박꼭질 줄기, 새싹쉼터, 씨앗 밟기 놀이 등의 시설물을 계획하여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농사에 관한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되는 선농단과 전시관, 어린이놀이터는 선농단 역사공원과 연계된 지역 커뮤니티시설로서 시민을 위한 열린 공공장소로서 새로이 탄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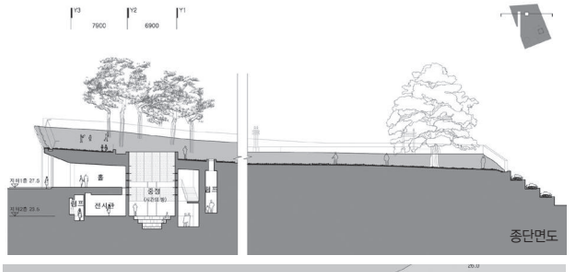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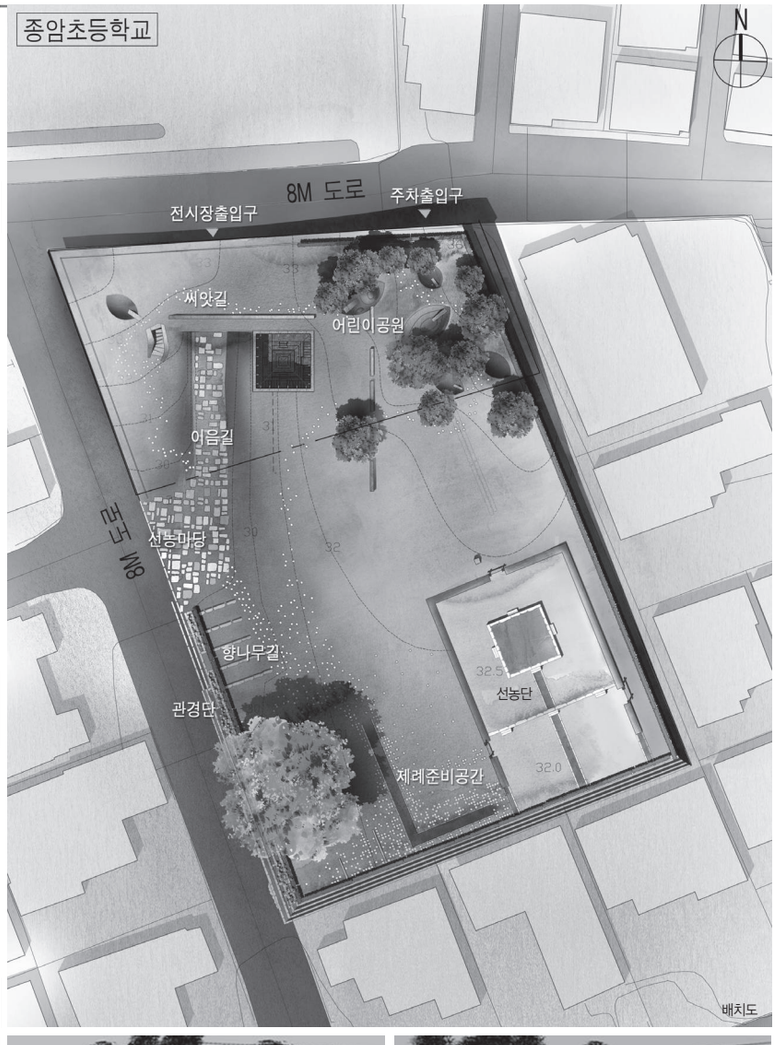

북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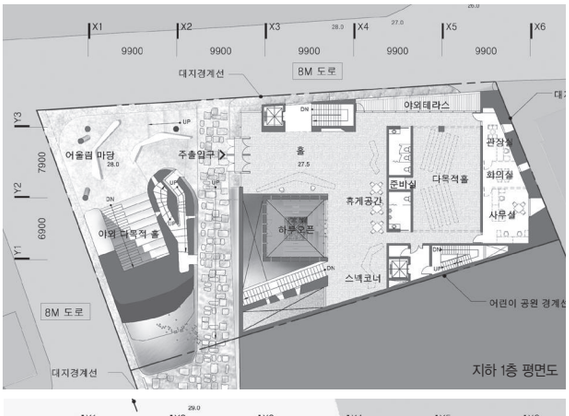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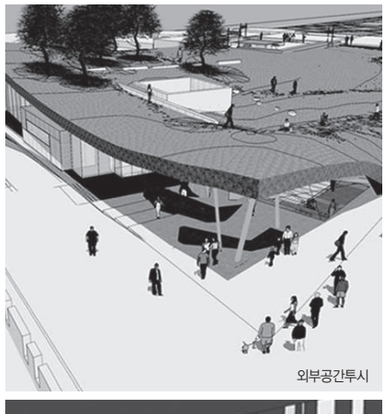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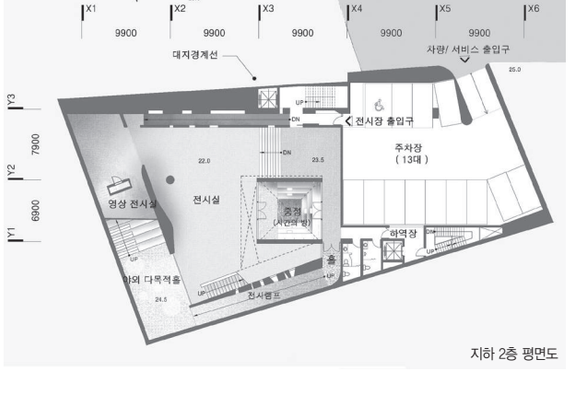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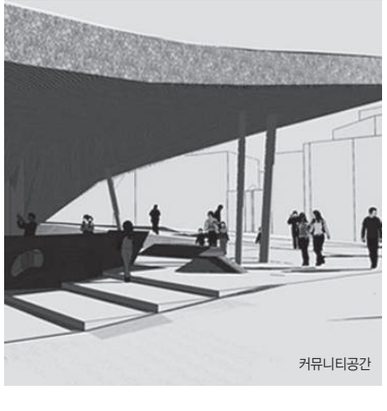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선농단 제례공간


외부공간투시



지하 2층 평면도


커뮤니티공간

전시관 내부공간

선농단 조감도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SEONNONGDAN History & Culture Park Museum

우수작 _ 장정훈 정회원
인동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74-1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주요용도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3,933㎡
건축면적	181.48㎡
연 면 적	1,530㎡
건 폐 율	4.61%
용 적 률	3.66%
규 모	지하 2층, 지상 1층
설계담당	신주희, 박보람(인동) 박명권, 최은경(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현상설계 지침에서 제시한 공모목적과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획안의 목적은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목적으로 선농단을 정비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전통 농경문화 전승의 장과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서 역사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왕이 선농제향을 지내는 의미는 풍년을 기원하여 그 풍요와 평화가 만백성에게 다가가기를 바라는 염원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본 계획안의 주안점은 「조선시대와 20세기초 식민사회 및 해방후의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농제향의 역사와 제단의 위치, 좁혀진 부지 등의 변형된 선농단의 원형을 재해석하여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현재의 우리시대에도 조화할 수 있는 역사공원과 어린이공원, 농경문화 전시관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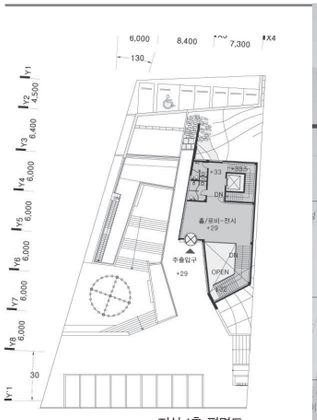
본 계획안의 계획 방향은 첫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만나는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을 위하여, 역사 유적으로 선농단의 형식을 고증하여 가능한 현재의 부지 조건하에 원형 회복을 시도하고 선농제향을 위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례공간과 행사에서 왕이 친경례할 수 있는 적전공간을 조성하고, 둘째,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서 역사 · 문화적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전통문화 · 놀이 체험공간 및 농경문화 전시공간을 계획 · 조성하고, 셋째, 농업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시풍속의 체험과 더불어 땅으로부터 얻은 생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 계획안은 도시로부터 역사공원으로 편리하게 다가가기와 주변과 적절한 관계 맺기를 의도한다. 접근 가능한 도로로부터는 경사진 높이 · 단 차이 등을 없애고 다양한 레벨에서 자연스럽게 역사공원과 전시관의 1층, 지하1,2층 등의 레벨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접한 주택지로부터는 수목에 의한 조경공간이 Buffer Zone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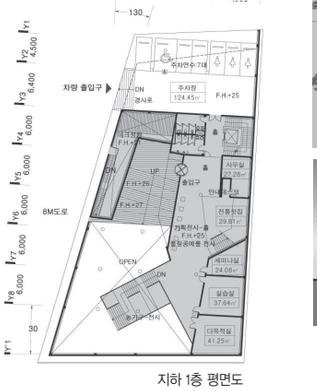
계획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본 계획안의 형상을 결정짓는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지침과 법규의 어린이공원 건폐율 5%(197㎡ 미만)를 지키는 것이었다. 경사진 대지를 고려하여도, 지표면 위 1m이상(지하층과 관계없음)의 부분은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을 지하에 계획할 수밖에 없고, 건물의 입면이 지상으로 거의 올라올 수 없었다. 지하의 공간에는 피난과 환기, 채광을 위하여 선큰 공간의 활용이 필요했다. 또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어린이공원 부지)의 면적이 1,239㎡로서 그 경계에서 구조적인 이유로 이격 후 남는 한 층의 최대 면적은 대략 1,000㎡ 이내로써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실제 이용가능한 면적은 600㎡ 내외로써 협소한 전시관이 되므로, 내부의 이용 가능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모으고, 상/하층 내부를 가능한 크게 OPEN하여야 어느 정도 전시와 커뮤니티가 가능한 규모(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의 넓이와 높이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건축면적(건폐율)이라는 크리티컬한 부분이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 계획의 중요한 변수이자 매우 고민했던 점으로 검토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당선작도 그렇게 했는가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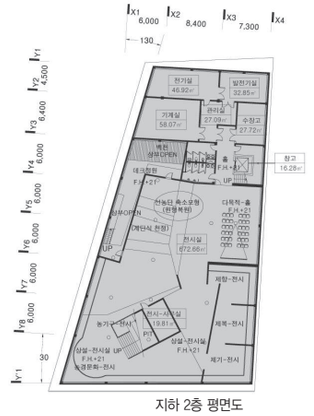
"그러므로 반드시 경계선을 샅샅이 답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자크 데리다, 「의미 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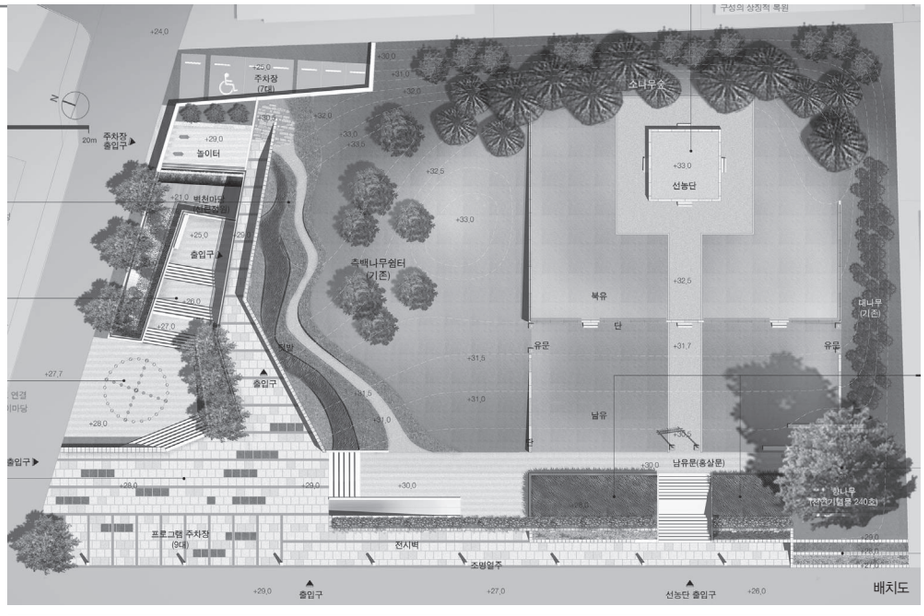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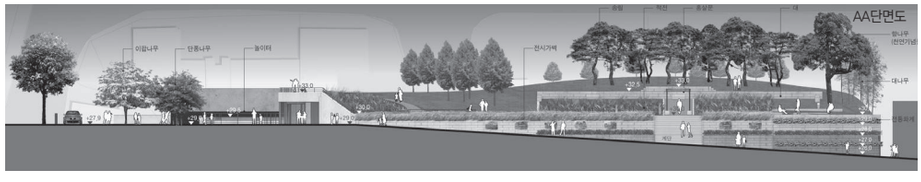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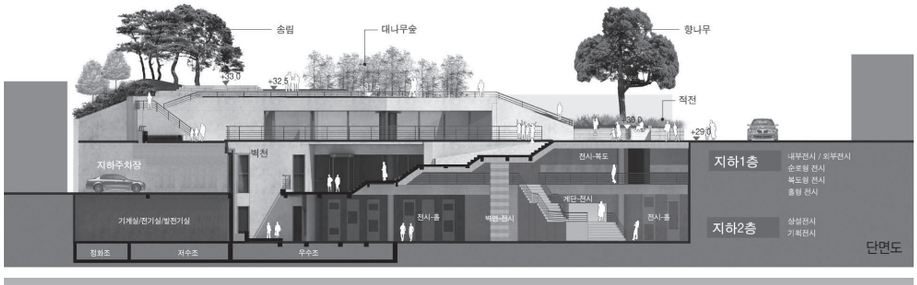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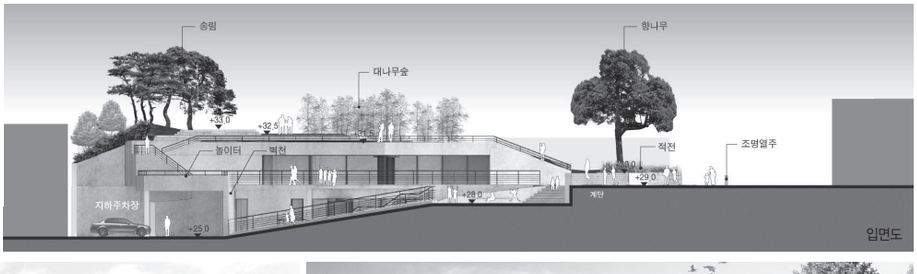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필자 : 서혜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교수
by Seo, Hye-ock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본 대학원 산업미술과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에서 영상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정책위원과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 인천시 디자인위원, 국토해양부 등 디자인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사)한국색채학회와 (사)커뮤니케이션 디자인협회 상임이사이며, (사)조형교육학회 학술연구 위원장과 (사)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부회장으로 학회와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부천시, 송파구, 중구 등 디자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콘텐츠&디자인연구소 소장이다.

목 차

1.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손장복**	동양대 교수
2. 미디어 파사드–건축과 조명의만남	**방선주**	숭실대 석사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김국선**	김포대 교수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야간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이지은**	홍익대 석사
5.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	**서혜옥**	중앙대 교수
6. 도시 빛환경과 조형성	**김영진**	이화여대 석사

색채는 생활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작용을 하며 문화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색채는 그 나라 민족과 정서에 대한 상징이고, 기호와 관습으로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내릴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을 표현하고 언어를 대신하기도 한다.

빛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을 열어주어 다양한 공간은 물론 이거니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준다. 영혼과도 같은 빛은 실체 없이도 존재하며 동시에 형태와 실체를 비춤으로써 아름다운 것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그들의 색채를 드러낸다. 빛은 색의 일부분으로서 색채는 빛에게 빛은 색채에게 광채를 준다.

빛과 조명은 어두움을 밝히지만 조명은 여러 요소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조명디자인으로 발전되고 조명디자인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환경디자인의 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색채와 그리고 환경디자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명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5.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

5. Lighting design accompanied by color

급속한 시대의 변화로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인공물인 도시의 공공디자인과 자연환경을 자연스러운 조화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연결고리로 우리들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되고 있다. 이처럼 색채는 도시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아름다움과 안전까지 보장해 주고, 조명디자인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환경에 의한 공공디자인으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발전되고 있다.

최근 도시 색채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로 조명으로 인한 공공디자인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색채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환경은 색채로 둘러 싸여있고 조명에 의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정보의 80%이상을 시각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색채는 시각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디자인 구성요소로 색채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인간은 색채에 의한 환경에서 정보를 얻게 되고 우리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회변화에 가장 민감한 작용을 하게 된다. 색채는 문화에 의한 민족성과 지역성 등의 변화에 의해 자연적인 영향과 인공적인 영향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게 하며 경제적 가치 상승의 효과로 삶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색채는 그 나라의 민족과 정서에 대한 상징이고, 기호와 관습으로 서로 다른 감성을 지니게 된다.

색채는 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의 구매환경도 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관심에서 소비자 개개인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개성이 높아짐으로 시장 환경도 디자인 중심으로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제품 개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색채로 인한 환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으로 인한 색채는 우리 인간에게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도시의 환경디자인은 조명디자인과 색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다' 라는 패러다임으로 조명디자인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건축물, 교량, 조형물, 시설물 등은 조명디자인의 색채에 의해서 다양한 이미지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색채는 새로움과 감정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간에게 기호로서, 또한 언어로서 내면의 모습을 수용하는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을 여유롭게 만들고 있다.

인간은 색이란 에너지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발견하면 매우 기뻐한다. 눈으로 색의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다. 색이란 언어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표현하는 말 없는 언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심리적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조명에 의한 다양한 색채도 단색 조명에 비해 도시 속에서의 또 다른 도시를 연출하고, 도시 속에서의 자연을 강조하고, 또한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테마를 연출하게 된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것도 조명디자인에서 오는 색채의 영향으로 조명디자인과 색채는 아름다움과 감성체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삶의 질적 향상으로 현대인들은 생활문화 다양성과 고급화로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명(Lighting)은 우리생활에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그 기술은 빛에 의해서 연출된다.

빛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을 열어 주어 다양한 공간까지 볼 수 있게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것도 빛이다. 우리는 빛을 볼 수도 있고, 빛을 생각할 수도 있다. 빛은 아침에 태어나서 확대되기 위하여 투쟁하고 정오가 되면 그 소유의 충만함에 도달한다. 그리고 곧 기울어져서 자취를 감춘다. 황혼의 다음에는 어둠이 오고 빛은 사라진다.

빛은 영혼과도 같다. 빛이 없다면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와 반대로 빛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실체 없이도 존

영국 타워브릿지의 야간 경관

재한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서, 그 형태와 실체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빛이 그것들을 비추어 주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반사해주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색채로 존재하는 것이다. 색채는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다. 색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언 해 준다. 빛은 정신의 표시이고 우리의 표시이다. 빛은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빛은 신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빛은 색의 일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다. 색채는 빛에 장식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일체가 되어 빛과 구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여기에는 상호 교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색채는 빛에게 빛은 색채에게 광채를 준다.(예술과 영혼, 르네위그)

빛은 인간에게 사물을 지각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시각적 매개체로 사물을 현상적인 무(無) 속으로 빠져드는 어둠의 교차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대립의 이미지를 시각적 차원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빛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으로 어둠에서 발하는 것이 빛이다. 빛과 조명은 단순히 어두움을 밝히지만 예술을 창조하는 요소로 기술, 과학, 예술의 복합적 영역으로 조명을 활용한 조명디자인으로 발전되고 조명은 자연조명과 인공조명으로 분류된다. 인공조명은 조절 가능한 빛의 의미로 우리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므로 공간에 빛이라는 매개수단을 이용하여 양적, 질적으로 효과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는 기술과 예술을 함께 의미한다. 조명에 의한 빛은 우리생활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에서부터 공간의 연출, 실내환경,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조명하면 우리 생활을 밝혀주는 것만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우리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조명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명디자인의 영역은 공간의 연출에 의한 다양성으로 문화와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문화와 예술은 물론이고 건축물과 교량,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명디자인으로 작품화 되고 있다. 우리주변을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조명이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 또한 조명디자인으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구현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도시들도 조명디자인과 컬러에 의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시설물디자인, 건축물디자인과 도시디자인까지 변화를 주고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야간 경관

이처럼 현대의 조명디자인은 단순히 주위를 밝게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 어느 공간과 시설을 돋보이게 하는 공간연출의 주요 요소로 발전되고 있다.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움 이외에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이미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발전되고 있다. 조명디자인의 발달은 쾌적한 조도를 형성해 주는 단순 매개체에서 부터 여러 산업분야에 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조명에 의한 환경디자인은 우리에게 시각적 감성을 주는 조형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현대 디자인 영역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도시공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생활공간과 공공환경에서 느끼는 편리함과 감성체험 등으로 인해서 쾌적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환경성 회복으로 아름다움 추구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최근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물리적인 기능을 넘어 심미적 기능도 강조되어 일상생활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연출로 색채에 대한 아름다움의 요소로 주어진 환경과 공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이것으로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무의식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시각적 미를 더해주며 정서적 효과와 분위기, 기능과 안전성 등으로 목적에 알맞은 조명디자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는 감성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에 의한 감성 시각 커뮤니케이션도 적용이 되고 있다. 시각은 오감 중에서 중요한 역할로 시각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색채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색으로 승부하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친환경적인 조명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색을 즐기고 색으로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문화는 색의 문화로 색에 대한 기호는 산업과 경제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억된다.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은 도시의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로움과 색채에서 느끼는 안락함 등이 우리 생활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색채에 의한 조명디자인으로 빛 그 자체만의 표현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변화에 맞는 색채를 구성하는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우리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고 감성적 만족감을 주는 조명디자인을 기대한다.

자연, 감성, 그리고 생태건축 이야기

The Story of Nature, Sensibility and Ecological Architecture

필자 : 정아영, 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전공 교수
by Jung, A-young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국립츠쿠바(筑波)대학교와 국립치바(千葉)대학교에서 '공간과 감성'에 관하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하세가와디자인연구소와 건우사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쌓았다.

현재 일본감성공학회, 일본디자인학회 정회원으로 학술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감성디자인연구원(http://ried.kr)에서 감성과 공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포럼과 학술발표 등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목 차

1.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감성
The New Perspective to the Nature = Sensibility

2. 감성과 공간디자인
Sensibility and Space Design

3. 감성의 생태건축에의 접근
The Approach to the Ecological Architecture of Sensibility

지식은 정신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정신에 있어서는 본능적인 직관의 과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철학자 칸트는, 이성은 지식을 창조하는 것으로, 상황을 이해하려면 과학과 같은 이성만이 아니라 과학과 무관하게 개인에 의해 창조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도 '내면의 목소리', 즉 인간감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감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며, 현대적인 의미의 생태건축은 이러한 인간감성의 이해를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실험적인 분야들과 함께 소통하여, 인간과 환경의 조화와 상생을 목표로 하는 미래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감성과 공간디자인

2. Sensitivity and Space Design

감성의 이해

감성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작용이며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으로, 오늘날 감성의 개념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감정, 정서, emotion, mood, affect, feeling 등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의가 가능하다. emotion은 생리적, 신체적, 인지적 반응 특성을 가지며, 보통 단시간의 강렬하고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mood는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mood는 emotion을 포괄하며, affect는 이들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개념이다.

국내연구에서 emotion을 감정보다는 감성이라는 용어로 혼재하여 사용하는 원인은, 동음이의어인 감정(憾情, 언짢게 여기는 마음, 원망하거나 속내는 마음을 뜻함)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감성의 개념을 외부로 표출되는 반응이 아닌 개별적이고 내부적인 상태의 반응특성으로 보았을 때 감성은 feeling개념과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정, 정서, emotion, mood, affect, feeling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감성, sensibility는 이러한 심리상태를 수용하는 성질, 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성은 마음의 움직임 발생이 외부로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심리상태보다는 인간내부에서 표출되는 심리상태에 가깝다.

인간의 감성이 논제로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742년 독일 철학자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 Baumgarten, 1714~1762)에 의해서이며, 이후 1921년 일본 철학자 테이유 아마노(Teiyu Amano, 1884~1980)가 번역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순수이성비판"에서 'Sinnlichkeit (cognito sensitiva)'를 '감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감성의 개념이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칸트의 철학에서 Sinnlichkeit는 인간이 실제 세계와 교류할 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심적 과정을 뜻하며, Sinnlichkeit를 포함한 감각적 경험만이 명백하게 실제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서의 감성에 대한 성찰은 Sinnlichkeit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성은 철학적, 심리학적 관심사이기도 했지만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회의와 함께 무의식과 감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서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문학과 예술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계되고 대중예술과 접목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감성이 인류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자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감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인간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긍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제품과 환경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능 중심의 디자인에서 더욱 발전한 개념으로 풍요로운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디자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래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인류에게, 인간감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절제되고 이성적인 것들로 여겨졌던 환경이 인간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조명되고, 인간을 위한 디자인 즉 감성디자인 개념으로서 환영받고 있다.

감성을 디자인하다

감성디자인 개념에서의 감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작용이며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을 뜻한다. 즉, 감성작용과 그 결과인 감성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감성디자인의 목표는 감성작용의 이해를 통하여 인공물에 대한 인간감성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성의 작용과 이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그 작용의 결과로서의 감성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감성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인공물과 사용자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개인적인 감성반응과 감성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자인은 인공물을 대상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지적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창조 행위이다. 디자인 목표는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자의 생리적 특징이나 신체적 특성을 비롯하여 심리적 특성, 사회적, 문화적 관계, 정신적 필요와 같은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은 사물의 외관을 통한 미적 체험과 사용을 위한 기능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제는 조형성, 기능성, 상징성이 총체적으로 사용자의 감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려하는 디자인결과물의 사용을 통해 사용자가 얻게 되는 감성적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감성디자인 분야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의 감성이해는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며, 제품이나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디자인 측면에서 지금은 초기 감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감성시대의 특성은 즉각적인 감각적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디자인된 제품이나 환경을 선호한다. 반면에 좀 더 성숙된 감성시대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정서적 욕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제품과 환경, 즉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롭고 깊은 감성반응을 일으키는 제품과 환경의 디자인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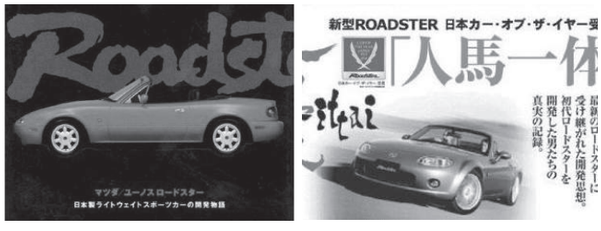
이러한 감성시대의 제품과 환경은 사용자의 필요를 위해 기본적인 기능이 충족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미지나 감성을 표현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감성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대개 감성은 이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감성디자인은 소비사회에서 개인의 감성을 중시한 디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감성디자인은 제품이나 환경의 일차적인 실용적 가치에서 벗어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디자인 접근방식이다. 즉 감성디자인은 사용자의 경험, 상상, 꿈 등으로부터 상징적 의미를 도출하여 제품과 환경의 디자인요소에 부여함으로서 사용자에게 만족을 주는 감성반응을 얻으려고 한다. 1970년대 이후 디자인분야에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 가운데 감성디자인은 사용자에게 긍정적 감성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디자인으로서 디자인결과의 평가를 위한 기준일 뿐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결과를 창조해내는 디자인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오늘날 감성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개인의 감성을 중요시 하는 감성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서 보았던 시각으로부터 인간을 이성과 감성이 통합된 인격체로서 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오던 감성의 중요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감성과 과학의 만남

나카마치(Mitsuo Nagamachi)는 감성공학을 인간의 감성이미지를 물리적인 디자인요소로 재해석하여 감성적인 상품을 설계하는 테크놀러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감성공학이란 사용자의 감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디자인에 인간의 특성과 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학기술로서 인간 중심의 설계이며 개인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복합적인 감성을 과학적 측면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제품이나 환경을 그에 맞게 안락하며 쾌적하게 개발하려는 감성연구의 하나이다.



MAZUDA (Eunos Roadster(Miata), 1989)

이렇듯 감성공학은 소비자의 요구와 특성을 과학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이를 디자인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함으로 인간 삶의 윤택함을 추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감성공학의 연구결과는 사용자의 감성 뿐 아니라 감성을 물리적 요소로 구체화하여, 그 결과를 적용해서 사용자에게 긍정적 감성반응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감성공학은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용자의 감성의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반면, 감성디자인은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심리 내부에 존재하는 감성을 디자인요소의 속성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성공학과 디자인

1940년대 미국에서는 인간공학(Ergonomics) 연구의 한 분야로서 감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감성이라는 용어가 디자인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감성공학을 창시한 미츠오 나가마치(Mitsuo Nagamachi) 교수와 1986년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행한 제품설명회에서 처음으로 '감성공학'이란 용어를 사용한 마쯔다자동차 케니치 야마모토(Kenichi Yamamoto)사장 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진행된 제품분야 중심의 사용자 감성 적용 디자인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감성공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후 감성공학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많은 디자인프로젝트들이 국제적으로 성공을 얻게 됨으로써 이에 따라 감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산업 및 상업분야에서 감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탐구가 있었다.

마쯔다(Mazda), 샤프(Sharp), 와콜(Wacoal)과 같은 대기업들의 감성공학을 적용한 제품의 세계적인 성공은 연구와 실무의 지속적인 협동이 이루어낸 결과로, 1988년에는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인간공학학회에서 '감성공학(Kansei Engineering)'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일본 츠쿠바대학에서 시작된 감성평가구조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경험, 행위, 의사소통, 창조성, 예술 등 인간의 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로 감성공학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1999년 네덜란드 델프트(Delft)에서는 '디자인과 감성'을 주제로 1980년대 전후 제품디자인분야에서 나타난 디자인 감성화 추세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감성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현재 감성연구는 뇌와 감성, 감성철학 등 감성정보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 더욱 활발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감성공학이 국내에 소개된 199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 되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공학연구실의 설립을 계기로, 표준과학연구원 특성화 사업, 가전제품, 자동차, 컴퓨터, 건축디자인 등 분야에서 감성연구와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감성디자인은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디자인방법이라는 의미로 제품디자인분야 뿐 만 아니라 공간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을 비롯하여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최적설계

Sustainable Optimum Design by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Efficiency

필자 : 우지환, (주)엑스퍼트벤처 건축사사무소
by Woo, Jee-hwan, KIRA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1992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법인 설립 이후 건축사로서 현재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주)엑스퍼트벤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같은 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공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정부지정 법원감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초고층복합화사업 심의위원, 대한민국법원행정처 법원전문심리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저작권T/F 위원, 서울시 성동구청 도시분쟁조정위원, 부천시청 외부전문가감사위원,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연구센터 겸임 연구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친환경을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목 차

1. 전과정 평가와 최적설계 시스템
Life Cycle Assesment & Optimum Design System

2. 공동주택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시스템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System of Apartment House Life Cycle

3.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the Program for Sustainable Building Optimum Design

4. 환경부하 및 경제성의 친환경 최적설계
Sustainable Optimum Design of Environmental & Economical Efficient

우리가 과거 인식해온 지구 온난화는 단순한 자연의 섭리와 우발적 기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한시 해 왔으나, 오늘날의 온난화는 계속되는 과학자들과 학자들에 의한 기상과 기후변화의 지속적 연구 결과와 더욱 표면화 되며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 현상 등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재산은 물론이요 생명의 위협을 넘어 하나뿐인 지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 위험을 알리는 경종은 대단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우리에 의한 일련의 건축행위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들게 한다.

이와 같은 지구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의 해결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에 공동주택의 전생 애 주기에 관한 환경부하의 저감과 이를 위해 수반되는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최적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동주택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시스템

2. Environmental Efficiency Evaluation System of Apartment House Life Cycle

서론

건설 산업은 국내 GDP의 17%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체 재료 소비의 약 48%, 에너지 소비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대량 소비 산업임과 동시에 모든 CO_2 배출량의 42%, 전 산업폐기물의 30%, 불법 폐기물의 60%를 발생하는 환경저해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에너지의 22%가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생애 비용의 경우 16%가 건설단계에서 사용되며 83%가 유지관리단계에서 사용되고 0.4%가 해체 및 폐기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건설 산업이 처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건축물 전생애를 통하여 사용되는 에너지로 인한 CO_2 발생량 저감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적 동향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분야 연구자와 실무자들은 환경부하 감축의 핵심요소인 온실가스로 인한 CO_2(Carbon Dioxide) 저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불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경종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CO_2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 건축물의 생애 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친 CO_2 저감 기술이 앞을 다투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환경 선진국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에서는 건축물 전생애 CO_2 평가 프로그램(Life Cycle Assessment Design Aid : LCADA)을 개발해 이를 건축물 탄소량 총량제도(Building Sustainability Index : BASIX)에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전생애 CO_2량을 산출해 환경부하를 평가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 CASBEE)의 새로운 버전을 2008년 8월 개발한 상태다. 이 외에도 영국의 ENVEST, 프랑스의 EQUER, 핀란드의 BeCost, 독일의 LEGEP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CO_2 평가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 측에서 대형 건설 회사들이 회사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물 CO_2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축물의 생애 주기 CO_2를 평가 및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에서는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그린홈인증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 단계로 환경부하를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CO_2 평가 내용이 배제되어 있거나 건축물 운영단계의 에너지 사용량만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전생애 주기의 평가

건축물의 전생애(Life Cycle)는 건설단계, 운영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로 나누어진다. 국내 여러 학술 관련 단체에서는 대부분이 CO_2의 정량적 평가가 용이한 운영단계의 에너지 소비량만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전생애 단계 중 건설단계, 운용 및 유지관리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에서의 CO_2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 수준의 검토가 미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전생애 단계 중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건축행위의 종합적 평가에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없음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과 함께 국제적인 연구 흐름에 편승하기 위하여 운영단계는 물론 설계단계, 건설단계와 해체 및 폐기단계를 포함한 전생애 단계에 대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건축물의 전생애 중 대부분이 CO_2의 정량적인 평가가 용이한 운영단계의 에너지 소비량만을 평가하는 연구와는 달리 설계단계, 건설단계, 운용 및 유지관리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에서의 CO_2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적설계를 위한 기술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전생애 주기 평가시스템 구축

생애주기의 세부적 단계에서 설계단계, 건설단계의 건설자재 생산단계 및 시공단계와 운용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량적 산출을 통한 환경비용의 도출, 신축 건축

물의 초기 공사비 상승 및 비용편익에 대한 분기점의 확인 등 최적해를 통한 건축물의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 구축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하여 모델을 선정하고 설계단계의 수량 산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건설단계의 경우 건축자재 생산단계, 운송단계, 시공단계의 평가 시스템의 구축, 운용 및 유지관리단계 그리고 해체 및 폐기단계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건축물의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은, 각 단계별로 구축된 평가 시스템과 친환경 요소 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내용을 기준으로 최적설계 시스템의 이해와 최적설계 프로그램의 구성 및 프로그램의 로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프로그램

개요

건축물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에 의한 그린홈 관련 평가기준주택 모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을 통하여 설계될 수 있는 제반 대안을 설정하고 설정된 대안별로 세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주택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생애 각 단계별 각종 환경부하 항목을 기준으로 환경성능을 분석하게 된다. 이어 건축물의 전생애(Life Cycle) 주기 동안의 각 단계별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의한 환경부하(CO_2 배출량) 및 경제성(초기 투자비율)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대상 건축물의 선정

공동주택으로 선정한 모델은 현재 국가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그린홈 관련 평가기준주택으로 현재 주로 설계되고 있는 36㎡~125㎡까지의 공동주택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 평면을 선정하고 평면형식, 평형별 면적, 주호의 조합, 주동의 조합, 층고, 층수, 구조형식, 콘크리트 강도 등 세부 기준의 건축개요를 설정하였다.

단계별 환경부하 평가시스템 구축

1) 대표 자재의 선정

건설단계의 공종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경우 건축공사에서 약 85.3%가 배출되고, 설비공사의 경우 약 12.0% 배출되며, 토목공사에서 약 2.7%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건축공사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주요 건설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공동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 6개 항목(철근, 레미콘, 합판, 콘크리트제품,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도료)을 대표자재로 선정하고 선정된 자재를 주요 환경부하 인자로 결정하였다.

표1. 공동주택의 대표자재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

대 표 자 재	CO2 발생량
철 근	42.40 %
레 미 콘	23.70 %
합 판	4.00 %
콘크리트제품	3.50 %
플라스틱제품	3.40 %
도 료	3.10 %
합 계	80.08 %

2) 설계단계

(1) 물량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동주택의 건축개요를 기준으로 36㎡(10.89형), 46㎡(13.91형), 59㎡(17.85형), 84㎡(25.40형), 125㎡(37.81형) 등 5개의 평면형식으로 2호조합 판상형, 4호조합 판상형, 4호조합 탑상형 등 3개 형식의 주호를 조합하여 주동형태를 구성하고 15층에서 20층까지 총 6개의 층수를 갖는 건축물의 각 동에 대하여 총 90가지의 변수로 도출된 내용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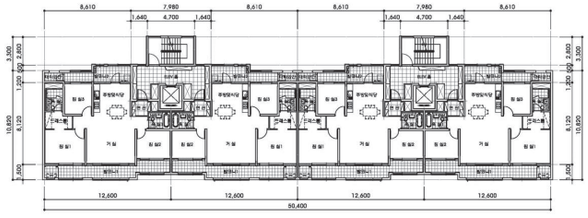


그림1. 84㎡ (25.40형) 판상형 4호조합 단위세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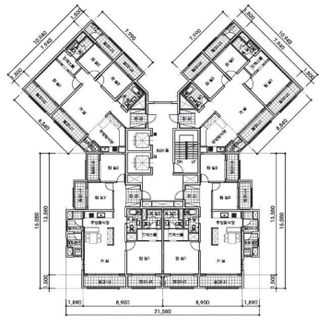


그림2. 84㎡ (25.40형) 탑상형 4호조합 단위세대 평면

작성된 제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부속자재(66개)를 포함한 대표자재(6개)의 수량을 산출하여 공동주택의 규모선정 및 평가 시 최소한의 입력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물량산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 대표자재 원단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단위 분석방식은 개별적산법, 산업연관분석방식, 혼합분석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식인 개별적산방식과 산업연관분석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혼합분석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재인 콘크리트에 대한 원단위는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개별적산방식에 의한 국가 LCI DB를 적용하였으며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개별적산방식에 의한 적용이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움이 있어 자체 연구의 결과로 도출한 원단위를 적용하였다. 또한 기타 주요 자재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제시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였으나 산업연관방식의 연도별 차이로 인한 원단위 수치가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동일 연도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최근 자료인 2003년도 산업연관분석 자료를 적용하였다.

표2. 원단위 분석방식의 장단점

원단위 분석방식	장 점	단 점
개별적산방식	결과의 정확성이 우수	분석대상 범위가 좁음
	각 공종별 분석 가능	구축비용이 큼
산업연관분석방식	분석대상 범위가 넓음	결과의 정확성이 낮음
	구축비용 및 시간이 적음	산업구조의 단순·평균화
혼합분석방식	결과의 정확성이 우수	구축비용 큼
	분석대상 범위가 넓음	구축 소요시간이 큼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산출하는 척도인 주요 자재에 해당하는 각 분석방식별 원단위의 적용은 일률적이며 고정된 방식의 적용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과 선별 적용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인 혼합방식에 의해 선택 적용을 통한 원단위의 적용이 보다 정량적인 환경부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건설단계

자재의 생산, 자재의 운송, 현장시공 등으로 구분되는 건설단계는 자재 생산단계의 경우 건설단계의 공종별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 건축공사에서 약 85.3%가 발생되는 주요 자재를 대표자재로 선정하고 공동주택의 각 조건별 대안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의 대표자재 물량을 자동물량 산출시스템에 의해 산출하여 혼합방식에 의해 구축된 원단위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여 환경부하량을 도출한다.

자재 운송단계에서의 CO_2 발생량은 건축물 시공 시 사용되는 대표자재를 자재 저장장소에서 건설현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화물 자동차의 유류 소비량을 기준으로 각 대표자재별 저장장소에서 현장까지의 거리, 운송 화물차량의 종류 및 표준연비, 운송차량의 대수 등의 결정은 2009년 건설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실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자재별 운송차량을 조사하고 공사현장의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운반 차량별 적재용량 및 차량의 표준연비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여 건축자재 운송단계의 CO_2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건축현장 시공단계에서는 배출되는 CO_2 발생량의 산출은 건축물 시공을 하기 위하여 연구자료인 현장 각 지구별 예산내역서 데이터에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각 에너지별 평균 사용량을 산출하고 지구별 예산내역서 및 일위대가를 적용한 유류 29개 공구, 전력 36개 공구 총 65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공단계에서의 연면적에 따른 각 에너지별 평균 사용량 산출식의 도출에 의해 시공단계의 CO_2 발생량에 대한 정량적 산출이 가능하다.

4) 운용 및 유지관리단계

운용단계는 건축물의 수명 동안 건축물 사용에 따른 유류, 전력, 도시가스 등 총 에너지 사용량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에너지 사용에 관한 실측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단순입력 산출방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와 그린홈 인증제도 등 Checklist 형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운용단계에서는 건물 에너지성능지표점수(EPI) 상승에 따른 건물에너지 저감량과 CO_2 방출저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항목별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도출하고 CO_2 저감량 분석을 위해 EPI 점수와 에너지저감에 따른 CO_2 발생량을 산출한다. 유지관리단계는 건축물의 생애기간 동안의 건축자재의 열화, 파손, 훼손에 대한 수선 및 교체에 따른 물량 증가량으로 환경부하량을 평가할 수 있으며, 건축물 장기수선 계획 및 수선율을 근거로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르타르 및 페인트 제품에 대한 물량 내역에 각 부위별 사용비율의 분석에 의해 CO_2 발생량을 산출한다.

5) 해체 및 폐기단계

건축물의 해체 및 폐기단계는 건축물 수명이 끝나 구조물이 해체되

고 건축폐기물이 발생되어 처리되는 단계를 뜻하며 크게 건축물 해체 단계, 폐기물 운송단계, 폐기물 처리 및 매립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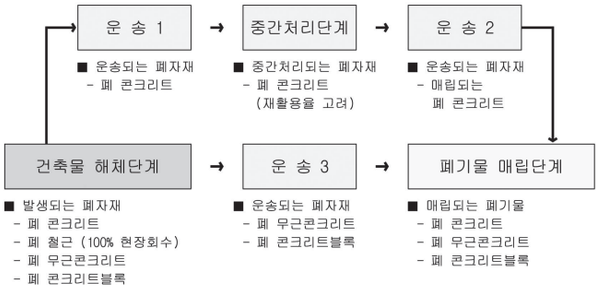


그림3. 건축물 해체 및 폐기 과정

(1) 해체단계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날로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형 기계식 해체 또는 발파해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체 장비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는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류 사용량이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량이라 할 수 있다. 해체장비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는 장비의 연료소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해체공사 시 이용되는 장비의 에너지 소모량은 각 현장마다 이용되는 장비의 규모, 노후정도 그리고 운전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장비의 각 제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별 작업효율과 시간당 연료 소비량에 의해 해체장비의 작업량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건설 표준품셈 및 연구 자료의 활용으로 연료 소비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각 장비별 시간당 작업량과 시간당 장비별 연료 소비량을 산출하고 해체 단위 물량당 소요되는 에너지 소요량을 해체장비의 조합별 연료 소비량으로 변환된 값을 도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따른 적용 장비의 선택 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장비 조합의 선택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유효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다.

(2) 폐기단계

폐기물 운송단계

폐기물 운송단계의 에너지 소비량 및 CO_2 발생량은 앞서 건축물 해체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지 또는 중간 처리지로 운송하는 차량의 유류 소비량으로 한정하고 폐기물의 양과 화물 자동차의 종류, 매립지 및 중간처리 장소까지의 거리 등을 적용하여 건축자재 운송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CO_2 발생량을 산출한다.

폐기물 처리 및 매립단계

폐기물 처리과정은 발생된 폐자재를 처리하는 최종단계로 중간처리 단계를 거쳐 크게 재활용, 매립, 소각부분으로 구분되며 상대적으로 비율이 2% 정도로 낮은 소각부분은 제외한다. 중간처리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된 폐자재의 파쇄 및 선별작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폐콘크리트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이 단계는 매립과정과 연계되어 수행되는 작업으로 폐콘크리트의 재활용률을 고려하여 CO_2 발생량을 산출한다. 매립단계에서는 건축물 해체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 중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단계로 매립 장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발생된 무근콘크리트와 콘크리트블록, 중간처리단계에서 분류된 폐콘크리트의 매립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을 산정하고, 매립 시 사용되는 장비인 Dozer 및 Compacter의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CO_2 발생량을 산출한다.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의 서울 유치

Hosting UIA 2017 SEOUL

들어가는 말

2011년을 마무리 하면서 금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중의 하나였으며 국제위원회의 2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인 UIA 2017 SEOUL의 유치 과정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국제위원회의 이근창 자문위원, 심재호 자문위원(전 UIA이사), 신춘규 국제담당이사, 김성민 위원장의 생생한 기록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구성해 본다.

UIA에 대하여

UIA의 위상 및 구성

심재호_ UIA(국제건축사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는 1948년 스위스 로잔에서 27개국이 모여 첫 번째 세계건축대회의 개최와 더불어 태동되었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24회의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여 왔다. 2017년이면 아시아에서는 베이징, 도쿄에 이어 세 번째로 당당히 서울에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총회를 열게 된 것이다.

UIA의 정관(Articles and Bylaws)에도 나와 있듯이 UIA의 설립취지는 국가, 인종, 그리고 종교에 대한 편견 없이 세계의 건축사들을 연합하여 각국의 건축단체의 연방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세계 124개국의 건축사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약 130만 명의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어 언필칭 건축계의 UN이라 할 수 있다.

UIA는 전 세계를 5개 권역(Region)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한국이 속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주를 제 4지역으로 하여 19개국의 회원단체가 있고 그중에 18개국이 아카시아 회원국이다. 각 지역에서 4명씩의 이사를 선출하게 되어 전부 20명의 이사로 이사회(Council)가 구성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김수근 선생, 조재원 선생에 이어 조성중 박사가 이사직을 역임하였고, 필자는 2008년 이탈리아 토리노 총회에서 선출되어 금년 도쿄대회까지 이사직을 수행하였다. 본인에 이어 다시 한종률 이사가 이사직을 승계하게 되었으니 20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한국이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의 의의

심재호_ 서울 유치 PT에서도 발표했듯이 한국은 이미 9년 간격으로 그동안 2차례를 총회유치를 시도하여 실패를 한 바 있다. 이번의 유치시도는 "The Third Time's Charm"(삼세번의 행운)을 기원한다는 김종성 유치위원장의 위트 있는 발표의 말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유치의 열망과 절실함을 반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열망이 결실을 거두게 되고 이제 2017년 서울에서 UIA총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 건축계의 위상이 한 단계 격상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건축문화와 역사를 심도 깊게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분열된 건축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 충분하다. 더욱이 지난 2년간 건축 3단체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유치의 쾌거를 이룩한 일을 보면 이제 건축계의 통합이 성큼 앞으로 다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약 10여 일간의 세계건축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겠으나, 이를 위해 앞으로 6년간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건축계가 해야 할 노력과 이에 따른 부산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베이징, 도쿄와는 다르게 차별화되고 고유한 우리의 역사, 문화, 전통과 같이하는 건축문화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발표한 주제가 "Soul of City"가 아닌가? 지난 600여 년 동안 "도시의 혼"(Genesis Loci)을 지켜온 서울에서 세계건축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다.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를 위한 시작

한국의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 역사

신춘규_ 한국의 UIA 세계건축대회의 유치를 위한 노력은 3회에 걸쳐 이루어져왔으나 그 역사는 그렇게 내세울 것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한국은 1993년 시카고와 2002년 베를린에서 두 번에 걸쳐 9년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한국건축가협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시카고에서는 서울을 유치도시로 베를린에서는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건 없건 간에 철저한 준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즉흥적인 도전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세 번 다 아시아 도시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93년 시카고에서는 북경과 경합, 2002년 베를린에서는 도쿄와 경합 그리고 이번에는 싱가포르와 경합을 하게 됨으로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베를린에서 우리 때문에 석패를 한 도쿄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이번 서울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꺼려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아무튼 싱가포르가 2008년 UIA 토리노 세계건축대회에서 남아공의 더반에 단 1표차로 석패한 후 이번에도 도전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울유치를 위한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는 부산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2002년 UIA 베를린 세계건축대회에서 실패한 후 2008년 아카시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11년 도쿄대회에서 2017년 유치를 위해 다시 싱가포르와 경쟁하겠다고 2009년 몽고에서 개최된 아카시아대회에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당시의 최영집 회장께서 두 가지 사안을 걱정했다. 하나는 또 다시 아시아 도시와 경쟁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유치해야 한다면 부산이 적절한가하는 것이었다. 꼭 한국이 UIA 세계건축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면 부산이외의 도시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한다는 생각이었다. 서울에 돌아온 회장께서 서울시 관계자와 만나 의사를 타진하던 중 서울의 강한 의지를 알게 되었고 부산과의 타협으로 서울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다.

유치위원회의 발족

신춘규_ 2017년 세계건축대회의 서울유치를 확정하고 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열악한 건축계의 현실을 안고가야 하는 사정 때문에 재정의 많은 부분을 시에 의지하려는 건축계와 건축인의 행사로 건축계가 앞서야 하는 마당에 시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인식 차이는 시작부터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서울시는 건축계도 당연히 예산의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건축계는 유치위원들이 그동안의 축적된 활동을 바탕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각 자 사무실의 운영에서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비록 자문비 수준 정도를 요구 한 것이었지만)을 요구했으나 시의 강한 거절에 정말 봉사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FIKA 회장이었던 최영집 회장과 서울시의 이건기 국장의 추진력은 2010년 10월4일 '건축의 날' 행사장인 국립박물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울시와 FIKA 간의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유치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유치제안서 제출

심재호_ 유치제안서(Bid Proposal)를 제출한 것은 마감 하루 전인 작년 12월 16일이었다. 제안서 최종인쇄를 마치고 16일 특급우편으로 발송한 뒤 UIA본부가 있는 파리행 대한항공 편에 탑승하였다. 옆자리에는 지난 70여 일 동안 작성과정에서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조성중 UIA 전임이사가 동승하였다. 제안서를 제출하는 국가에서는 파리 UIA 본부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제안서를 개봉하고 제출요건과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UIA회장의 입회하에 사무총장이 확인하는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싱가포르와 멕시코시티가 제출할 것은 쉽게 예견하였지만 캐나다 몬트리올이 제출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30여일간 내용검토를 거쳐 2011년 1월 베이루트 이사회에서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국 몬트리올은 캐나다건축사협회 본회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되어 탈락하게 되었다. 3개 도시에서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한 내용을 발표한데 이어 Jordi Farrando사무총장은 서울의 제안서의 내용이 타 도시와는 다르게 요건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은연중에 강조해 주었다. 필자는 Jordi 사무총장의 꼼꼼함을 알고 있었던 터라 제안서작성요건을 5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작성토록 계획

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유치제안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 말경부터이다.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지만 시작도 못하고 유치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필자는 당시 현역 UIA이사라는 이점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제안서작성에 참여할 것을 자원하였고 서울시에 시일이 급박함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그마나 제출마감 60여일을 앞두고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덕(?)에 필자는 제안서작성을 위한 TF팀 팀장으로 선임되었다. 제안서 내용 중 행사테마는 이정만 위원, 이세영 위원이 담당하기로 하고 예산은 임재용 위원, 행사는 국제행사 대행기획업체인 MECI가 합류하여 60여 일간의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최종마감 제출을 며칠 앞두고 건축 3단체장과 임원들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한 최종브리핑을 하였다. 예산의 규모, 등록비, 학생에 대한 배려내용, 행사시 UIA회원국에게 주어질 편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개발도상국 학생 300명에 대한 무상 등록비, 무상 숙박, 숙식에 대한 내용은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번 도쿄 PT에서 타 도시와 차별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최종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하였다.

UIA 2017 SEOUL을 위한 유치활동

유치활동과 유치위원회

이근창_ 유치준비위원회가 FIKA 국제 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10여 차례 진행되고 큰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와 주제를 정하고 수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일 등에서 서로의 입장과 관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건축계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회와의 예산편성은 각고 끝에 서울시가 3/4, 건축계가 1/4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첨예한 의견충돌이 점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활동이 탄력을 받았다. 집행위원이 구성되었고 매주 조찬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접촉하고 참석해야 할 국제회의의 목록이 작성되고 담당자가 선정되고 예산을 배정하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집행위원장은 건축계를 대표하여 오랫동안 UIA 활동에 관여한 조성중 박사와 서울시 이건기 주택국장의 쌍두마차로 하였다. 전반적 활동은 조 박사가, 예산의 지출은 이 국장이 하기로 한 것이다. 조직위원장은 각 단체의 전임회장과 존경 받는 건축계 인사가 추천되었으나 각 단체로부터 자유스러운 김종성 박사를 추대하였다. 위원으로는 가협회 한종률 위원, 학회 이정만 위원, 사협회 이근창으로 하고 현 UIA이사인 심재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 권창주 과장, 진경식 팀장, 장병혁 주무관이 수고하기로 하였다.

UIA지역을 위원 별로 나누어 담당하기로 하고 본인은 4지역과 올대회 개최지인 일본을 담당하게 되었다. 첫 업무는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ARCASIA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결정이 단순한 도시국가이기에 출마를 포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건기 국장과 당일치기 출장을 통해 싱가포르협회와 정부기관 담당을 만나 협상하였으나 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페어플레이하여 서로의 건축계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로 하기로 합의하고 포기시키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그러나 이는 후발주자의 예의로 충분하였고 같은 지역 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방문의 의미가 있었다. 특히 4지역에서 활동을 자유스럽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다양하게 개최되는 국제회의와 주요국가의 총회에 담당 위원들이 참석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UIA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AIA 총회, 멕시코 총회, 남미지역 총회, 아프리카연합회 총회, UIA 제1지역 및 제2지역 총회, ARCASIA 총회 등에서의 활동이 큰 결실을 맺는 주춧돌이 되었다. 더불어 국내에서 UIA 사무총장인 Jordi Farrando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지원을 확인 받기도 하였다. 매번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준비한 동영상과 팜플렛, 선물 준비는 집행위원의 땀과 노고가 묻어나는 작업이었다.

2010년 12월 심재호 UIA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공식제안서가 UIA 본부에 제출되고 곧이어 사무총장이 직접 분석한 신청국의 비교표가 전달되면서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되었고 우리의 강점인 저렴한 등록비, 개발도상국 학생의 혜택, 정부의 적극적 지원, 문화 유산의 보전, 괄목할만한 성장, 세계적 관심사인 지속가능한 개발, 아시아권의 또 다른 가치 등을 강조하여 전략을 펼치기로 하였다. 뉴스레터를 만들어 각 국의 회장과 영향력 있는 인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게 되고 김종성 유치위원장의 간곡한 지원요청 편지가 회원국 협회에 보내졌다. 서울시는 지지서한을 작성하여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각 회원국 대사관에서의 활동내용과 접촉 결과들이 속속 접수되면서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미국건축사협회 컨벤션에서 초청만찬 개최

각 지역에서의 유치활동

북미지역 유치활동

신춘규_ 우리 협회의 유치 활동은 그동안의 오랜 동안 지속되어온 국제활동에 맞는 아카시아 국가와 북미로의 초점을 갖게 된다. 금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미국건축사협회의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건축가협회의 유치위원들과 연합하여 미국 대표단을 포함한 각 국 대표에 대한 유치홍보를 펼쳤다. 이 행사에는 아카시아 회장과 중남미 건축단체장, 그리고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및 멕시코 등의 단체장이 대거 참석을 해 아주 중요한 홍보의 장이라고 생각했다. 가협회에서 매년 개최해온 '한국의 날' 행사를 유치홍보의 피크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각국의 단체장 및 건축계 인사들이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해간 자료를 갖고 체계적인 홍보를 한 결과는 만족스러울 만 했다.

중남미지역 유치활동

김성민_ UIA 유치를 결정한 이후인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당시 FIKA회장이었던 최영집 회장이 이상림 한국건축가협회장 및 스페인에서 수학한 김희곤 건축사와 함께 2010년 멕시코건축사대회와 제2차 기후변화오픈포럼에 참석하여 중남미와의 교류 및 유치활동의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등에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멕시코건축사협회(FCARM)의 리산드로 회장의 초청으로 11월 26일에 셀라야시티에서 열린 멕시코건축사대회에 참석하여 프레지덴셜 메달과 명예회원증을 수상하고 곧이어 29일부터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 제2차 기후변화오픈포럼(II Open Forum COP-16, The 16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건축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국제회의에서 특별 강연자로서 "탄소중립도시모델"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아카시아 포럼에서 각국 대표단과 오찬

이를 계기로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와의 접촉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2011년 2월의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 멕시코건축사협회 리산드로 전임회장이 참석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멕시코건축사협회가 건축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멕시코시티와 UIA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지만 멕시코의 의중을 듣고 유치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3개 도시의 투표가 2차까지 갈 것을 예상하여 1차에서 멕시코시티가 탈락하게 되면 멕시코시티를 지지했던 중남미 국가들이 서울을 지지하도록 미리 요청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아시아지역 유치활동

신춘규_ 오랫동안 아카시아회원국으로 활동해온 우리 협회로서는 표밭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되어 더 초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싱가포르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아카시아 회원국의 눈치는 우리를 긴장하게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몽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지지약속을 하고, 이어 서남아시아 회원국의 협조와 지지약속이 구체화되며 조금씩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 협회가 오랫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아카시아포럼이 금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의 다낭에서 개최되어 우리 사협회의 대표단 외에 여러 유치위원이 포럼기간 동안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대회에는 유치위원장인 김종성 교수가 참석하여 유치활동에 힘을 보탰다. '우정의 밤'에 미리 준비해간 유치위원회 티셔츠를 베트남학생들과 나누어 입고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강성익 회장의 하모니카 반주에 맞춰 합창을 한 것은 상당한 홍보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강성익 회장이 베트남건축사협회의 회장 등을 만나 협상을 한 결과 베트남의 지지를 약속을 받았고 유치위원들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몽고, 필리핀 및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대표단으로부터 서울 지지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약 75표 중 50표 이상을 얻어내는 성과를 걷었다고 볼 수 있다. 약간 서운했던 것은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온 일본이 베를린에서의 역사를 거론하며 적극적인 지지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점이었다.

우리 사협회와 MOU를 체결하며 친분을 다져온 태국의 경우는 싱가포르와 끊을 수 없는 Tri-Nations(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라는 점을 들어 너무 곤란하지 않게 하는 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 총회에도 강성익 회장께서 참석하여 아시아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본인의 그림이 들어간 접시를 직접 제작하여 각국 단체장에게 선물로 주는 등 정성을 들여서 유치활동의 전면에서 활약하였다.

유럽지역 유치활동

김성민_ 우리나라와 비교적 교류가 많은 지역이 아시아, 북미, 서유럽이라면 가장 교류가 적은 지역은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일 것이다. 그 중에서 동유럽의 유치활동을 위하여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금년 6월 18일의 UIA 2지역(동유럽) 회장단회의(UIA Region2 Presidents Meeting)에 참석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또한 전전날인 6월 16일에 같은 장소에서 흑해연안국 건축포럼(FABSR, Forum of Architects of the Black Sea Region)과 전날인 17일에는 발칸반도건축회의(Balkan Architecture Conference)가 열리므로 집약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유치위원회에서는 조성중 집행위원장과 필자가 참가하였고 직전에 개최된 아프리카건축사연합(AUA, Africa Union of Architects)의 총회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오는 유치위원들과 합류하였다.

6월 16일에 회의장소인 터키건축사협회 이스탄불지회를 방문하여 18일의 UIA 2지역 회장단회의 중간의 오찬을 서울유치위원회에서 후원하기로 하고 장소, 식단 등을 협의하였고 흑해연안의 9개 국가(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그루지아, 그리스, 루마니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회의에 잠시 참석하여 간단히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에는 아프리카건축사연합에 참석했던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을 위시로 6명이 합류하여 도합 8명의 유치위원이 존재감을 과시하며 발칸반도의 11개 국가(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마케도니아, 코소보,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참여하는 발칸반도건축회의에서 서울을 홍보하였다.

18일에 열린 가장 중요한 회의인 UIA 2지역 회장단회의에서는 공정성을 위하여 3개 도시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고 오후 4시부터 각 도시에 20분씩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배정해 주었다.

서울유치위원회에서 후원한 오찬을 이스탄불건축사회관 1층 홀에서 김효수 본부장의 간단한 축하연설을 시작으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조성중 집행위원장의 서울 홍보 프레젠테이션은 동유럽인의 기호에 맞춘 자료를 준비하여 차분하게 진행 하였고 서울시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어 서울의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싱가포르는 건축사협회장 1명과 관광청 공무원 1명이 참석하였고 멕시코시티는 건축사협회장 1명 이외에는 홍보회사에서 3인이 참석하여 모든 면에서 서울 유치단이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홍보활동을 하여 서울시의 지원과 한국 건축사의 적극성을 무기로 동유럽 건축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아프리카지역 유치활동

심재호_ 2011년 1월 베이루트이사회에서였다. 서울이 유치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발표에 이어 참석한 여러 이사들이 관심을 표명하였다. 평소에 친분이 남달랐던 모로코의 Firdaous이사가 제안하였다. 본인이 부사무총장으로 있는 AUA(Africa Union of Architects)의 총회가 5월 앙골라 수도인 루안다에서 있을 예정이니 이 자리에서 서울이 PT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아프리카는 UIA제5지역으로 50표가 넘는 표밭이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바로 수락했고 Firdaous 이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메일로 나이지리아 출신인 Tokunbo 사무총장을 소개하여 주었다.

아프리카회원국 참석자들의 앙골라 비자발급이 순조롭지 못하여 총회장소의 확정이 늦어져서 Tokunbo 사무총장과는 수십 차례 메일을 교환한 후 루안다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프리카회원국들에게 성의를 보이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Tokunbo 사무총장은 추후 AUA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지금도 그때의 일로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앙골라에는 이상림 회장, 김효수 주택본부장, 한만원 위원, 한종률 위원이 동참하였다. 특히 루안다주재 한국대사가 서울초청리셉션에서 호스트 역할을 해주어 서울의 입지가 많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의 유치제안서 내용에 대한 필자의 PT에 AUA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의 사계절과 전통문화, 그리고 300명의 학생에 대한 무료지원 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중에 도쿄총회에서 아프리카지역 유치활동을 맡은 한영근 위원이 전한 말에 의하면 이때의 리셉션과 PT가 꽤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앙골라 루안다까지 편도 25시간이 넘는 먼 여정의 피로함과 귀국시 공항에서의 특별한 경험(출국 심사 시 금품요구, 불쾌한 소지품 검사 등)의 기억을 잊게 해주는 말이었다.

아프리카건축사연맹 총회에서 서울 리셉션 개최

UIA 2011 Tokyo에서의 유치활동 및 유치도시 선정

도쿄에서의 유치활동

신춘규_ 유치활동의 정점은 마지막의 두 달 동안의 점검기간과 도쿄에서의 유치활동을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내외부로 무척 힘든 시기였다. 협회 이사회 내에서 일부 이사들의 국제위원회의 의결사안을 두고 논쟁이 심하게 있었고 서울시하고는 사협회의 입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에 이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치위원회는 집행위원과 홍보위원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집행위원은 조성중 위원장과 이건기 국장이 공동으로 맡고 각 단체별 한명씩, 사협회 이근창 고문, 가협회 한종률 이사, 학회 이정만 교수로만 결정했다. 이는 한동안 준비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지켜본 결과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이건기 국장이 낸 아이디어였다. 홍보위원회는 처음에는 준비 상 필요한 위원들만 추리고 도쿄에서의 유치활동에서는 더 보완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협회에서는 심재호 UIA 이사와 협회이사인 필자와 김성민 위원장, 여성위원으로 이재림위원이 들어가고 가협회에서는 임재용 위원과 한만원 위원, 박제유 위원이 학회에서는 정재욱 교수, 심재현 교수와 이세영 교수가 합류하게 되었다. 나중에 도쿄유치활동을 위해 이옥화 위원, 정재희 교수, 한영근 위원 등이 합류하게 되었다.

유치활동을 전문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전문업체로 홍보 및 진행은 MECI가 동영상물 제작 등은 대홍기획이 선정되었다. 동영상 제작은 심재호 이사가 자발적으로 담당하고 도쿄에서의 한국의 밤, 전시장소, 본부 등의 장소 물색을 위한 일본 조직위원회와의 협의는 이근창 위원이 맡기로 했다. 홍보를 위한 한국전시관은 임재용 위원이 맡았다.

유치 활동을 통한 각 단체의 합심한 모습을 기대하던 바람이 많은 부분 퇴색이 되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돌입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지고 단합된 힘으로 전쟁과 같은 일정을 보냈다. 특히 집행위원들은 일주일 두 번 이상의 긴 회의와 점검하는 일정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투표결과에 대한 예상을 해보았을 때 약간 낙관적이기는 했지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라 마음이 탔다. 유치가 실패할 경우의 감당해야할 여러 가지 결과를 뇌리에 떠올릴 때면 내가 왜 서울유치를 주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특히 마지막 도쿄 현장에서의 열흘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몽롱한 느낌이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류해오던 건축사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다른 위원들보다 2일이나 먼저 출국을 하게 되었다. 건축사축구대회는 일본 조직위원회의 핵심인사인 가즈오 이와무라 교수가 중심이 되어 준비를 하는 행사이고 일본건축가협회 타로 아시하라 회장과 후루야 노부야끼 교수 등 굵직한 인물들이 참석하고 중국과 태국의 대표단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라 유치활동의 시작점이라 생각했다. 준비해간 우리 서울로고가 들어간 셔츠와 배지는 상당한 인기품목으로 각광을 받았다.

도쿄에서의 유치활동은 사협회의 대표로서 각 행사에 참석(UIA 건축실무위원회, 아카시아 실무위원회), 유치위원으로서의 각 국의 대표단을 만날 수 있는 유치활동으로 나누어져 벌였다. 각 위원들은 담당국가가 정해져 있고 또한 그동안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각 국 대표단을 만나 지지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이제 체면은 뒷전에 두고 노골적인 부탁을 하고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이런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한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적극성이 있음을 재확인 시켜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독일의 여성대표처럼 너무 한국이 들이대는 것 같다.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을 맡은 중국, 몽골,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의 5개국 대표 이외에도 미국과 아카시아 각 국의 대표단을 만나는 대로 지지부탁을 하고 다녔다. 김성민 위원장과 동유럽의 전시와 세미나를 참석하여 지지요청을 했다.

이런 유치활동 중에도 진행이 된 최종 PT 준비는 백미였던 것 같다. 하루에도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모여 PT 연습과 그룹 댄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이 들면서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 리허설의 총연출자격인 이건기 국장과 이정만 집행위원의 적극적인 진행, 아무런 불평도 없이 매번 리허설에 참여하는 김종성 위원장과 PT를 오래 전부터 기획사와 준비해온 심재호 이사, 마지막에 나타난 젊은 건축가를 상징하는 박정윤 씨, 전문 아나운서 안정현 씨의 놀라운 전문성과 노력이 축적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런 준비과정을 통해 얻어진 단결력은 10월 1일 유치투표 당일에 빛을 발했다고 본다. 먼저 발표를 시작한 싱가포르건축사협회 애쉬빈 회장의 멋진 프레젠테이션과 멕시코의 엉성한 프레젠테이션에 대응한 우리는 서로 나누어진 역할분담을 통해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성과 속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마지막 그룹으로 무대에 올라가 노래와 약간의 댄스(?)를 하기 위해 무대 아래에서 PT를 보는 동안 가슴이 자꾸 뭉클해지고 코가 찡해지는 것은 내가 한국인

서울 홍보관에서 유치위원들과 함께

임을 스스로 표현해주는 것이 아닌 가하는 자부심이 들었다.

유치 성공에 대한 확신은 전날 서울의 밤의 행사 후에 들기 시작했다. 임페리얼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의 밤은 장소와 식사메뉴 만으로 초청된 각 국 대표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전날 싱가포르의 만찬에서의 우려가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행사도중 Louis Cox UIA 회장이 무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지는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초대받은 대표들은 계속 아쉬워하며 자리를 지켰고 노래와 춤의 향연은 계속 이어졌다.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 대표들을 다른 위원들과 문가에 서서 배웅하며 맞이하게된 그들이 남기는 말들은 "이런 파티는 생애 처음이다", "난 서울의 지지를 약속한다", "이미 서울이 이긴 것으로 안다" 등 확신에 찬 답들이 많이 나와 가슴이 뿌듯했다.

'서울의 밤' 행사

이근창_ 투표 날짜가 가까이 오면서 투표가 있을 행사장에서의 활동 지침이 구체적으로 만들어 졌고 투표 전에 있을 초청 만찬 준비를 위해 국제행사전문업체인 MECI 직원과 2일 간의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만찬 장소는 일본 조직위원회(JOB)를 통해 추천 받아 4개 장소를 답사하였고 최종적으로 UIA 임원이 숙소로 사용할 임페리얼 호텔 2층 West Peacock Room으로 정하였다. 식사 메뉴, 행사진행, 실내장식, 공연자 선정, 선물, 자리배치, 여흥 등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정리했다. 공연은 퓨전 음악을 연주하는 헤이야 팀으로, 막걸리는 위원들이 직접 운반하기로, 선물은 남자는 특별 제작하여 홍보로고를 넣은 목도리를, 여자는 긴 실크 머플러로, 얼음조각은 서울의 상징인 해치로, 배치는 횡으로, 하나씩 정리되면서 감동 있는 서울의 밤을 맞게 되었다.

만찬 일정 역시 투표 하루 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JOB와 제국호텔의 한국인 매니저, MECI,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참석, 새로이 UIA 회장으로 선출된 Albert Dubler의 인사말, 전임 회장 Gaitan Siew의 축사, 직전회장 Louis Cox의 인사말, 전임 ARCASIA회장인 필리핀의 Yolanda Rayes의 건배사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ARCASIA 행사를 통해 검증된 태국대표단의 Nui와 일본 Iwamura의 즉석 가라오케는 모두에게 기쁨과 화합을 다짐하기에 압권이었다.

현지에서의 유치 활동은 기 접촉했던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확인, 재확인하는 절차였다.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몽고 이외 모든 4지역 내 회장과의 만남은 결과에서 보듯이 서울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재호_ UIA총회에서의 꽃은 무엇보다 유치도시 선정 프레젠테이션이다.

유치도시 투표 전날의 '서울의 밤' 행사

PT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엄한 규정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2년여 기간 동안 준비한 내용을 짧은 시간(나중에는 무척 긴 시간이라고 알게 되었다) 내에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로 여겨 질 수밖에 없었다. 유치제안서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PT 내용을 기획, 촬영, 제작을 위한 총감독(커미셔너)으로 선임이 되었다.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보니 필자의 특유한 도전정신이 발휘되어 이를 수락하게는 되었으나, 만약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감당해야 할 어려운 시간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2005년 이스탄불총회와 2008년 토리노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이 유치 PT를 관심 있게 지켜본 경험이 있었고 이때 촬영하여 두었던 동영상이 이번 PT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더반이 2008년 발표한 내용을 보니 감성적인 접근법을 썼던 반면에 싱가포르는 그린시티라는 비교적 딱딱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서울은 도쿄나 싱가포르와는 다르고 unique하다는 면을 강조하고 UIA회원국의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게 되었다.

당초 PT기획을 위한 용역회사가 제일기획으로 선정되었으나, 2주 정도 진행한 후에 포기하는 바람에 대홍기획으로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제일기획은 당시 평창올림픽유치발표를 앞두고 있어 힘들었다고는 하였지만 예산대비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되었었던 것으로 보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일을 흔쾌히 수락한 대홍기획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전문 광고기획회사와 처음 하는 일이어서 다소 생소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평소에 접해 볼 수 없던 분야의 팀원들의 강한 프로정신에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60여 일간의 제작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보고, 자문, 자체회의를 가졌다. 서울시, 집행위원회, 외부자문위원들 모두 UIA총회유치라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터라 이러한 회의가 모두 원만하고 부드럽게 진행될 수는 없었지만, 유치를 위한 목적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

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총감독에게 힘을 실어준 서울시 주택본부 이건기 국장이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김성민_ 3개 도시의 최종 PT는 그 형식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났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건축사협회의 애쉬빈 회장이 무대를 누비면서 원맨쇼 같은 세련된 PT를 했으나 그러기에는 2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멕시코시티 역시 멕시코건축사협회장의 간단한 발표에 이어서 15분가량을 관광홍보 동영상으로 채워서 건축적인 내용이 너무 부족해 보였다. 이에 반해서 서울의 PT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고 2개의 동영상으로 이뤄진 다소 진부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짜임새 있는 구성을 보여 주었다고 자부한다. 아리랑TV의 안정현 아나운서의 부드러운 진행에 따라 이상림 FIKA 회장이 한국 건축계의 열망을 얘기하고, 서울시의 이건기 주택국장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는 서울을 소개하는 오프닝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장이 'Soul of City'라는 주제에 대하여 건축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 후 우리의 히든카드였던 박정윤 씨가 유창한 불어로 'Young Dream'에 대해 설명을 해서 영어권에 대해 약간 소외감이 있는 불어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곧 이어 안정현 아나운서가 대회 진행과 우리 제안의 장점, 서울의 매력에 대해 유머 있게 설명하였고 메인 동영상으로 서울의 전통을 표현하는 가야금 연주자와 서울의 첨단을 상징하는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를 대비 시키면서 서울의 다양성과 건축을 다이내믹하게 보여주었다. PT의 대미는 미리 작곡한 간단한 선율의 'U & I Are Friends in Seoul' 노래에 따라 유치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무대 위에서 율동을 선보이는 독특한 이벤트로 마무리하였다.

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1년 넘게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고생한 심재호 위원과 서울에서부터 도쿄까지 연일 계속되는 리허설에 열심히 따라준 유치위원들의 열의가 느껴진 20분이었다.

한국 건축사의 UIA 2011 TOKYO 대규모 참가

김성민_ UIA 서울 유치를 결정하고 바로 참석한 일본건축가협회(JIA,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전국대회(2010년 10월 7일~9일, 기타큐슈)에서 일본건축가협회 아시하라 회장 및 임원과 FIKA 최영집 회장 및 임원 간의 회의에서 서울의 UIA 유치 도전을 설명하고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2011년 UIA 세계건축대회에서 일본 건축계의 서울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건축가협회는 UIA 세계대회에 많은 한국 건축사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일본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당시로서는 도쿄에서 열리는 UIA 세계건축대회에 가급적 많은 한국 건축사를 참여시키기로 약속하고 노력하게 되었다.

서울 PT의 대미를 장식한 유치위원들의 퍼포먼스

꼭 이러한 목적 이외에도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적인 건축 행사가 이웃 나라에서 열리므로 우리 건축사가 쉽게 참여하여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장래 UIA 세계대회를 유치할 국가에서 미리 이런 행사를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FIKA의 3단체가 모두 참관단을 조직하게 되었다.

UIA 도쿄 세계건축대회 기간이 학기 중이어서 대한건축학회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한국건축가협회의 참가자도 미리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참여인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초기부터 강성익 회장께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많은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결과적으로 110명이 넘는 우리 회원이 참여하여 유치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회원들에게 UIA 행사와 연관된 유익하고 차별화된 일정을 만들기 위하여 UIA 2011 TOKYO 조직위원회(JOB, Japan Organizing Board)의 오구라 위원장 및 UIA 세계대회 기간 중의 투어 프로그램을 관장한 JOB 부위원장이며 UIA 4지역 부회장인 이와무라 교수의 협조를 구하고 UIA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 및 일본 측 여행사를 접촉하여 미리 한국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일정은 UIA 세계대회의 일반 참가자 일정인 전반기 3박4일과 UIA 총회의 UIA임원 일정인 후반 3박4일로 나눠서 기호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쉬운 점은 전반기 일정에서는 UIA 세계대회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 및 강연이 일본어 및 영어 위주로 진행되어 대다수 회원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후반기 일정은 일반인 참석이 제한되어 최종일의 UIA 유치도시 투표 이외에는 UIA 세계대회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도시 선정

신춘규_ 10월 1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이상할 정도의 신선한 공기를 느꼈던 것도 이런 희열의 밤을 마음에 담아두었기 때문 아니었나 싶다. 행사장에 간 나는 이건기 국장과 몇 사람에게 "느낌이 좋고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미국 대표인 전회장이 "미국은 100% 서울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동안의 약속을 한 대표들이 계속 확인을 해준다. 그동안

유치도시 확정직후 환호하며 기념촬영

지난 10월 1일 '2017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 유치' 확정 후 공항에서의 대표단 환영식

걱정을 했던 일본도 서울을 지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준다.

드디어 1차 투표. 전자투표로 진행된 결과를 발표하는 Gaetan Siew 전회장의 발표, 85:123:44! 1차 결정에 4표 부족한 득표, 헉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기뻐할 새도 없이 떠오른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우리 대표단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확 사라진다. 동시에 옆에 앉아있는 싱가포르 대표단들의 기죽은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나 미안했던지 기뻐할 수가 없었다.

2차 투표는 결과가 뻔한 것이었다. 106:146. 그래도 멕시코시티의 44표 중 반이 싱가포르로 갔다.

성공적인 UIA 2017 SEOUL을 위하여

신춘규_ 이제 6년이 남았다. 발표 직후 일본 대표들이 한결같이 충고를 준다. 쉬지 말라고… 이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한다고 한다. 차분하게 매년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왜, UIA 세계건축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려고 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계건축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 목표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전진해야 한다.

세계건축대회의 유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와 건축계가 스스로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축계의 올림픽이라는 명제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는 세계건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다고 본다. 내부로는 일반인들에게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정책수립자나 위정자들에게 건축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외부로는 국내건축사들의 국제경쟁력을 함양하고 지금의 국내건축사들이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재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6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건축계와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굴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민_ 금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UIA 세계건축대회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물론 년 초의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가 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도쿄시의 지원 없이 추진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컸고, JIA가 주도하면서 타 단체 및 학계 등의 협조가 적어서 프로그램이 부실해졌으며, 일본 건축사, 학생의 참여가 저조하여 많은 행사장이 빈자리로 남겨지게 되었다.

2017년 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하면서 건축단체 사이의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국내의 일반인과 해외의 건축사에게 우리 건축사와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유래 없는 건축계의 불황과 건설시장의 축소로 많은 건축사가 고통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계비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사가 존경 받는 사회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제도적 장치나 구호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7년의 UIA세계건축대회가 그 물꼬를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근창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전 아카시아 회장,
㈜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부회장
심재호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전 UIA이사,
제이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신춘규 국제위원회 담당이사,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성민 국제위원회 위원장, ㈜한섬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ARCHITECTURE
TRAVEL

김성수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과정
by Kim, Sung-soo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

2011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서 참가자를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기행문을 게재했다.

건축과 도시 그리고 사람, 상생을 도모하다

일본 건축기행을 다녀와서

Architecture, City, and People - Accomodate Symbiosis

Japan Architectural Trip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설렘을 안고 떠난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도시가 날 반겨줄지, 그 안에 어떤 감동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특히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건축인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필자는 그러한 긴장이 엄청났다. 왜냐하면 부끄럽게도 건축, 그 막연하고 어려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학문을 연구한지 7년 동안 늘 이미지로서 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건축 기행은 매우 특별했고 고마운 시간이었다.

2011년 12월 3일 길어질 대로 길어진 어두운 계절 덕에 태양이 떠오르기도 한참전인 시간에 잠을 설치고 일어났다. 전날 역시 진행 중인 일과들로 인해 여행 준비를 떠나기 몇 시간 전에야 겨우 마치고 쪽잠을 청했던 터라 약간 멍한 기분으로 길을 나섰다. 이른 시각 홍대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종착역에서부터 분주히 발걸

음을 옮기며 아침 7시 인천공항 내 약속장소에서 수상자들과 첫 대면을 하며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대부분 팀별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었지만 필자와 함께 팀을 꾸렸던 친구는 애석하게도 논문 심사 날과 일정 이 겹치며 탐방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곧 한명 한명 인의식 건축사(계획부문 심사위원장)님이 인원체크를 하시고 인솔을 담당하신 최락청 대한건축사협회 팀장님과 여행가이드 분께서 기행에 관한 짧은 소개를 해주신 뒤 우리 13명은 후쿠오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 후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적시고 있는 빗줄기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었다. 출발 전 날씨정보를 확인했던 터라 우산을 챙겨오긴 했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기행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았다. 우리는 신속히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된 아담하고 작은 흰색 버스에 탑승했다. 곧 차내에서 현지에 관한 소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가이드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비로인해 평소보다 깨끗해진 규슈(Kyushu) 풍경을 눈 한가득 담으며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출발한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우리는 휴게소에서 현지 첫 식사로 시장했던 배를 달래고 부지런히 달려 목적지로 향했다. 달리는 도중 국내와는 반대인 차선도 신기했지만 작은 마을로 가까워질수록 아슬아슬 폭이 좁아지는 도로와 작은 휴지조각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 깨끗한 도시의 모습, 그리고 매우 낮은 안장에 앉아 내지르듯 발을 굴리며 큰 바퀴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한명 한명이 흥미로웠다. 그렇게 도착한 첫 탐방지는 구마모토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모두 전시되고 있는 안도타다오의 현립장식고분관. 장식고분이란 일본어로 조각, 미술 등의 고분유물을 말하는데 고분 내부에 쌓아올려진 석실이나 석관, 무덤 벽면 등에 그려진 회화나 문양 등을 총칭해 장식고분이라고 한다. 주차장 쪽으로 연결되어있는 입구를 따라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는 노출콘크리트의 긴 램프와 과감한 공간 구성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안도타다오의 건축에서 자주 특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 언어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이었다. 기하학적 질서에 따른 조형성과 명상의 공간, 그리고 주변 고분과 출토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의식적인 형태 디자인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umamoto Artpolis)가 지향하는 환경과의 조화, 주변 환경과의 맥락을 중시하는 계획으로서 이용자에게 충분히 만족할만한 공공성이라 생각했다. 특히 자연스럽게 동선을 이끈 슬로프와 램프 끝에서 내려다보는 건물과 랜드스케이프의 자연스러운 볼륨은 압권이었다.

공간들을 헤집고 다니며 감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버스에 올라야 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본역시 겨울철엔 해가 일찍 떨어지기에 여유 있게 체험을 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그래서였을까? 우리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멀어지는 차 창문에서도 건물을 바라보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다. 현장에서 눈과 귀와 가슴에 담을 수 있었던 감동의 여운을 추후 이미지를 통해서라도 다시 기억해보려 했던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아득해질 무렵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늘은 이미 맑아져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애초에 가즈요 세지마의 90년도 작품이었던 사이슈칸 레이디스 레지덴스였다. 이 건물은 아트폴리스의 민간프로젝트 1호로서 사이슈칸 제약소의 여자 기숙사로 쓰이는 용도였지만 내부 체험에 제한이 있어 현지 여건상 그보다 더 최근에 지어진 현립 농업대학교 학생기숙사로 발길을 돌렸다. 고분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기숙사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별했다. 건축공간을 구성할 때 고의적으로 시선을 조절하여 '무엇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것처럼, 더욱 각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배치된 하트모양의 조경은 인상적이었다. 길을 따라 걷다보면 간간이 기숙사를 1/50 정도로 축소시킨 우체통들이 늘어서 반겼으며, 이윽고 마주한 목조건물은 이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는 듯 포근하고 따뜻하게 안착해 있었다.

특히 내외부에 사용된 모든 재료는 구마모토 현 내의 나무들만 사용한다라는 원칙아래 풀(잔디), 나무(감귤류), 돌(흰모래), 꽃(야생화)이라는 4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재료구성으로서 자연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눈에 띄도록 드러내며 갑자기 방문했던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오묘함을 풍겼다. 이 오묘함을 배경삼아 단체사진을 촬영 후 바로 다음 목적지인 니시고시시 보건복지센터로 향했다. 농업대 기숙사의 감동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 사전조사당시 접했던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나 때가 타고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았던 외관과 건축사가 고안했던 내부공간에 비해 혼잡하게 엉켜있는 실내는 실망스러웠다. 다만 동선을 따라 나오던 길에 만났던 주차장 구성과 한쪽으로 그늘져 우선권을 제공했던 공용주차장은 인상적이었다.

첫 날 어두워지기 전 마지막 코스로 우리는 시영 신치단지를 방문했다. 구마모토 신치단지는 저소득 영세민을 대상으로 재개발된 공동주거로, 지역민들이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이다.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공동주거는 건설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다양한 주호들을 품어 단층형과 복층형, 각종 평면형이나 입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다른 프로토타입형으로 공간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거주민들이 사는 공간내부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발코니의 서로 다른 모습을 바라보며 짐작할수 있었고, 단지가 가진 거대한 스케일과 내외부 공간의 공동소유격인 공공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걸 보며 커뮤니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공공공간이 안전한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한 보차

01.안도타다오 – 현립 장식고분관 1992년 4월 준공 02.후지모리 데루노부+이리에 요시아키+시바타 마사히데+니시야마 히데오
03.이마무라 마사키+다지리 – 니시고시마치 보건복지센터 = 후레아이칸 2002년 5월 준공 04.구마모토 시영 신치 단지 1992년 3월 준공

분리가 되는 마스터플랜의 긴밀한 짜임새 덕분이 아닌가 싶었다. 이는 경사도가 있는 지형에 그대로 순응하며 버스로 올라갔던 주도로를 경계삼아 건물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대한 놀이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았다. 특히 E단지를 설계하였던 '우에다 겐지로'는 자신이 어린시절 뛰어놀던 마을의 풍경과 심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었다고 했으니 필자가 보고 느낀 시각이 어느 정도는 일치했던 것 아닌가? 한 바퀴 돌아보고 나올 무렵 어둑해진 거리를 따라 우리는 첫 날 오후 일정을 마치고 시내 호텔로 향했다.

많이 돌아다녔던 탓일까? 호텔 프론트 우측으로 있던 뷔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꿀맛 같았다. 아마 3일간 일본에서 즐겼던 음식 중에 가장 무난하면서 호화스럽게 즐겼던 만찬이지 않았을까 싶다. 이유는 둘째 날 숙소에서 접했던 단 맛 가득한 기무치(일본김치)와 빈약한 식사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돌아오는 길 가이드가 권했던 대형마트를 다녀와 조촐한 모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을 떠나오기 전 날과 기행 첫 날 얼마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일찍 일어난 덕분에 이른 시각 호텔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최근 주거 관련 논문을 작성하면서 아파트에서 도시형생활주택에 이르기까지 점차 소형화 되어가고 있는 최근 국내 평면추세를 반영하기에 우리가 묵었던 매우 작은 크기의 원(One)베드와 투(Two)베드룸의 구성과 콤팩트(Compact)한 화장실은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메모와 사진촬영을 마치고 함께 방을 썼던 동생을 깨워 어제의 만찬 장소로 향했다. 식사를 하며 만난 일행들의 모습은 새로운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모두 좋아보였고 조식을 마친 후 우리는 서둘러 아주 특별한 자연이 있는 아소산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구마모토는 칼데라 아소 산으로 '불의 나라'와 '물의 나라'로 불리며, 일본의 대문호 나츠메 소세키는 구마모토를 '숲의 나라'라고도 표현하며 아름다운 자연만으로도 구마모토의 절반이상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소는 해발 1,000m가 넘는 다섯 개의 봉우리 중 지금도 하얀 연기를 쉴 새 없이 내뿜는 활화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시간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경험하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퀴퀴한 연기가 연신 화산의 분화구에서 올라오며 기침을 유발시켰는데 분화구가 있던 자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맞바람을 직접 맞을 경우는 위험도가 높아 내부를 보기위해서는 바람이 바뀔 때 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15~20분이 지났을까 신호가 바뀐 후 분화구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세월의 힘과 자연의 힘이 어우러진 경이롭고 거대한 풍경을 만나는 순간 잠시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요하기도 한편으로 무섭기까지 했던 거대자연 아소산을 둘러 내려오는 길에 우리는 분화구를 향한 케이블카 탑승장 주차장 내 만들어진 아소 산정 공중화장실인 TOTO AQUAPIT 에 들렀다. '물과 평온함이 있는 휴게소'라는 이름에 알맞게 7동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아소(阿蘇)의 기후를 고려하여 화산재나 겨울의 동결에 대응하도록 고안이 되어있었고, 계절에 따라 건물수의 증감도 가능하다

고 하니 그 운영 및 관리방법의 유동성은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시선을 고정시킨 것은 사실 따로 있었다. 버스를 타고 5분도 채 안 돼 좀 더 내려오다 보면 분명 같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파노라마 같은 광활한 들판과 푸른 호수, 선명한 녹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숭고하기 까지 했던 주변경관의 웅장함 때문이었다. 하차 후에도 여전히 자연에 마음을 빼앗겨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까와는 사뭇 다른 쿠사센리 공중화장실 한 동이 몇몇 건물 틈 사이로 수줍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음악의 멜로디 마냥 굴곡이 다양한 산세 안으로 스며들어 마치 늘 있었던 듯 자리한 건물은 앞서 본 7동의 화장실이 대지 내 존재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경우였다면 후자는 자연에 가장 밀접한 재료인 목재를 사용해 공원 내 이질감을 최소화 시켰고, 풍경 속에 녹아들어 있게끔 처리한 경사면의 잔디지붕과 지붕위로 설치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시설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따뜻한 정서를 담아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소산을 내려오는 길에 돔형식의 숙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대형 리조트 단지인 아소 팜랜드를 간단하게 구경한 뒤 허기를 달래고 구마모토현 우츠시에 위치한 우토 초등학교를 찾았다. 멀리서 다가설 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초등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의 건물이었다. 또 우리가 방문했던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중 가장 최근(2011년 5월 준공)작품으로 일행이 가장 선호했던 여정의 꽃이었다고 생각된다. 전반적인 느낌은 십자형의 공중가로가 쌓여있는 3층 규모의 아기자기한 공간구성이 특징이었는데 2008년 현지 심포지엄에서 '배우면서 만드는, 만들면서 기르는 앞으로의 교육환경' 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건축사와 교육자, 아동, 시민들이 함께 계획하며 치밀하게 진행했던 견고한 디자인이 건축물을 돋보이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등 간격으로 배치된 우수 집적시설을 통해 저장된 물이 야외 수영장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은 교육여건상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았고 화사한 녹지로 조성된 여러 안마당과 시각적으로 열려있는 모든 교실과 복도, 야외 공간은 지역 및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문화와 건축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키며 풍부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짐작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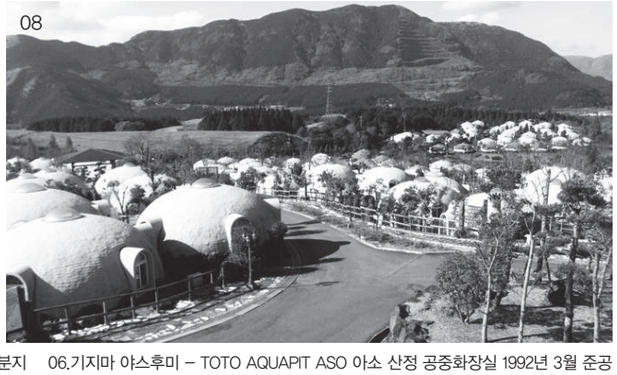
문화공간이 아닌 교육시설에서 받은 감동은 컸고, 연이어 방문한 시라누히 문화프라자와 현재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총괄 커미셔너로 있는 일본 건축계의 거장 도요이토(Toyo Ito)의 야츠시로 시립박물관(미래숲박물관)으로 연결되었다.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하이테크 적인 요소들로 위용을 뽐내며 각 지역의 랜드 마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는데, 시라누히(不知火)라는 말은 바다의 비치는 신비한 화영(火影)을 일컫는 뜻으로 이를 모티브로 건물을 둘러싼 루버 스크린이 부드러운 빛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시각적인 이미지의 극대화를 표현했고, 시립박물관 역시 건축사가 생각했던 평범한 도시, 빛바랜 건축물들 사이에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구상을 통해 무거운 도시에 날아가는 새를 형상화하며 건물의 위압감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초기 프로젝트 당시 과감한 디자인은 주민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했는데 서로 다른 두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건축사와 지

05

06

07


08

05.아소산 화산분지 06.기지마 야스후미 – TOTO AQUAPIT ASO 아소 산정 공중화장실 1992년 3월 준공
07.쓰가모토 요시하루+사이토 모모키 건축설계 사무소 – 구사센리 공중화장실 1998년 4월 준공 08.아소 팜랜드

역 주민들 간의 협의과정을 일주일에 서너 차례 열면서 무려 일 년여의 시간동안 에너지를 투여하며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프로세스에 끌어들였다고 한다. 이는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것 같았고, 융기된 녹색 언덕 위로 자아내는 메탈릭의 아름다운 광택은 필자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둘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신야츠시로 역 앞에 있는 모뉴먼트를 찾았다. 미리 사진으로 보았을 때와는 달리 거대한 스케일의 신간센 역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였다. 멀리서 다가설 땐 민가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가까이 다가서니 아주 얇은 벽 두께에 무수히 많은 구멍들로 인해 콘크리트의 무거운 물성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각도로 앵글을 조절해도 멋스럽게 촬영되는 조건 덕에 우리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어느새 첫 날보다 더욱 가까워진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늘 바쁜 생활에서 미처 느끼기 힘들었던 늦가을 단풍과 노을 길을 친구삼아 이튿날 숙소로 잡혀있던 아시키타 청소년의 집으로 이동했다.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너무 어두워져 건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이 짙게 내려와 있었다. 이 곳 역시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로 해안선 가까이 위치하며 야츠시로해 연안을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기에 다음날 이른 아침 건물을 둘러보리라 생각하며 간단한 석식을 마치고 인의식 건축사님과 최락청 팀장님과 함께 한방에 모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아쉬운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우리는 어제와 비슷한 조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바다가 보이는 광장으로 나섰다. 부지의 혜택을 활력삼아 아침바다가 주는 쾌적함에 취해 서둘러 공간을 둘러보고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3일내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는 아담한 버스에 올랐다.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Ashikita Community Hall에 도착했고 마침 월요일이 휴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시설 담당자를 잠시 기다려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이벤트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내부는 돔 모양의 지붕이 삼나무 집성재를 뜨개질하듯 짜 맞춘 독특한 패턴의 구조가 눈에 띄었는데 지역 내 대표적인 재료의 사용과 부드러운 향기가 진동하는 실내 공간을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어 길을 나서며 우리는 일본의 유명한 신칸센 고속철도역에 방문했다. 도쿄와 오사카의 주요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역인 신미나마타역은 안팎으로 공간구성이 다채롭다. 플랫폼을 보여주는 철도역의 지붕과 벽은 뚜렷한 차이 하나 없이 반복되는 긴 개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열차가 가지는 속도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특히 마냥 열려있는 것만 같은 공간디자인은 그 나름대로 개체들의 다른 표면각도로 인해 소음과 빛, 비, 바람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시각각 썬(Sun)블록 사이로 쏟아지는 태양의 빛이 고도에 따라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어느새 출출해질 점심 무렵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길에 자리한 레스토랑에서 일본식 우동과 돈부리를 먹고 후지모토 소우스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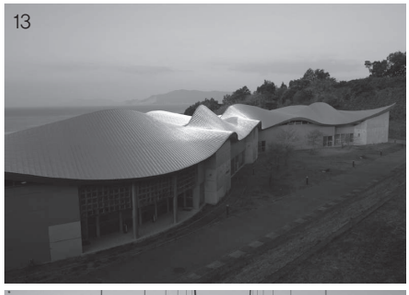
09

10

11

12

09.카츠히로 코지마+카즈코 아카마슈 – 우토 초등학교 UTO MUNICIPAL ELEMENTARY SCHOOL 2011년 5월 준공
10.기타가와 아쓰시+이토 건축사사무소 – 시라누이 문화프라자 1999년 4월 11.도요이토 – 야츠시로 시립박물관 미래의 숲 뮤지엄 1991년 3월 준공
12.이누이 구미코 – 신야츠시로 역앞 모뉴먼트 –기라리 2004년 2월 준공



13.에리어 젠게리스+엘레니 지간테스+스즈키 료지+시마무라 건축설계사무소 – 현립 아시키타 청소년의 집 1998년 6월 준공
14.타카하시 히로시+타카하시 마키코+사토준 – Ashikita Community Hall 2009년 준공 15.미나마타시 – 규슈신칸센 – 신미나마타 역
16.규센토 방갈로 입구 현수교 17.후지모토 소우스케 – 규센도 휴가촌 목조 방갈로 Final Wooden House 2009년 7월 준공
18.와타세 마사노리+나가요시 아유미 – 규센도 휴가촌 목조 방갈로 R2 Wooden Lace 2009년 9월 준공 19.Jerde Architect – 캐널시티 하카다 1996년 준공

(Sosuke Fujimoto)의 작품이 있는 규센도 방갈로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걸어가는 도중 규센도 삼림관 아래로 설치된 큰 스케일의 보행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국내에선 이정도 높이와 규모의 다리를 체험해 본적이 없었던 터라 무척 흥분되고 즐거웠다. 필자가 군 현역시절 유격훈련을 받으며 외줄을 건널 때처럼 아찔했다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일수도 있겠다. 이윽고 다리를 건너 몇 걸음 옮기니 삼나무의 두꺼운 각재가 게임을 하듯 한 층씩 쌓여있는 흥미로운 방갈로에 이르렀다. 이 작품 역시 구마모토산 재료를 적극 사용하며 목조주택의 실험정신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애초 기대와는 달리 내부공간에 걸터앉아 보거나 누워보니 사실 많이 불편했다. 공간자체를 만들어낸 프로세스와 작업방식은 훌륭했음에도 숙박시설로서 안락함은 부족한 듯 보였다. 그리고 바로 옆 함께 위치한 방갈로 R2에서 오히려 목재의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일행모두 나란히 누워 잠시 만끽했던 자연의 내음과 시원함을 돌아가서도 잊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품은 각재의 일정한 간격으로 벌어져있는 형상의 집합으로 쪼개진 패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구조체들이 잡아주며 벽면과 지붕을 감싸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볼 때보다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길 만큼 실내가 근사했다.

돌아가는 비행기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순조롭기만 하던 일정을 끝내야만 했다. 어떻게든 후쿠오카 공항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볼수 있게끔 하기위해 남은시간마저 쪼개며 캐널시티(Canal City Hakata)까지 방문했고, 최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짜두었던 알찬 프로그램들을 무탈하게 사고없이 치러내며 대체로 만족스럽게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3일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무척 짧은 시간임에도 일정내내 탐방지를 선별하고 현지 시각에 맞춰 가이드와 함께 많은 신경을 써주셨던 인의식 건축사님과 이번 건축탐방을 정성껏 마련해 주신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 및 최락청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으로 함께 했던 진표형, 원석이, 태선이, 준성이, 용훈이, 두리, 연홍이, 가영이, 은영이, 현주, 함께하진 못했지만 늘 고마운 친구 시몬이에게 특별한 인연의 시작과 앞으로의 행보에 큰 박수를 돌리고 싶다.

|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11.8.9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주소입력 : http://m.kira.or.kr
- 포털사이트 : 대한건축사협회 검색후 클릭시 자동연결
- QR코드 인식 후 접속

○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방법

· 메인 상단 탭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총5개 게시판을 탭으로 링크.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게시판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메인게시판 : 각 게시판의 최근내용을 보여줌.
· 하단아이콘 :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인사말, 협회설립목적/연혁, 조직, 주요사업, 역대임원, 회원검색, 알림광장, 회원가입안내 등의 내용을 각각의 아이콘을 터치함으로서 볼 수 있도록 구현.
· 관련 사이트 : 각 회사의 로고를 회전하는 배너형식으로 구현,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 오시는 길 : Daum지도를 연동하여 확대축소가 가능한 지도로 표현
· PC버전보기 : 사용자가 터치했을 때 대한건축사협회의 PC버전 홈페이지로 이동

| QR코드 인식방법 |

큐알(Quick Response)코드는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활용성이나 정보성 면에서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한층 진보한 코드 체계이다. 아래 QR코드는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의 주소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단히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다.

○ QR코드 인식방법

스마트폰의 QR코드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QR코드를 읽어 들이면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입력 없이 바로 대한건축사협회 모바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소식
NEWS

협회소식

제11회 이사회

2011년도 제11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 개정(안) 검토의 건, (가칭)법제정책포럼 개최의 건, 법제도개선 관련 워크숍 개최의 건, 협회의 조직진단 컨설팅 실시의 건, 태국 홍수재해에 따른 지원의 건,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건축사사무소 임금실태 조사 타당성 연구」 용역 시행의 건, 예비비 승인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 검토의 건
– 정관개정 TF에서 검토된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동 내용을 참고로 하여 일부 보완한 후 회원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 회원자격 변경
· 제7조 :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한 건축사 중'→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 상근이사제도
· 임원의 선출관련 조항인 제21조제2항에서 상근이사를 삭제한 것은 임원으로서 격에 맞지 않으며, 제36조에서 상근이사를 '둔다'가 아닌 '둘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함.
▷ 특별기구의 설립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원로회원(추대회원)의 회비면제 제도는 협회의 재정여건상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제2호 : (가칭)법제정책포럼 개최의 건
– (가칭)법제정책포럼은 협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주제를 2~3개로 축소 · 진행키로 하고, 최대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함.
• 제3호 : 법제도개선 관련 워크숍 개최의 건
– 원안대로 개최하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기로 함.
• 제4호 : 협회의 조직진단 컨설팅 실시의 건
–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키로 하되, 여러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로 함.
• 제5호 : 태국 홍수재해에 따른 지원의 건
–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함.
▷ 지원금액 : 5,000,000원
▷ 기 탁 처 : 태국건축사협회
• 제6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 제7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상 책임이 협회에도 있는 만큼 정관개정을 통하여 협회의 지도 ·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이전이라도 감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요청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건축사사무소 임금실태 조사 타당성 연구」 용역 시행의 건
– 임금실태 조사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시 장점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만큼 좀 더 예비조사를 하여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예비비 승인의 건
의 결 : 원안대로 승인함.
▷ 승인금액 : 15,000,000원
▷ 사용목적 : 2011년도 위원회의비 부족 예산 충당

▲기타사항

• 국제위원회에서 해외 회의참석 시 논의되었던 결과나 제출된 자료가 회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요청함. (김항년 이사)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을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시도건축사회장단 간담회

시도건축사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12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시도건축사회 건의사항의 건
–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의한 아래의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도건축사회장단과 담당이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제도와 예산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가. 시도건축사회 교부금 증액(서울)
– 8천만원 증액 및 배부방안 개선
나. 신용평가제도 개선(전남)
– 재무재표에 의한 점수산정 또는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다.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관련(충북)
– 민간 건축물의 배상제도 제외
– 건축설계시장의 활성화 전까지 조합 가입없이 공제증서 발급
– 사용검사 후 발생하는 소액배상에 한하여 발급수수료를 차별화 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보증서 대신 공제증서로 대체 보완
라.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운영 개선(전북)
– 영화 포스터제작 및 영화상영을 위한 경비를 본협회에서 지원
마. 설계 · 감리 분리(인천, 경북)
– 설계 · 공사감리 분리(교체) 시행을 위한 법적 보완 요구
–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축연구원 활성화 방안을 수정 · 보완한 후 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하고, 보완된 내용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 후 행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 제2호 : 2012년도 정책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의 건
– 2012년도 정책위원회 워크숍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함.

■ 제2회 발주제도T/F

제2회 발주제도T/F 회의가 지난 11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발주제도 개선에 관한 건
– 기존 정리된 의견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기술등급 부분에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및 성격 등을 토대로 사유를 보완하여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함.
• 제2호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용평가에 관한 건
– 신진건축사 및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것은 신용평가 관련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우리협회의 개선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7회 정책위원회

제7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건축연구원 활성화 방안의 건

■ 제9회 사업위원회

제9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 2011 개최결과 평가의 건
–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하며 개선방안을 협의함.
▷ 잘된 점 : 자재추천제 심사를 통하여 타 전시회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높였으며, 전시회 구성내용이 탄탄해졌음.
▷ 부족한 점 : 연수교육과 전시관람 시간의 안배가 부족하였으며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가 보강되어야 함.
• 기타사항
– 협회발행지(건축사지, 건축문화신문)에 행사종료의 글 게재 : 사업단장, 사업위원장
– KAFF2012와 전국건축사대회(광주) 일정이 중복되므로 의견조율키로함.

■ 정관개정통합회의

정관개정통합 회의가 지난 1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 의견수렴 계획의 건
– 회원의견수렴을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시도건축사회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키로 협의함.
• 제2호 : 정관개정(안) 협의의 건
– 정관개정추진TF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단, 제11회 이사회 보고시 보완의견은 차기 회의시 검토키로 함. (다수의견)
• 제3호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규정 제정의 건
– 약간의 문구수정으로 원안 승인하며,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협의.

■ 제10회 사업위원회

제10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KAFF2012 운영계획의 건

– 전시일정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차기 회의 시 논의키로 함.
▷전시회 개최일정 확정
– 전시기간 : 2012.10.23(화)~10.26(금), 총4일간
– 임대기간 : 2012.10.21(일)~10.27(토), 총7일간_설치2일, 철거1일
– 전시장소 : 코엑스 1층 A홀
• 제2호 : 자재추천제 심사의 건
– 자재추천TF팀 최종 구성원을 회장께 보고하여 독립적으로 심사키로 함.
• 제3호 :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의 건
– 2006년 이후 장기화된 미수금은 결손처리하여 참가업체에게 협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않도록 함. (폐업 및 연락두절 시)
– 전시회 관련 시 · 도지원비와 건축자재 DB구축 사업지원비를 추가로 편성함.
• 기타사항
– 2006년도 사업준비 차입 미상환금 3,000만원을 2011년도 결산시 전액 상환함.

■ 제8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8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원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
– 인증심사비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비용책정에 관한 사례조사 후 차기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함.
– 타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협회(가칭 건축사교육원) 교육실시에 따른 수익배분은 우선 매출의 10%로 정함.
– 동영상교육에 따른 수익분석은 교육시행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보 · 교육T/F와 협의 후 차기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윤리선언서(안) 및 윤리규약 작성에 관한 건
– 건축사윤리선언서(안) 중 제5 · 6 · 8항의 추상적인 표현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인숙위원이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윤리규약에서 정하는 것으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
– 실무교육과정 인정시간 및 과목은 김항년, 조인숙, 강철희, 박인석 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1월까지 정리하기로 함.

■ 제9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9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업무 홍보계획에 관한 건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홍보를 시작하면 늦으므로, 우선 현재 국토부 내부(안)으로라도 홍보계획 및 홍보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홍보계획(안)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수정 · 보완하기로 함.
• 제2호 : 기존 건축사 등록시점 균등분할 방안에 관한 건
– 기존 건축사 등록시점 균등분할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오동욱 위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차기회의 때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등록업무 처리지침(안) 작성에 관한 건
– 갱신등록기간 마감일 규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사, 변리사, 감평사 관련 법규정을 참고하여 오동욱 위원이 정리하기로 함.
– 감독건축사 1인당 실무수련자 인원은 10명으로 정하고, 건축사등록업무 처리지침(안)은 쟁점사항이 생길 때마다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등록원 사무실임대료 지급에 관한 건
– 사무실 임대료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함.
• 기타사항 : 실무교육에 대한 정보 · 교육T/F팀과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 이건에 대해 정보 · 교육T/F팀이 실무교육 전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무처에서 실무교육 관리업무와 집행업무에 대한 논리를 정립하고 김항년 위원이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판단은 이사회에서 하기로 함.

■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임시예산안 심의
–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2012년도 1~2월 임시예산안을 각 회계별로 축조심의 · 조정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의 합의안을 재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제2호 :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안 협의
–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초안을 검토한 후, 추후 본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이를 수정, 보안하기로 함.

■ 제5회 재경위원회

제5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임시예산안에 관한 건
–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축조 · 심의하여 제출한 2012년도 1~2월 임시예산 중 일반회계 '국제사업비'를 증액하고, 기타 9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합의하여 제12회 이사회에 상정토록 함.

■ 제10회 국제위원회

제10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규태 전임회장 별세, 지난 11월 18일 향년 78세로

대한건축사협회 제21대 회장을 역임한 김규태(항도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임회장이 지난 11월 18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故 김규태 전임회장은 평생 동안 건축계에 몸담으며 작품 활동과 건축사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원로 건축사로서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지난 1966년부터 부산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하며,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부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협회장 재임 동안 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건축관련법 · 제도 개선 방향과 협회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개혁 – 세계화를 위하여」 라는 백서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의 끈질긴 설계겸업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태 수습을 위해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특별점검대책위원회 및 대책반을 구성하고 기술자문단을 현장에 파견, 안전점검토록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건축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꿋꿋이 노력했다.

부산지역의 명물인 극도극장, 온천극장, 부산교육대학(구. 부산사범대학) 본관, 구 부산시청(현 제2롯데월드) 별관 등이 고인의 작품이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2년도 국제사업계획 및 예산(안)
– 국제위원회에서 타당한 예산 반영 후 재경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함.국제세미나 개최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2017 UIA 세계건축대회 개최 준비 분담금을 추가하기로 함.

• 제2호 : 2012년도 해외교류단체 초청
– 제46회 정기총회(2월 중)와 2012년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 시 해외교류단체를 다음과 같이 초청하기로 협의함.

제46회 정기총회	일본건축사회연합회 (JFABEA) 몽골건축사협회 (UMA) 멕시코건축사협회 (FCARM)
2012년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제7회, 광주)	일본건축가협회(JIA), 미국건축사협회(AIA) 태국건축사협회(ASA),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 (ALACE)

• 제3호 : 2012년도 명예회원 추대 및 수여
– 해외교류단체 현임 회장 중 양 협회 간 관계개선 및 교류추진에 공헌한 해외단체장에게 수여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함.

• 제4호 : 일본건축가협회(JIA) 정례 교류 추진
– 2012년도 대한민국건축사대회에 초청하기로 함.

• 제5호 : 중국건축학회와의 MOU 체결 방문 계획
– 협약은 제3국에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 협의된 사항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6호 : 인도네시아 UNPAR 건축대학 본 협회 방문
– 인도네시아 UNPAR 건축대학 방문은 요청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방문 시 강연회 연사는 청계천복원프로젝트 등 발표 주제를 고려하여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추후 검토하기로 함.

• 제7호 :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대응전략 및 해외단체 교류 추진
– 본 협회에서 추진 중인 FTA 대책 T/F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하고, T/F 위원 구성 시 미국, 유럽의 외국건축사 자격을 가진 위원을 포함할 것을 건의함.

• 제8호 : 라오스건축사기술인협회(ALACE) 방문
–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참석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본 협회 회원 중 라오스 진출에 관심 있는 참관단을 모집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

• 기타사항

가. 스리랑카건축사협회(SLIA) 초청
▷ 본 협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과 중복되므로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Architecture ASIA誌 작품제출
▷ 학생작품 제출기한이 촉박하여 연기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로 하고 2011년도 한국 건축문화대상 수상 작품 중 대상과 우수상 수상작품(6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제출을 공지하기로 함.

다. 본 협회 특별회원 추천
▷ 일본 치바대학교 정지영 교수를 추천하기로 함.
▷ 외국건축사 자격소지자에게 홍보하여 본 협회 준회원으로 가입을 독려하여 회원 확보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건의함(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에 공지).
▷ 국제위원 중 정회원이 아닌 외국건축사 자격소지 위원은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독려

라. 교류해외단체 명 국문표기
▷ ALACE의 경우 변경(안)으로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나, JIA의 경우 고유 표기법이 있어 국문표기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건축사회, 2011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개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12월 9일 '2011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행사를 건축사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건축사회 임원 및 여성TF 위원 · 봉사TF 위원과 여성사랑 연대의 회원들과 함께 김장김치 600포기를 담아 의탁할 대상이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김장김치는 강서 · 관악 · 금천 · 양천지역의 무의탁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극빈자 시설에 전달됐다.

인천시건축사회, 인천시와 MOU 체결 및 사랑의 연탄배달 자원봉사 참여

인천광역시건축사회(회장 조동욱)와 인천시는 지난 11월 24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이하 BF)조성 사업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아파트나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의 문턱을 없애거나 휠체어 이동통로 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런 건물에 BF인증을 해주고 각종 혜택을 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건축사회는 각종 건축물을 설계할 때 되도록 BF기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시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BF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12월 6일 '사랑의 연탄배달' 행사에 조동욱 회장과 인천소속 회원 8명이 함께 참여해 학익동 195-9번지 일대 저소득가정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인천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 행사는 무의탁 홀몸노인과 저소득층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총 1만여 장의 연탄을 직접배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행사이다.

대구시건축사회, 수성구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쌀 전달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이택붕)는 지난 12월 6일 대구 수성구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쌀 50포를 전달했다.

대구시건축사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을 방문해 쌀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지역건축사회, 진주수곡초교서 어린이건축교실 열어

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최선기)는 지난 11월 19일 진주 수곡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어린이 건축교실 – 집만들기 대회'를 개최했다.

진주지역건축사회는 올해로 5회째 매년 관내에서 초등학교를 선정해 자나라는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건축사회원들이 직접 어린이들과 함께 하면서 간단한 집 만들기 방법과 이론수업 후 모형 자르기, 조경 꾸미기, 집 만들기 완성 후 결과물을 발표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선기 진주시건축사회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래 개척의 꿈을 키워 나가는 어린이와 함께한 시간이 보람됐고 앞으로 진주시건축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집만들기 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계소식

'한무숙문학관' '올림픽플렌테이션 Farm Shop' 11-12 ARCASIA 건축상 수상

2011-2012 ARCASIA 건축상에 '한무숙문학관(그림 위)'과 '올림픽플렌테이션 Farm Shop(그림 아래)'이 골드메달로 선정됐다.

최근 제32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이사회에서는 '2011-2012 ARCASIA 건축상' 수상작품을 발표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는 한국 대표로 11개 작품을 추천, 출품해 이 중 보수 및 재활용 부문에 '한무숙문학관'(조인숙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이, 상업시설 부문에 '올림픽플렌테이션 Farm Shop'(이상림 건축사/공간 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수상했음을 알렸다.

ARCASIA 건축상은 회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 2년마다 아시아의 우수한 건축물을 알리고자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작품 선정 최소 2년 전에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번 건축상에는 18개국 회원단체 중 12개 단체에서 총 132작품이 제출됐으며, 2011-2012 ARCASIA 건축상 수상 작품 시상식은 201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수상작 발표

국토해양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2011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의 수상작을 지난 11월 21일 발표했다.
준공부문 대상은 서울 종로 '가회동 엘(L) 주택'을, 계획부문 대상은 공동주거단지를 계획한 '옛 성곽을 품어안다'를 선정하는 등 총 19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최근 친환경, 녹색, 웰빙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한옥의 저변확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新한옥 비전, 진화하는 한옥'이란 주제로 계획부문(주거/비주거/공공공간)과 준공부문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수상작은 학생, 건축관련 전문가 등이 제출한 152건의 계획부문과 18건의 준공부문 작품을 대상으로 한옥, 건축, 조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본 공모전이 한옥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한옥의 미래상도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회 한옥사진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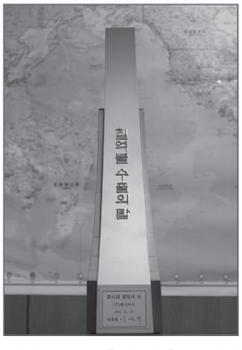
'내가 살고 싶은 집, 한옥'을 주제로 제1회 한옥사진 공모전'이 개최된다.
국토해양부와 (사)한옥문화원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12년 4월 16일까지 참가등록을 해야하며, 작품접수는 2012년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한옥과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 응모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모전 홈페이지(www.hanok-photocompe.or.kr)를 참고하면 된다.

2011 대전건축문화제

'2011 대전건축문화제'가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대전광역시청과 대전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지역 건축연합단체인 (사)도시건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과학도시 대전, 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란 주제로 세 번째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이성희 대전광역시건축사회장의 축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및 김신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격려사,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김용각 대전건축문화제 추진단장의 행사소개와 함께 권선택 국회의원 및 이상태 시의장 등 관련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행사 프로그램 중 초 · 중 · 고 학생들이 참여한 '대전건축글짓기대회', '대전건축그림그리기대회'를 비롯해 대학생과 일반시민이 참여한 '시민사진공모전'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대전건축투어」는 5일, 6일 양일간 충남도청사 등 대전의 근대건축물에 대한 해설과 함께 투어를 진행했으며, 전시행사인 〈건축사 · 교수초청전〉, 〈공모전수상작전시〉, 초등학생 건축체험마당인 〈어린이건축학교〉, 시민 건축체험마당인 〈건축종이모형만들기, 모빌만들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청 대강당에서는 '건축과 영화' 행사로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4작품을 상영해 관심을 쓸었다.
특히 사회봉사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건축문화나눔터'는 대전의 사회복지단체들과 협력해 열악한 환경의 5가구를 선정, 건축사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이주근로자 대전 투어'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전의 건축문화를 체험하고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 사회에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 '2011 대전건축문화제'는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00여명의 대전 시민들이 참석, 그 어느 해보다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평이다.

KCC, 7억불 수출의 탑 수상



KCC는, 지난 12월 12일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후원한 제48회 '무역의 날' 기념 행사에서 KCC가 7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밝혔다.
수출의 탑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동안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KCC는 선박용, 자동차용 도료, 실리콘 및 유무기 소재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약 18%의 수출이 신장된 7억 1천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여 7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KCC는 특히 이번 수출의 탑은, 지난 해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1년 만에 수출 기록을 갱신하여 수상한 것으로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 해 5억 9천만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정몽익 대표이사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KC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수출 규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CC관계자는 "KCC가 7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 해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1년 만에 '7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고 자랑스럽다. 새해에도 글로벌 정밀화학 기업으로서의 KCC 역량을 더욱 축적하여 한 단계 진화해나가겠다." 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1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신간안내

여성멘토가 말하는 건설이야기 We Build a City!

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저 | 360쪽 |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여성건설인협회의 건설 전문가 회원 36명이 글을 모아 「여성 멘토가 말하는 건설이야기: We Build a City!」를 출간했다.

건설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알지 못했던 욕망을 발견하도록 이끌어주는 건설이야기로, 건설 분야가 전통적으로 남성이 종사하는 분야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도전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건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다.

설계, 전기, 통신, 시공, 조경, 도시, 교통, 토목, 환경, 실내건축, 건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며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 문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114

작은 집 큰 생각

임형남, 노은주 공저 | 244쪽 | 교보문고

이 책은 '집주인과 건축가의 행복한 만남', '이야기로 집을 짓다', '서울풍경화첩', '나무처럼 자라는 집' 등 여러편의 저서와 강연, 현장답사를 통해 좋은 집, 행복한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 온 임형남 건축사와 노은주 소장 부부의 신간이다.

저자들이 최근 설계해서 지은 작은 집과 실제로 들어가서 살았던 작은 집 이야기를 통해 실제 설계와 시공사례를 자세하게 담았다.

제1부에서는 '작은 집을 짓다 – 산을 보는 집, 금산주택'은 저자들이 최근에 설계했던 작은 집, 금산주택을 지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은 것이다. 제2부는 '작은 집에 살다 – 산에 안긴 집, 방아닷골 이야기'는 저자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전부터 살았던 여러 작은 집들에 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구파발 인근 방아닷골에서 살았던 경험을 담았다.

· 문의 : 교보문고 1544-190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I Kim, Eunmee I

경제난에 대응하는 네덜란드 건축계의 비전

스타 건축사에 의한 과장된 건축물의 시대는 끝났다. 경제적 위기의 영향으로, 예산은 삭감되어져 왔고,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더 수수한 건물들에 의해서 대체되어지면서 미루어지게 되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이 되는 것을 적극 도왔던 건축사 스스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고심해야만 하는 긍정적인 면도 불러 올 것 이라며 네덜란드 건축문화원(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이하 NAi)의 원장인 Ole Bouman은 주장한다.

수천 개의 사무소가 문을 닫게 했던 경제적 위기는 건축의 세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충격이었다. 최근까지도, 건축학과 학생들은 갈채를 받는 wow–factor건물을 만들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Rem Koolhaas나 Ben van Berkel 같은 우상의 발자취를 따르는 꿈을 여전히 꿀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직장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현실을 깨달았다. NAi의 Ole Bouman은 "접근성, 사회적 비용혜택, 에너지소비 그리고 향후관리에 대한 이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건물"을 만드는 것으로 건축은 최근의 금융위기에 기여했다고 믿는다. 이것은 NAi Uitgevers에 의해 출판된 그의 신간 Architecture of Consequence에서 채택한 입장이며, 또한 최근 NAi에 의해 조직된 같은 이름이 붙은 전시회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써 다루어졌었다.

이것은 Bouman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된,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단지 건축계의 한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건축은 교통체증, 과적 공항, 광대한 외양간과 양돈장, 무법 도심지역 그리고 유령도시 같은 근대 질병의 축적물의 모습의 의해 그것들을 만들어 낸 요소들로서 연루 되어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이런 논쟁의 실례에서, 그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성공의 반영이 되는 것으로 최근까지 인지되어져 왔던 현상에서 지금은 임박한 위기의 증거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한다.

wow–factor 건축의 대안

건축은 최근 금융위기를 발생시킨 것을 돕는 다는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Bouman은 또한 최근의 문제들에 대해 계획한 해결책에서 건축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은 중요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우선 건축사들은 1한 세기를 넘는 오랜 논쟁거리였던 근대와 전통건축의 우열에 관한 싸움을 중단 해야만 하며, 두 번째로는, 주로 건축사들에게 어필하는 "기발한 콘셉트"을 고안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관심을 사회의 실제 요구로 돌려야만 할 것이다.

NAi에 의해 조직된 전시의 마지막에서 25개의 최첨단 네덜란드 건

Better than a semi-d. Houses on Amsterdam's Scheepstimmermanstraat. (1999)

축사사무소들이 식량생산, 건강, 에너지, 계획, 교통, 사회조직 그리고 현재 경제시스템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문제에 대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념을 보여 주었다.

Bouman 에 의해 선택된 이들 사무소들은 대부분 "불쾌한 광경의 건축" 혹은 입면의 강조에 의해 특성화된 wow-factor 건축을 대체가능한 것으로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통분모는 사회문제들의 해결책을 위한 목표에 치중하는 것이다. Atelier Kempe Thill의 경우, 진부한 개념 과 평범한 사회 주택을 깨뜨리는 것을 포함한다. 2by4-architects는 인구감소, 재정자원과 안정적인 고용의 부족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디자인한 산업용 곳간을 활용한 저렴한 비용의 주택 건설을 전문화한다.

수영장 가열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 흘려보내기

동시에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의 대한 언급은 반드시 어떤 재미있는 면이 빠진 건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NAi 전시회는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것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한 장래성이 좋은 네덜란드 디자인의 많은 예시를 제공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건축의 영역 밖이라 여겨졌던 문제들을 안고 가려는 의지이다. 그 결과는 탄소중립건물의 계획범위이다. 에너지 생산, 저소득 사용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거주, 산업폐기물로 구성된 빌라, 그리고 지방 간척지들을 식량생산과 레저 활동지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Park Supermarkt 프로젝트 등이 있다.

또 다른 이상적인 프로젝트는 Umuiden 가까이에 특별히 만들어진 모래언덕 아래 있는 야외 수영장을 가열하기 위해 수로로 폐기물 에너지를 흘려보낼 지하 호텔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만약 이 프로젝트들의 설득력 있는 힘으로 표현된 비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네덜란드 건축은 미래 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계속 할 것이다. 혹은 적어도 앞선 세대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건축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 固

* 윗글의 일부는 http://archpaper.com 의 기사 일부를 발췌 번역, 인용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10월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457	5,457	94	188	8	24	5,559	5,669	1,630	1,630	231	462	54	162	24	96	22	144	1,961	2,494	7,520	8,163
서울	856	856	23	46	2	6	881	908	833	833	134	268	35	105	9	36	14	84	1,025	1,326	1,906	2,234
부산	473	473	14	28	2	6	489	507	101	101	20	40	2	6	2	8	2	14	127	169	616	676
대구	460	460	19	38	4	12	483	510	66	66	17	34	3	9	2	8	2	10	90	127	573	637
인천	275	275	3	6	0	0	278	281	68	68	5	10	1	3	0	0	0	0	74	81	352	362
광주	200	200	1	2	0	0	201	202	40	40	8	16	2	6	2	8	0	0	52	70	253	272
대전	247	247	5	10	0	0	252	257	35	35	5	10	5	15	0	0	1	15	46	75	298	332
울산	181	181	5	10	0	0	186	191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08	217
경기	769	769	1	2	0	0	770	771	238	238	19	38	2	6	3	12	1	5	263	299	1,033	1,070
강원	176	176	2	4	0	0	178	180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6	213
충북	216	216	3	6	0	0	219	222	34	34	4	8	1	3	2	8	1	9	42	62	261	284
충남	251	251	1	2	0	0	252	253	51	51	4	8	1	3	2	8	0	0	58	70	310	323
전북	247	247	4	8	0	0	251	255	22	22	2	4	1	3	1	4	0	0	26	33	277	288
전남	203	203	1	2	0	0	204	205	18	18	2	4	0	0	0	0	1	7	21	29	225	234
경북	372	372	5	10	0	0	377	382	37	37	4	8	0	0	0	0	0	0	41	45	418	427
경남	412	412	6	12	0	0	418	424	29	29	2	4	0	0	0	0	0	0	31	33	449	457
제주	119	1119	1	2	0	0	120	121	14	14	1	2	0	0	0	0	0	0	15	16	135	137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63	10	8,173	100%	23
서 울	2,234	3	2,237	33.9%	10
부 산	676	1	677	7.9%	9
대 구	637	0	637	7.7%	0
인 천	362	0	362	3.8%	0
광 주	272	0	272	3.7%	0
대 전	332	1	333	3.7%	0
울 산	217	0	217	2.6%	0
경 기	1,070	2	1,072	12.2%	2
강 원	213	0	213	2.6%	0
충 북	284	0	284	3.0%	0
충 남	323	3	326	3.1%	0
전 북	288	0	288	3.0%	0
전 남	234	0	234	1.9%	0
경 북	427	0	427	4.6%	1
경 남	457	0	457	5.0%	1
제 주	137	0	137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 고
회원수	5,669	2,494	–	8,163	
비율	69.45%	30.55%	–	100%	
사무소수	5,559	1,961	–	7,520	
비율	73.92%	26.08%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